

동반성장 (Growing Together)



대한민국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PRESENTING SPONSOR:



LOS ANGELES COUNTY
ECONOMIC DEVELOPMENT CORPORATION



WORLD TRADE CENTER ASSOCIATION
LOS ANGELES - LONG BEACH

LAEDC는 다음과 같은 선도적인 기업들의 적극적인 후원에 감사 드립니다.



LAEDC 회원가입과 관련한 보다 상세한 사항은 Justin Goodkind (213) 236-48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반성장 (Growing Together)



작성자:

Ferdinando Guerra, 국제경제학자, 주 저자, 연구원

연구를 도와주신 *Rafael De Anda*에게 특별한 감사를 전합니다.



LA 카운티 경제개발공사 (Los Angeles County Economic Development Corporation)
카이저 경제 연구센터 (Kyser Center for Economic Research)
444 S. Flower St., 37th Floor, Los Angeles, CA 90071
전화: (213) 622-4300 또는 (888)4-LAEDC-1
팩스: (213) 622-7100
E-mail: research@laedc.org
Web: <http://www.laedc.org>

LAEDC는 지역을 대표하는 비즈니스 리더십 기관으로서 1981년 설립된 민간, 비영리 501(c)3 기관입니다.

LAEDC는 다음과 같은 기업들이 동반성장:대한민국-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보고서에 보내주신 적극적인 후원에 감사 드립니다.

PRESENTING SPONSOR:



SPONSORED BY:





LAEDC의 임무는 남부캘리포니아의 선도적인 비즈니스 리더십 기관으로서 LA 카운티 지역의 비즈니스 및 고용을 유치, 유지 및 증대하는 것이다. 1996년 이래로 LAEDC는 175,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유지 또는 유치하고, 85억 달러의 임금창출 효과, 1억4천5백만 달러 이상의 LA 카운티 내 지방 정부 세수입 혜택과 교육분야 성장을 이루어내는 데에 크게 기여하였다.

지역 내 리더십 역할

LAEDC 회원은 시민사회 리더, 지역의 일류 공기업 및 민간기업 임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재정 지원과 LAEDC 사절단/ 프로그램/ 공공정책 이니셔티브에 대한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LAEDC 회원들은 지역 경제의 미래를 세워나가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자 한다.

비즈니스 서비스

LAEDC의 비즈니스 개발 및 지원 프로그램 (Business Development and Assistance Program)은 사업장 확보 지원, 인센티브 및 인허가 획득, 산업개발채권 등 전통적 및 비전통적 금융조달 방안 강구 등 LA 카운티 내 기업들이 반드시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또한, LAEDC는 근로자 교육훈련, 교통 및 유틸리티 제공기업들과도 함께 협력한다.

경제정보 제공

공공 정보 및 무료 리서치 서비스를 통해 LAEDC는 의사결정권자, 교육계, 미디어 및 정부에 중요한 경제 분석을 제공한다. 우리는 다양한 산업 중심적인 지역분석 자료를 발행하며, **카이저 경제연구센터 (Kyser Center for Economic Research)**가 제공하는 경제전망 보고서는 월스트리트저널 랭킹에서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경제정책 및 분석

LAEDC 경제 및 정책분석 그룹은 민간 및 공공부문 고객들을 상대로 깊이 있고, 신뢰받는 경제 및 정책 관련 전문지식을 제공한다. LAEDC는 내부 전문가 외에도 필요 시 외부 기관 및 컨설턴트를 영입하는 등 매우 유연한 문제해결 접근법을 취해왔다. 고객의 수요에 따라 LAEDC는 협력기업으로서 타 기관에 기여하거나, 단독 컨설턴트로 참여하는 등 복잡한 장기 프로젝트 추진에 필요한 최적의 팀을 구성하여 진행한다.

우리의 리더십 활용

LAEDC는 무역 확대와 해외투자를 촉진하는 세계무역센터협회 로스앤젤레스-롱비치 (World Trade Center Association Los Angeles - Long Beach, WTCA LA-LB) 운영을 담당하고, LAEDC의 경제개발 센터는 공공기관들과, 정책 입안자들, 기타 시민사회의 리더들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삶의 질 향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공정책 이슈들을 다루고 해결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자 남부캘리포니아 리더십 협의회 (Southern California Leadership Council)와 제휴하여 활동한다.

글로벌 연계

WTCA LA-LB는 LA 카운티 내의 대표적인 국제무역협회, 무역서비스기관, 무역분야 리소스로서 국제무역 개발과 남부캘리포니아 기업들의 사업 기회 발굴을 지원한다. 또한 LA 지역의 해외투자 유입을 촉진한다. WTCA LA-LB는 LA 카운티 경제개발공사 (Los Angeles County Economic Development Corporation)의 자회사이다. 이와 관련한 보다 상세한 사항은 웹사이트 (www.wtca-lalb.org)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WORLD TRADE CENTER ASSOCIATION
LOS ANGELES - LONG BEACH

세계무역센터협회 로스앤젤레스-롱비치 (World Trade Center Association Los Angeles - Long Beach, WTCA LA-LB)와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에 특별한 감사를 포함합니다.

- Vance Baugham 소장
- Lianne Chua 아시아 담당 과장
- 최태호 영사



목차

EXECUTIVE SUMMARY	1
서문	7
1장 · 역사 관계 (HISTORICAL TIES)	16
2장 · 비경제적 관계 (PERSONAL TIES)	18
교육적 관계 (Educational Ties)	18
문화적 관계 (Cultural Ties)	24
네트워크 관계 (Network Ties)	29
3장 · 무역 관계 (TRADE TIES)	32
LA 세관지역 (Los Angeles Customs District, LACD)	35
LA항 (Port of Los Angeles, POLA)	40
롱비치항 (Port of Long Beach, POLB)	42
LA 국제공항 (Los Angeles International Airport, LAX)	45
한미자유무역협정 (Korea - U.S. Free Trade Agreement, KORUS FTA)	47
4장 · 투자 관계 (INVESTMENT TIES)	50
한국과 FDI (Korea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51
미국 및 캘리포니아로의 FDI 유입 (FDI into the U.S. and California)	52
LA 카운티 FDI 유입 (FDI into L.A. County)	53
LA 카운티 FDI 유입- 녹색/청정기술 (L.A. County FDI - Green/Clean Tech Strategy)	58
LA 카운티 무역 및 투자 기관 (L.A. County Trade and Investment Organizations)	66
한국정부, 무역, 투자 기관 (Korean Government, Trade, and Investment Organizations)	68
5장 · 비즈니스 관계 (BUSINESS TIES)	78
Fortune 500대 기업 (Fortune 500 Companies)	78
한국 소재 LA 카운티 기업 (L.A. County Companies Present in Korea)	80
기타 LA 카운티 기업 (Other L.A. County Firms)	87
LA 카운티 소재 주요 한국기업 (Some Key Korean Companies Present in L.A. County)	87
6장 · 향후 과제 (WHAT LIES AHEAD)	96
핵심도전과제 (Key Challenges)	96
핵심기회 (Key Opportunities)	97
7장 · 결론 (CONCLUSION)	100
SOURCES	103
APPENDIX	108



한국 개요

- **공식 국가명**
대한민국
- **지리적 면적**
인도보다 약간 큼
- **인구**
약 4880만 명 (서울인구 약 1040만 명), 인구성장율 0.23%.
- **행정구역은 1개 수도 (서울), 6개 광역시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울산), 8개 도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1개 특별자치도 (제주도)로 나뉨.**
- **대한민국정부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로 나뉨**
- **대한민국 대통령**
이명박
- **대한민국 국무총리**
김황식
- **선거**
대통령은 국민직접투표로 선출되고 5년 단임제이며,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회의원 총선거는 2012년 4월에 실시되었으며, 대통령 선거는 2012년 12월 치뤄질 예정이다.
- **주미한국대사**
최영진
- **LA 총영사**
신연성
- **UN 사무총장**
반기문 (2007년 1월 이후)
- **세계은행총재**
김용 (재미 한인으로서 2012년 7월 임기시작)

한국경제 개요

- **2011년 한국의 GDP는 1.2조 달러로 세계 15위 (현재의 명목 공식환율 기준)**
- **전세계 12위 GDP 규모 (PPP* 기준)**
-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연평균 GDP 성장율은 약 8%였다. 1990년대는 약 6%, 2000년대는 5% 였다 (2000년 미달러 기준)**
- **세계 7위 수출국**
- **수출이 GDP의 약 50% 차지**
- **주요 수출품목은**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자동차, 컴퓨터, 철강, 선박, 석유화학
- **세계 9위 수입국**
- **주요 수입품목은** 기계, 전자 전기기기, 원유, 철강, 운송기기, 유기화학물, 플라스틱
- **경상수지**
364억 달러, 세계 12위 (재화와 서비스 수입액과 해외투자 순수익에서 재화와 서비스 수출액을 차감한 금액)
- **주요 항구**
부산항 (세계 5대항), 인천항, 광양항, 포항항, 울산항, 여수항
- **산업부문별 GDP 구성**
서비스 68.4%, 산업 24.3%, 농업 7.3%
- **외환보유고 세계 6위 - 2,916억 달러**
- **노동력**
2,475만 명
- **1인당 GDP**
29,010 달러 (PPP기준)
- **GDP 대비 총 국내 저축율**
32%

상기 내용은 최신 가용 데이터를 근거로 한다.

* 구매력평가 (Purchasing Power Parity, PPP) - 구매력평가 환율로 나타낸 한 국가의 GDP는 해당 국가에서 생산된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총액을 미국 내 지배적인 가격을 기초로 산출한 것이다. 이는 1인당 복지를 산출하거나 국가간 생활수준 또는 자원을 비교할 때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즐겨 쓰는 산출방법이다.



EXECUTIVE SUMMARY

LA 카운티와 대한민국 (이하, “한국”)은 과거 100여 년 간 상호호혜를 바탕으로 긴밀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왔다. 한국 국민과 LA 카운티 시민은 이 같은 오랜 역사 공유를 통해 매우 특별한 파트너십을 수립해왔다. 한국이 LA 카운티에 미친 영향은 문화, 경제적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실제로 재미한인들은 과거 수십 년간 LA 지역사회의 사회 및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다. 본 특별 보고서에 강조된 바와 같이, LA 카운티와 한국의 과거와 미래는 상호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보고서 개요

- 본 보고서의 목적은 한국과 LA 카운티가 오랫동안 구축해온 긴밀하고, 또 성장하고 있는 유대 관계를 설명하고, 이 같은 관계가 상호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를 설명하는 데에 있다.
- 첫째, 본 보고서는 역사적 관계를 비롯한 한국과 LA 카운티의 유대관계의 범위를 개략적으로 설명한다.
- 둘째, 본 보고서는 교육, 문화, 네트워크 관계 등 한국과 LA 카운티의 비경제적 관계를 조명한다.
- 셋째, 본 보고서는 양자간 핵심 무역관계에 초점을 두어 양자간 경제 관계에 대해 분석한다.
- 넷째, 본 보고서는 해외직접투자 (FDI)의 중요한 역할에 대해 설명하고, 향후 투자 가능한 핵심 산업부문을 파악한다.
- 다섯째, 본 연구는 LA 카운티에 본사를 두고 한국에 진출한 기업들 (LA 카운티에 본사를 두고 있지 않으나, 한국에서의 사업운영이 LA 카운티 사무소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일부 기업 포함)을 소개하고, LA 카운티에 소재한 주요 한국 기업들에 대해 살펴본다.
- 마지막 장은 양 지역의 파트너십과 관련한 도전과제 및 기회에 대해 기술하고, 지속적인 상호관계 증진 방안에 대해 권고한다.



역사적 관계

한국인들은 미국으로 이주한 세 번째 아시아 집단 이주민이다. 한인들의 미국 이주물결이 처음 시작된 것은 1900년대 초였다. 당시 한인들은 본래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 노동자로 모집되었고, 결국 이 중 다수가 캘리포니아에 정착하였다. 1910년 미국 센서스에 따르면, 당시 미국 거주 한국인은 462명으로 그 중 대다수가 캘리포니아에 거주하였다. 한국인의 남부캘리포니아 거주 역사는 1920년대와 1930년대에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1930년대, 재미한인들은 지금의 LA 사우스 센트럴 지역에 커뮤니티를 형성하였다.

이 후부터 1965년 이민법 제정 때까지 이 지역으로의 한인 이주는 주춤하였다. 이민법 제정 후 LA는 대다수 한인 이주민의 이민종착지가 되었다. 현재, LA 다운타운에 위치한 코리아타운은 1990년대 급속히 확대되어 현재는 많은 한국 시중은행, 상점, 식당, 기업들을 볼 수 있다. 오늘날, 코리아타운의 인종 구성이 보다 다양해졌으나, 여전히 한국인이 이 지역 전체 인구의 약 25%를 차지한다. 이 외에도 LA 카운티 내 주요 재미한인 거주지역으로 토랜스 (Torrance), 다이아몬드바 (Diamond Bar), 세리토스 (Cerritos), 글렌데일 (Glendale)이 있다. 226,000명에 달하는 재미한인들이 현재 LA 카운티 내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는 캘리포니아주 재미한인 인구의 약 절반에 해당한다.

비경제적 관계

한국 문화는 항상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특히,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계속된 경제 성장과 세계화로 많은 한국 학생들이 유학의 기회를 갖게 되었다. 미국은 한국 학생들의 주요 유학 목적지였고, 캘리포니아만큼 많은 한국인 유학생들을 유치한 주는 없었다.

태평양의 주요 관문인 LA 카운티는 아시아-미국간 경제, 비즈니스, 교육, 문화 교류의 중심으로 부상하였다. 남부캘리포니아대 (University of South California, USC)는 미국 대학 중 가장 많은 한인 학생이 재학 중이며, 캘리포니아대학교 로스앤젤레스 캠퍼스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UCLA)가 그 뒤를 잇는다. 또한 기타 LA 카운티 소재 칼리지 및 대학들도 많은 한인 학생들을 유치하고 있다. 현재 2,300명 이상의 한인 학생들이 LA 카운티의 중등과정 후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이 졸업 후 비즈니스, 전문직, 정부 분야에서 성공을 거둘 경우 향후 한국과 LA 카운티를 이을 중요한 가교역할을 할 것이다.

“태평양의 주요 관문인 LA 카운티는 아시아-미국간 경제, 비즈니스, 교육, 문화 교류의 중심으로 부상하였다.”

한국과 LA 카운티는 교육 외에도 다방면에서 교류해왔다. 양 지역의 비경제적 교류에는 미국 내 많은 한국인 및 재미한인동포들간의 문화적 관계가 포함된다. 또한, LA 카운티에는 아시아학회(Asia Society), 한미재계회의 (US-Korea Business Council), 미 한국상공회의소 (Kore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in the U.S., KOCHAM), 로스앤젤레스 한인상공회의소 (Korean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of Los Angeles, KACCLA) 등 국가 및 지역기관뿐 아니라, 한국인 및 재미한인동포들을 위한 많은 유용한 비즈니스 및 전문가 협회들이 있다. 이들 기관들은 LA 카운티와 한국의 관계 강화에 커다란 역할을 수행한다. 이 모든 기관들은 향후 양 지역의 번영에 기여할 파트너십에 필요한 리더십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다.

무역 관계

한국전쟁 후 한국은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으며 1960년대 이후 세계 경제 대국 중 하나로 성장하였다. 한국의 극적인 경제 성장 요인 중 하나는 한국정부가 1960년대 이후 추진해온 수출주도형 개발모델이었다. 이 외의 요인으로 높은 자본투자율, (모든 생산 요소의 연결을 통한규모의 경제를 실현함으로써 세계 최대규모의 대기업을 탄생시킨) 수직/수평적 “재벌” 모델을 꼽을 수 있다.

한미무역은 1970년대 한국이 미국의 최대 교역국으로 부상하면서 크게 증가하였다. 실제로, 미국은 중국이 미국과 일본을 앞지르기 전까지 수년간 한국의 1위 또는 일본에 이은 2위 교역국이었다. 1970년대에서 2010년에 이르기까지 양국간 무역은 10억 달러 이하에서 900억 달러 이상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이 기간 동안, LA 카운티는 한국과 매우 긴밀한 경제관계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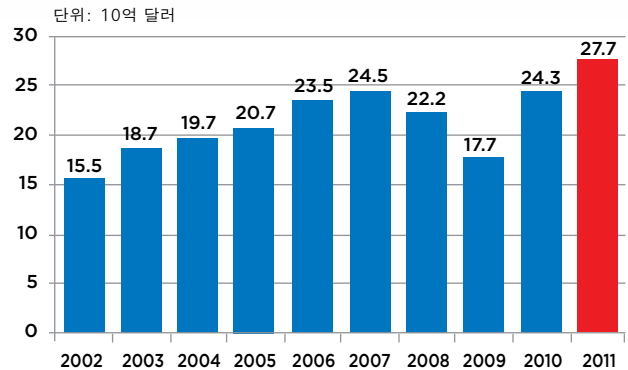
구축하였다. 오늘날 LA 세관지역 (Los Angeles Customs District, LACD)은 한미간 무역의 50%이상 (총 물동량기준) 또는 약 30%(총 무역액기준)를 차지한다. 실로, LA항과 롱비치항을 합한 무역은 한미 전체 무역의 과반수 (총 물동량기준) 또는 약 25%(총 무역액기준)를 차지한다.

“비경제적 관계와 마찬가지로, 한국과 LA 카운티의 경제 관계는 그 어느 미국 지역보다 긴밀하다.”

LA는 아시아와의 뿌리 깊은 관계로 인해 한태평양 지역의 수도로 간주되어 왔다. 비경제적 관계와 마찬가지로, 한국과 LA 카운티의 경제 관계는 그 어느 미국 지역보다 긴밀하다. 실제로, LA 카운티와 한국간 국제무역관계 성장은 LA지역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해왔다. 예를 들어, 한진그룹은 13억 달러 이상의 경제적 가치를 생산하고, 연간 약 2,000개의 일자리를 제공하며, 약 5,400만 달러에 가까운 근로자연간 소득을 창출함으로써 LA 카운티 경제에 큰 영향을 주었다 (한진그룹 관련 세부 내용은 ‘비즈니스 관계’ 참조).

한미 양국간 무역은 글로벌 경제 침체로 2009년 한 해 크게 하락하였다. 그러나, 세계 무역은 2010년 강하게 반등하였고, 2011년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하였다. LA 세관지역 (LACD)의 여러 “수치들”은 한미무역이 2011년 사상 최고를 기록하는 등 강하게 성장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2011년 한국은 LACD의 3위 교역파트너로서, 양자간 무역액이 총 277억 달러에 달하였다. LACD 하역 기준 (일반수입을 의미함) 총 한국수입금액은 167억 달러 (3위)였고, LACD를 통한 한국수출금액은 110억 달러 (3위)에 달하였다. 그 결과, LACD는 한국과의 무역에서 57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한국의 수입-수출비율은 1.5로 LACD상위 5개 무역 파트너 중 가장 낮다.

LACD - 한국간 교역 2002-2011



출처: U.S. Census Bureau, USA Trade Online.

최근 한미자유무역협정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KORUS FTA”) 통과 및 이행으로 미국/LACD-한국 무역의 미래는 더욱 밝아졌다. 한미 FTA는 2012년 3월 15일 발효 되었다. 한미자유무역협정의 최대 수혜자는 LA항과 롱비치항일 것이다. 한미 양국간 총 무역의 대부분이 LA항과 롱비치항에서 취급되고, 한국은 이 항구들의 제2위 교역파트너 (TEU 물동량 기준)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한국은 LACD의 제 3위 교역파트너이고, LACD는 미국 세관지역 중 한국의 최대 교역파트너이다. 항구 물동량 증가뿐 아니라 그로 인한 지역의 무역관련 산업/부문 또한 수혜가 기대된다.

한미FTA는 정보기술장비, 전자기기, 화학, 쇠고기, 의료장비, 항공엔진, 부품, 면 등 대부분의 LACD 상위 수출품목의 성장을 촉진할 것이다. 무역장벽철폐로 지역의 무역부문에 급진적인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FTA로 영화, 소프트웨어, 음악, 영상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 및 시행이 더욱 강화됨에 따라, 지역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혜택이 주어질 것이다. 또한 LA 카운티가 미국 제조업의 중심임을 고려할 때 본 협정은 기계, 장비 등 제조업 분야의 수출을 신장시킬 것이다. 많은 비관세장벽 철폐로 (금융, 회계, 법률을 포함한) 지역의 전문 및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이 증진될 것이다.

한미 FTA는 미국과 아시아 주요 경제국간에 체결된 첫 번째 자유무역협정이다. 이는 (우리의 2위 교역파트너인) 일본을 포함한 9개 태평양국가들과 미국의 포괄적 무역협정인 환태평양전략적경제동반자 협정 (Trans-Pacific Partnership, TPP) 체결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



무역 관계 (계속)

TPP 체결에 LA 카운티의 상위 5대 무역파트너들이 동참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미국 그 어느 지역보다 LA 카운티 경제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투자 관계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 (U.S. Bureau of Economic Analysis, BEA)은 해외직접투자 (FDI)를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직·간접적으로 미국 법인기업의 총 주식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또는 비법인 기업에 대해 이에 상응하는 이해관계를 갖는 것”으로 정의한다.

한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는 1997년 아시아금융위기 이후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국제무역과 마찬가지로 (구매력평가환율 기준으로) 한국 경제가 세계 12대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하는 데에 크게 기여하였다. 특히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룩한 지역이 상대적으로 FDI 비율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난다.

2008년 LAECD가 발행한 보고서인 “LA 카운티로의 해외직접투자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Los Angeles County)”에 따르면, 한국은 LA 카운티에 가장 많은 해외법인 및 외자계 기업이 진출한 국가이다. 즉, 총 89개 한국에 근거를 둔 기업들이 있으며, 이중 73개가 미국내 제1근거지로, 16개 가 제2근거지로 LA를 택하고 있다. 이들 기업이 가장 많이 속한 산업분야는 도매업(50개 기업)이었고, 운송 및 창고업 (16개 기업)이 그 뒤를 이었다. LA 카운티에 소재한 한국계 해외법인 및 외자계 기업에 고용된 인원만 2,200명이며, 총 급여가 1억2천6백만 달러에 달한다. LA 카운티에 진출한 대표적인 한국 기업은 한진그룹, 삼성, 현대, LG, 롯데 인터내셔널, CJ 아메리카, 한국항공우주산업, 금호아시아나 항공, SK 에너지 등이다.

한국투자 유지 및 유치 확대는 향후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다음과 같은 다양한 이유로 한국 기업들은 항상 LA를 매력적인 투자처로 간주해왔다. 첫째, LA는 약 천만 명의 인구와 최소 200,000개 기업을 보유한 거대 시장이다. LA 카운티는 두 개의 항구, 한 개의 국제공항, 발달된 고속도로망, 알라메다 회랑 (Alameda Corridor: 미국 전역을 연결하는 상품 수송 철도) 등 고도로 발달된 복합운송망을 갖추고 있다. LA 카운티는 세 개의 세계적인 연구중심 대학 (Caltech, USC, UCLA)과 118개의 기타 교육기관 등 세계적 수준의 고등교육 시스템을 자랑한다. 둘째, 한국기업은 미국에 설립될 경우 상업분쟁 관련

장애티들을 피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많은 LA 거주 한인들은 이 지역으로 이주하는 한국인 상사직원들에게 “편안함을 느끼게 하는 근거”가 된다.

일부 전문가들은 향후 한국의 투자가 신재생에너지뿐 아니라 전기자동차 등 녹색/청정 기술산업에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 또한 엔터테인먼트, 의류, 의료보건, 바이오테크도 유력한 투자분야이다. 이 외에도 식료품에서 디지털미디어 (애니메이션)까지, 로봇공학에서 창의적 디자인까지 다양한 핵심 산업에 대한 투자 유치가 전망된다.

“LA 카운티는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녹색/청정기술 유치에 많은 관심이 있다.”

LA 카운티는 한국의 해외직접투자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녹색/청정기술 유치에 많은 관심이 있다. LA 카운티 경제개발공사 (Los Angeles County Economic Development Corporation)의 자회사인 세계무역센터협회 로스앤젤레스-롱비치 (World Trade Center Association Los Angeles-Long Beach, WTCA)는 특히 청정기술, 자동차산업, 대체/신재생 에너지 산업에 대한 한국의 투자를 전략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LA 카운티에 사무소를 둔 한국의 투자 및 경제 개발기구 목록과 외국투자자들을 위한 LA 카운티 내 투자 및 무역 기관들의 목록을 제공한다.

주로스앤젤레스 대한민국 총영사관 (Consulate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in Los Angeles)은 한국과 LA 카운티간 무역 및 투자 개발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총영사관은 비자 및 여권 관련 모든 공식 업무 처리뿐 아니라, 상업, 문화, 교육, 과학, 기술에 걸쳐 한국과 남부 캘리포니아간 협력 및 교류를 촉진한다. 총영사관 웹사이트는 한국 방문, 문화 및 교육, 비즈니스 및 투자, 한미관계, 한국외교정책 및 기타 한국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총영사는 신연성이다.



LA 카운티에 개설된 대표적인 무역투자사무소로 대한무역진흥공사 (KOTRA)를 들 수 있다. KOTRA는 국내외 기업 간 투자 및 무역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정부투자기관이다. KOTRA는 미국 내 8개 사무소를 운영한다. LA 사무소는 (남부 캘리포니아, 아리조나, 유타, 네바다, 뉴멕시코, 콜로라도, 하와이를 포함한) 미 남서부를 담당하고, 이 지역의 미국 기업들과 한국 내 사업기회들을 연결시키며, 한국 기업들과 미 남서부 시장을 연결하고자 노력한다. KOTRA LA 사무소는 KOTRA내 네 개 주요 사무소 중 하나로서 KOTRA 활동에 핵심 역할을 담당한다. KOTRA LA는 미국에 두번째로 진출한 사무소로서 미국시장을 개척한 개척사무소 중 하나이다. 실제로 LA 카운티가 한미 양국관계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한 가운데, 본 사무소의 전략적 중요성은 과거 수십 년 동안 크게 증대되었다.

KOTRA의 주요 사업목표

- 고품질 한국 상품을 소개하는 창구 역할
- 미국 기업들의 한국 내 사무소 개설 지원
- 미국 기업들의 한국 비즈니스 파트너 파악 지원
- 미 투자자들과 한국의 최첨단 혁신을 잇는 가교 역할

비즈니스 관계

본 장에서는 한국과 LA 카운티의 해외직접투자자 관련된 두 개의 기업 목록을 소개한다. 첫 번째 목록은 LA에 본사를 두고 (Fortune 500대 기업, 주요 산업클러스터 기업 등) - 사무소, 공장, 점포 등- 물리적으로 한국에 소재 하는 기업과, LA 카운티에 본사를 두고 있지 있으나, 한국 내 사업 운영이 LA 카운티 사무소들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기업들을 나열하였다. 본 목록은 현재 LA 카운티에 본사를 둔 Fortune 500대 기업과 각 기업의 한국 내 활동을 요약 소개한다. 또한, 본 목록은 금융서비스, 전문 비즈니스서비스, 관광 및 hospitality, 패션디자인, 생산, 엔터테인먼트, 기술 및 바이오메디컬 등 핵심산업 클러스터 기업들을 포함한다. 이 기업들은 대기업에서 소기업까지, 공학에서 패션, 금융, 법률, 전문서비스, 선진기술 분야에까지 놀라울 정도로 다양하며, LA 카운티의 다양한 산업클러스터를 반영한다.

두 번째 목록은 LA 카운티에 소재한 주요 한국기업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에는 잘 알려진 기업/재벌기업들과 잘 알려지지 않은 중소기업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는 한진그룹, 삼성, 현대, LG, 롯데 인터내셔널, 금호아시아나 항공, CJ 아메리카, KBS, MBC, 네트워크 케이블 U.S.A., 재능교육, 기타 LA 카운티 경제 참여를 열망하는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다.

향후 과제

이어 본 보고서는 한국과 LA 카운티의 미래관계에 영향을 줄 요인들을 살펴본다.

한미 FTA가 2012년 3월 15일에 본격 발효됨에 따라, 국제무역 전망에 비추어 볼 때 캘리포니아와 한국간 무역 증대가 절실하다. 한국 정부는 기존의 국내경제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국내 소비 진작을 위한 거시경제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신규 자유무역협정 통과 등 한국 무역시장 확대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무역패턴이 장단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한국의 지속적 경제 성장과 한미 FTA 발효에 따른 LACD의 한국수출 성장 잠재력은 LA 카운티와 한국간 무역을 위한 최대의 기회이다. 현재와 가까운 미래에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이 철폐됨으로써, 미국/LACD와 한국의 양자 무역이 크게 증가할 것이다. 또한, 한국이 국내소비 촉진을 통해 수출주도형 성장에 대한 강한 의존에서 탈피하고자 한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향후 과제 (계속)

2009년 글로벌 경제 침체를 경험한 한국경제는 보다 적극적인 경제 접근법을 추구해야 한다는 내부 입장이 형성되었다.

미국 여타 지역뿐 아니라, 세계 여러 국가/지역으로부터 해외직접투자자와 관련한 강력한 경쟁이 대두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LA 카운티를 위한 많은 기회가 있다. 여기에는 교역량 증가뿐 아니라, 한국이 소유 및 운영하는 사업장의 교용창출도 포함된다.

LA 카운티로 유입되는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전망은 밝다. 미국 내 가장 많은 재미한인이 LA 카운티에 거주하며, LA 카운티가 광범위한 경제 기반과 높은 투자수익 창출을 위한 비즈니스 인프라를 제공하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 기업들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미래에도 LA지역에 매력을 느낄 것이다. LA 카운티는 한국 기업들에 거대한 시장, 전문 교육 훈련을 받은 노동력, 뛰어난 무역 인프라, 국내외 시장에 대한 탁월한 접근성, 풍부한 기술력, 세계적인 의류/ 자동차/ 엔지니어링 디자인, 미국 최대의 제조기반, 가격 경쟁력 및 화창한 날씨를 제공한다.

“미국 내 가장 많은 재미한인들이 LA 카운티에 거주하며, LA 카운티가 광범위한 경제 기반과 높은 투자수익 창출을 위한 비즈니스 인프라를 제공하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 기업들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미래에도 LA지역에 매력을 느낄 것이다.”

최대의 한국 투자기회가 될 수 있는 분야는 “녹색”/청정기술, 엔터테인먼트, 의류, 보건의료, 바이오테크, 식료품이다. 전기자동차, 태양에너지, 바이오테크는 가까운 장래에 투자 가능성이 높은 분야이다. 투자는 유통, 영업과 서비스, 연구개발, 지역본부 형태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 외에도 교육, 디지털 미디어 (애니메이션), 건축, 엔지니어링, 창의적 디자인 분야에 대한 투자도 유력하다.

결론

본 보고서는 한국과 LA 카운티가 무역, 투자, 비즈니스 외에도 문화적, 비경제적 관계를 기초로 매우 특별한 관계를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 내에서 한국과 이 보다 더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지역은 없다. 향후 무역, 투자, 비즈니스 관계가 더욱 중요하게 부각될 것으로 전망되나, LA 카운티의 대규모 한인 인구, 지역 칼리지 및 대학에 재학 중인 한인 학생, 다양한 지역문화기관들은 양자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다.

LA 카운티는 한국으로 통하는 미국의 중심 관문으로 성장하는 독특한 위치에 있다. 본 보고서는 향후 양자간 관계 증진을 위한 기존 관계 육성방안에 대한 권고로 마무리된다.



서문

보고서 개요

본 보고서의 목적은 대한민국(이하, “한국”)과 LA 카운티가 오랫동안 구축해온 긴밀하고, 또 성장하고 있는 유대 관계를 설명하고, 이 같은 관계가 상호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를 설명하는 데에 있다. 먼저, 본 보고서는 역사적 관계를 비롯한 한국과 LA 카운티간의 유대관계의 폭과 깊이를 개략적으로 설명한다. 다음으로, 본 보고서는 교육, 문화, 네트워크 관계 등 한국과 LA 카운티간의 비경제적 관계를 조명한다. 셋째, 본 보고서는 양자간 핵심적인 무역관계에 초점을 두어 양자간 경제적 관계에 대해 분석한다. 넷째, 본 보고서는 외국인직접투자 (FDI)의 주요 역할에 대해 설명하고, 향후 투자 전망을 다룬다. 다섯째, 본 연구는 LA 카운티에 본사를 두고 한국에 소재한 기업들 (LA 카운티에 본사를 두지 않았으나, 한국에서의 사업이 자사의 LA 카운티 사무소와 긴밀히 연결되어 운영되고 있는 일부 기업 포함)을 소개하고, LA 카운티에 소재한 주요 한국 기업들에게 대해 살펴본다. 마지막 장은 양자간 파트너십 관련 도전과제와 기회에 대해 기술하고, 상호관계 증진 방안에 대해 권고 한다.

한국의 경제기적

한국전쟁 이후, 한국의 경제는 세계 최대 기술 선진국 중 하나로 성장하였다. 1960년대부터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한국은 최대 경제성장률을 구가하였고, 그 결과 저개발국가에서 선진국 대열에 오를 수 있었다. 이 같은 과거 50년 동안 한국 경제가 보여준 고속 성장에는 기여 요인들이 있다.

한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에 기여한 요인들로 강력한 정부/산업/민간부문 공조, 재벌 출현, 높은 국내 투자와 저축률, 엄격한 직업윤리로 무장된 숙련된 노동력, 혁신기술, 수출중대를 가능케 했던 글로벌한 자유무역 환경, 풍부하고 값싼 원유를 들 수 있다.

한국은 1960년대 초부터 1990년대까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경제 중 하나였다. 이 같은 경제기적을 한국인들은 “한강의 기적”이라 부른다. 한강은 수도서울의 심장을 가로질러 흐른다. 경제적 기준으로 볼 때, 한국은 소득수준이 높은 선진국으로 분류된다. 오늘날 한국은 명목GDP(시장환율사용) 기준 세계 15대 경제 대국 또는 PPP환율 기준 12대 경제 대국이다. 한국은 G-20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기도 하다. 또한 한국은 홍콩, 싱가포르, 대만과 함께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룬 아시아국가들을 지칭하는 아시아호랑이 (Asian Tigers)중 하나이다.

한국 경제가 GDP 마이너스 성장을 경험한 해는 과거 40년 중 단 2년에 불과하다.



한국 GDP는 과거 50년 동안 10억 달러 미만에서 1조 달러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한국은 2008년-2009년 세계를 강타한 금융경제 위기에도 실질 경제 성장을 이룬 소수 국가 중 하나이다. 이는 최근 한국 경제의 내수소비 의존도 증가를 극명히 보여준다. 실제로 소비는 한국경제소득의 주요 요소가 되었다.

한국은 1970년대와 1980년대에 걸친 외국기술 도입과 현지화에 힘입어 산업화를 가속화하였다. 한국은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로 1970년대 이후 현재까지 획기적 기술혁신과 창조가 가능해졌고, 주요 경제대국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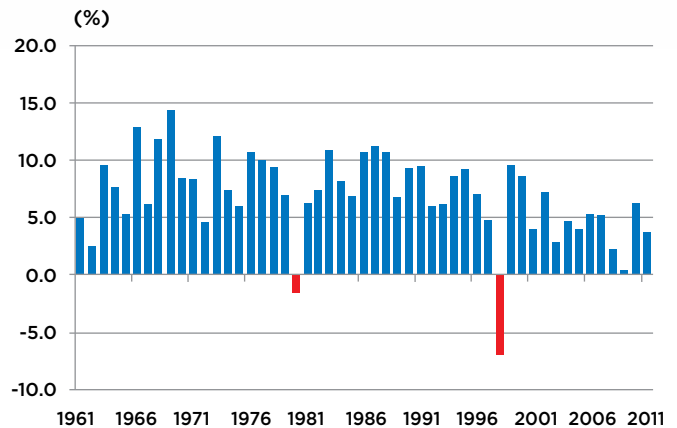
“**한국경제는 세계화와 무역자유화의 최대 수혜국 중 하나이다.**”

전후 한국의 놀라운 경제성과를 가능케 한 또 다른 견인차로 규모의 경제 혜택을 들 수 있다. 당시 “**재벌**”이라 불리는 **거대 산업기업군이 출현하였고, 이는 평균원가절감 및 경쟁우위를 통한 산업효율 극대화를 가능케 하였다.** 거대 재벌에 힘입어 한국 산업기업들은 국경을 넘어 세계 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한국은 1970년대 이후 높은 수출 신장을 누려왔다.

한국 경제는 세계화 및 무역자유화의 최대 수혜국 중 하나이다. 한국의 경제성장모델은 수출에 기반한 것이다. 과거 수년간, 한국경제의 수출 의존도는 더욱 증가하였다. 한국 GDP의 절반가량이 수출에 의존한다. 그 결과, 한국경제는 세계경제, 특히,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과 떼어낼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 그러나, 최근 십 년간, 한국경제는 신흥경제국 및 경제개발국과 더욱 밀접한 관계를 구축해 오고 있다. 한국과 중국과의 경제관계는 최근 한국의 경제성과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되었다.

한국은 전자, 자동차, 조선 등 산업 전반에 걸쳐 세계적인 혁신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다. 반도체와 LCD의 경우, 한국 기업들의 세계 시장점유율은 50%를 넘는다. 한국의 자동차제조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점유율이 10%를 육박한다. 이들 기업 중 삼성, LG, 현대, 롯데, 포스코, 한진, 한화, 신한, 한국, 기아 등 다수가 뉴욕/뉴저지 메트로지역, 남부캘리포니아, LA 카운티에서 확고한 사업 입지를 구축하였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비즈니스 관계” 참조).

한국의 실질 GDP 성장률



출처: 세계은행

한국경제는 경제세계화의 직접적인 결과로 미국경제와 매우 긴밀한 관계를 구축해왔다. 과거 수십 년간, 미국 기업들은 전후 한국의 놀라운 경제성장에 동참하고자 한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왔다. 최근까지 미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파트너였고, 미국소비자들은 한국의 수출중심 경제성장 가속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한국 경제는 캘리포니아 및 LA 카운티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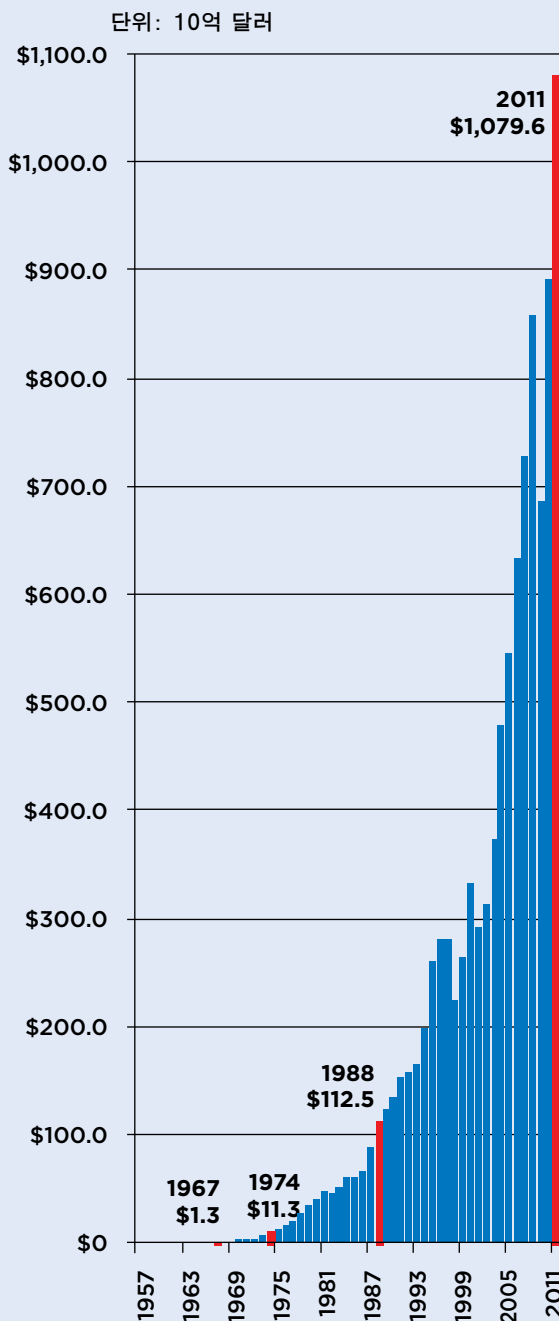
1규모의 경제: 기업이 확대를 통해 얻는 가격우위를 가리킨다. 산출규모 증가에 따라 단위당 생산자의 평균원가 감소를 가져오는 요인들이 있다. “규모의 경제”는 장기적 개념으로 설비 규모 및 기타 투입의 사용 정도가 증가할 때 획득할 수 있는 단위원가 감소를 칭한다.



한국의 역동성-최근 성공 사례

- 2011년 한국 GDP는 1.46조 달러 (PPP)로 세계 12위였다.
- 한국의 총 무역금액은 1967년에 10억 달러, 1974년에 100억 달러, 1988년에 1000억 달러를 초과 하였다 (우측 차트 참조). 무역은 폭발적 성장을 지속하여 2011년 한국의 무역금액은 사상 처음으로 1조 달러를 초과하였다. 지금껏 한국 외 단 8개 국가만이 이 같은 성과를 보였으며, 지난해에는 단 6개 국가만이 이 같은 성과를 기록하였다.
- 부산항은 세계 5대 무역항으로 2011년 1,620만 TEU를 취급했으며 세계 5대 글로벌 항구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 한국은 딜로이트 2010 글로벌 제조경쟁지수 (Deloitte's 2010 Global Manufacturing Competitiveness Index)에서 3위를 기록하였다.
- 한국은 세계은행의 기업하기 좋은 나라 순위 (World Bank's Doing Business)에서 183개국 가운데 8위를 차지하였다. 또한 한국은 계약이행, 국가간 무역, 크레디트에서 각각 2위, 4위, 8위를 차지하였다.
- 2011년 61개 한국기업들이 포브스 글로벌 2000 선두 기업 (Forbes Global 2000 Leading Companies)리스트에, 8개 기업이 2011년 포브스 팸 50 (Forbes Fab 50)리스트에 포함되었다.
- 인베스트코리아 (Invest Korea)에 따르면, 한국은 글로벌 이노베이션 (BCG), 브로드밴드 접근성, 디스플레이, 반도체, 조선, 특허생산성 (국제경영개발원, IMD), 전자정부개발지수 (유엔경제사회국, UN DESA), 강판제조 (포스코), 안정적이고 저렴한 전력공급 (지식경제부, MKE)에서 1위를 차지하였다.
- 인베스트코리아 (Invest Korea)에 따르면, 한국은 정보기술숙련도 (IMD), 과학인프라 (IMD), 석유화학 생산에서 3위를 차지하였다.
- 인베스트코리아 (Invest Korea)에 따르면, 한국은 자동차제조, R&D지출(IMD)에서 5위를 차지하였다.

한국의 총 무역금액



출처: 한국무역협회



한국의 글로벌 500대 기업

기업명	매출 (100만 달러)
삼성전자	\$133,781
현대자동차	97,408
SK그룹	78,435
포스코	52,462
LG전자	48,236
현대중공업	38,996
GS그룹	36,570
한국전력	34,110
한화	30,041
삼성생명보험	28,773
LG디스플레이	22,072
두산	19,937
삼성 C&T	19,765
한국가스공사	19,563

출처: Forbes Global 500 List, 2011

LA 카운티 프로필

미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LA 카운티는 캘리포니아 인구의 약 27%를 차지한다. LA 카운티가 독립된 한 개의 주라면, 미국에서 8번째로 큰 주가 될 것이다. LA 카운티는 세계 최대 경제주체 중 하나로서 2011년 연간 경제산출량이 5440억 달러를 초과하였다. 실제로 2010년 LA 카운티의 경제규모(공식환율에 기초한 명목GDP기준)는 세계 19위를 차지하였다. 이는 스위스, 폴란드, 벨기에, 스웨덴, 사우디, 아라비아, 대만, 노르웨이보다 높은 수치이다.

LA경제는 고등교육, 독창성 및 디자인, 기술혁신 등 많은 핵심 역량을 바탕으로 다방면의 다양한 시장으로 진화해 왔다. LA

LA카운티가 미국 내 1위인 분야

• 인구	980만 명
• 아시아계 인구	140만 명 이상
• 노동력	490만 명 이상
• 전문/과학/기술 서비스 종사자	약 254,000명
• 아시아계 소유 기업	약 4만개
• 두 개의 최대 무역항 취급량	14백만 TEU

카운티는 흔히 세계의 “독창성의 수도”라고 일컬어진다. 이 곳은 세계를 선도하는 다수의 영화 스튜디오, TV 네트워크, 비디오게임 개발자 및 판매자, 음악산업, 독창적 아티스트, 프로듀서, 배급사들이 밀집되어 있다. 실로, LA 카운티는 미국의 창의적인 기관들과 인재들의 메카이다.

LA 기원: LA지역에서 유래한 것

- 인터넷
- 우주왕복선
- Douglas DC-3 (세계 최초 상용화 여객기)
- 디즈니 캐릭터: 미키마우스, 도널드 덕
- 바비 인형
- 현대적 티셔츠 (1932년 USC)
- 포춘 쿠키
- 화성탐사로버 “스피리트 (Spirit)”과 “오퍼튜니티 (Opportunity)”
- 신형 VW 비틀
- 이포젠 (Epogen)/ 뉴포젠 (Neuprogen)- 바이오테크 최대 흥행 신약
- 다중채널 리코딩 프로세스
- THX 사운드 시스템 (극장용)
- 현대적 테마공원 (디즈니랜드)
- 유명인 PR
- 훌라후프
- 에어론(Aeron) 체어

LA 카운티는 미국 선두 제조부문 (고용 및 설비 기준)과 미국 최대 국제무역 부문 (양자 무역 및 고용 기준)을 보유한다. 글로벌화의 직접적 결과로 LA 카운티는 미국 국제무역의 수도가 되었다. LA 카운티의 항만과 공항은 남부캘리포니아 국제무역사회의 생명선이다. 미국의 두 개의 최대 항구 (LA 항과 롱비치항이 각각 1위, 2위)는 취급 화물용적과 컨테이너 측면에서 미국의 여타 항만과 견줄 수 없는 최대 복합항만 시설을 자랑한다. 이 복합항만시설은 총 처리 컨테이너기준, 세계 8위를 차지한다. LA국제공항 (LAX)은 세계 최대 출발 및 도착공항 (직항기준)으로서 승객기준 세계 6위 공항이다.



교육과 관련하여, LA 카운티는 캘리포니아대학 (University of California) 캠퍼스, 5개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CSU) 캠퍼스, Caltech, 남부캘리포니아대학 (USC) 등 우수한 사립대학들이 위치해 있다. Caltech, 캘리포니아대학 LA (UCLA), USC는 세계적인 연구 중심 대학으로 LA 카운티를 혁신기술 및 바이오메디컬 리서치 분야의 리더로 성장하게 하였다. 이들 세계적인 대학들은 창의적인 인재를 지속적으로 배출함으로써 LA 카운티의 역동적 노동력의 원천이 되고 있다. 또한 LA 카운티는 환경혁신 선진화에 앞장서고 있다. LA 카운티는 대체에너지 교통수단, 에너지효율,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이니셔티브의 선두시장으로서 “녹색”성장을 위한 풍부한 기회들을 제공한다. 또한, 캘리포니아는 미국의 녹색기술 벤처캐피탈을 위한 자금조달을 선도하며, 이 같은 추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LA 카운티는 최고의 녹색항만시설을 제공함으로써 타항구들의 표준이 되고 있다. 또한, LA 카운티는 “인공지능고속도로” 기술을 선도한다.

LA 카운티 성장전망 (2025년 기준)

- ▶ 인구 1,150만 명
- ▶ 비농업부문 고용 440만 명
- ▶ 1인당소득 75,000 달러
- ▶ 총생산 약 1조 달러
- ▶ 북미지역/전세계 녹색기술의 중심지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됨.

LA 카운티는 아시아로 통하는 관문이며, 미국 내 카운티 중 최대 아시아계 미국인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다. LA 카운티보다 아시아와의 문화, 경제, 비즈니스 관계가 긴밀하고 강력하게 구축된 카운티는 없다. 이제 LA는 점차 “한태평양의 수도”로 인식되고 있다. LA보다 한국과 더욱 강력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미국 지역을 찾아보기 어렵다.

예를들어, 한국은 LA세관지역(LACD)의 제3대 교역파트너이며, LA 카운티로 유입되는 최대 해외직접투자국이다. 또한, 미국 내 그 어느 카운티보다 많은 재미한인이 거주하고 있다 (약 225,000명).



회사	매출 (백만 달러)
월트디즈니	\$38,063
디렉TV (DirecTV)	24,102
옥시덴탈석유화학 (Occidental Petroleum)	19,857
헬스넷 (Health Net)	13,620
에디슨 인터내셔널 (Edison International)	12,409
제이콥스 엔지니어링그룹 (Jacobs Engineering Group)	9,916
도올푸드 (Dole Foods)	6,894
에이컴 (AECOM)	6,559
에버리데니슨 (Avery Dennison)	6,513
릴라이언스 스틸 알루미늄 (Reliance Steel & Aluminum)	6,313
마텔 (Mattel)	5,856
CB 리처드엘리스 그룹 (CB Richard Ellis Group)	5,119
라이브네이션 엔터테인먼트 (Live Nation Entertainment)	

출처: Forbes Global 500 List, 2011



LA 카운티- 주요 성과

- LA 카운티 경제규모는 세계 19위로서 시장환율기준 GDP가 5,440억 달러에 달한다.
- 13개 Fortune 500대 기업들이 LA 카운티에 본사를 두고 있다.
- LA 카운티는 미국의 가장 다양한 경제 기지로서 세계 선두 소비자시장 중 하나이며 미국 최대인 490만명 이상의 숙련된 노동력을 배출한다.
- LA세관지역의 양방향 무역금액은 2011년 3,870억 달러에 달하였다.
- LAX는 세계에서 가장 분주한 출발 & 도착공항이다.
- LA항과 롱비치항은 2011년 총 1,400만 TEU를 취급, 세계 8위를 차지하였고, 3,683억 달러, 1억9,950만 톤의 상품을 취급하였다.
- 미국의 창의성과 엔터테인먼트의 수도로서, 워너브라더스, 소니픽처스, 유니버설스튜디오, 파라마운트픽처스, 폭스, 월트디즈니 등 주요 엔터테인먼트 스튜디오가 위치한다. 이러한 역동적 산업부문이 298,000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한다.
- 미국 제조업의 수도로서 13,400개 이상의 제조기업이 있다. 약 374,000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폭넓은 유통 및 파트너십 기회를 제공한다.
- 미국 의류산업의 수도- LA 카운티 패션지구의 면적은 90 스퀘어블럭에 달하고, 서부해안 의류산업의 허브로서 87,000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한다.
- 미국 자동차 디자인의 수도로서 LA 카운티 지역의 창의적인 연구 및 노동 자원을 기반으로 선두적인 전기자동차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 LA지역은 23개 이상의 자동차 디자인 스튜디오가 위치해 있다.
- LA는 우수한 사립대학들이 위치하고 있다. Caltech, USC, UCLA와 118개 칼리지 및 대학들은 지역 사회 및 경제 부흥을 가능하게 한다. LA 카운티는 이 같이 강력한 교육부문을 바탕으로, 창의산업, 보건서비스, 리서치, 우주항공 및 분석 센터에서 선두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대한민국





LA 카운티





대한민국 주요 도시 및 도:

(추정인구 기준, 최소 700,000명 이상)

대한민국	약 4,880만명
서울특별시 (수도)	1,040만 명
부산(광역시)	340만 명
인천(광역시)	260만 명
대구(광역시)	240만 명
대전(광역시)	150만 명
광주(광역시)	150만 명
울산(광역시)	110만 명
수원(경기도)	110만 명
창원(경상남도)	110만 명
성남(경기도)	950,000
고양(경기도)	900,000
용인(경기도)	850,000
부천(경기도)	850,000
안산(경기도)	725,000

LA 카운티 주요 도시:

(추정인구 기준, 최소 100,000명 이상)

LA 카운티	980만 명
LA시	410만 명
롱비치 (Long Beach)	490,000
글렌데일 (Glendale)	210,000
산타 클라리타 (Santa Clarita)	180,000
포모나 (Pomona)	160,000
패서디나 (Pasadena)	150,000
토런스 (Torrance)	150,000
팜데일 (Palmdale)	150,000
랭카스터 (Lancaster)	145,000
웨스트 코비나 (West Covina)	115,000
버뱅크 (Burbank)	110,000
노워크 (Norwalk)	110,000
카슨 (Carson)	100,000
사우스 게이트 (South Gate)	100,000



1장 • 역사 관계

한국과 미국

1880년대 이전 한국과 미국은 실제로 어떠한 문화 또는 정치적 교류도 없었다. 1882년 한국과 미국은 조미수호통상조약 (Treaty of Peace, Amity, Commerce and Navigation) 을 체결하여 상호 친선 및 지원을 약속하였고, 한국 내 미국 시민들의 치외법권을 명시하였다. 이후 1880년대 미국개신교 선교사들이 한국에 입국하면서 문화교류가 확대되었다. 3개 선교단의 노력은 큰 성과를 거두어, 곧 한국 내 개신교 신자 수가 가톨릭 신자 수를 앞지르게 되었고, 미 선교사들의 영향으로 미국식 교육제도가 전국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미 선교단은 한국 기독교 개신자들을 활용하여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에 파견할 노동자들을 모집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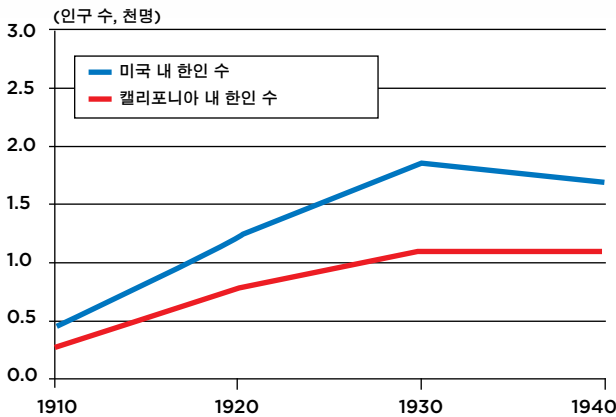
첫 번째 미국 이민자들은 1903년 갤릭호 (SS Gaelic)를 타고 미국에 입국하였다. 미국 센서스 자료에 따르면, 1910년 미국 거주 한국인은 462명이었으며 이 중 304명은 캘리포니아에 정착하였다. 이 보다 많은 수의 한국인들이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에서 계약 노동자가 되었다. 그러나, 출신국적법 (National Origins Act)과 아시아인 배제법 (Asian Exclusion Act)을 포함한 1924년 존슨-리드 이민법 (Johnson-Reed Immigration Act) 통과로, 당시 미국 거주인구 수를 기초로 이민자 수가 제한되었고, 중국적으로 모든 아시아국가로부터의 이민이 중단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1920년대부터 1930년대에 이르기까지, 미국거주 한국인 수는 1,200명에서 1,900명 수준에 이르렀다. 이 중 대다수가 캘리포니아에 정착하였다. 이미 미국에 거주하고 있던 많은 한국인들은 미국 정부가 한국인들의 일본식민통치 해방 노력을 지원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2차 세계대전 종식 이후에야 일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한국전쟁은 미국의 관심을 촉발시켰다. 1950년대, 미국은 한국군 및 UN군과 연합하여 한반도 북쪽의 공산주의 운동으로부터 한국을 수호하고자 지원하였다. 한국전쟁은 공동의 가치가 깊게 뿌리내린 한미동맹 구축으로 이어졌다. 한편, 미국 정부는 1952년 매카란-월터 (McCarran-Walter) 미국 이민법을 통과시켜, 인종차별을 철폐하고 전세계 모든 국적과 지역에 대한 쿼터제도를 시행하였다. 본 법은 한국을 비롯한 비유럽 국가들로부터의 이민을 촉진시켰다. 1965년 하트-셀러 (Hart-Celler) 이민국적법 제정에 따라 이민쿼터제도가 철폐되고, 대신 숙련된 기술 이민자,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와 가족 관계에 있는 이들에게 이민 우선권을 부여하는 특혜제도가 도입되었다. 하트-셀러법 이후, 한국인 수는 미국 내 인종집단 중 가장 빠르게 성장하였다. 1990년대 한국인 수는 1백만 명을 넘어 전 인종집단 중 7위를 기록하였다.

2000년 재미한인 수는 110만 명에 이르렀다. 과거 10년간 미국으로 유입된 한국계 브라질 이민자들과 한국계 멕시코 이민자들 또한 증가하였다. 2010년 재미한인 수는 35% 증가하여 145만 명을 기록하였다. Annandale (버지니아주), Bergen County (뉴저지주), 시카고 (일리노이주), 달라스 (텍사스주), Aurora (콜로라도주), LA (캘리포니아주), 뉴욕 (뉴욕주), 오클랜드 (캘리포니아주) 등 8개 대도시 시 경계 내에 코리아타운이 형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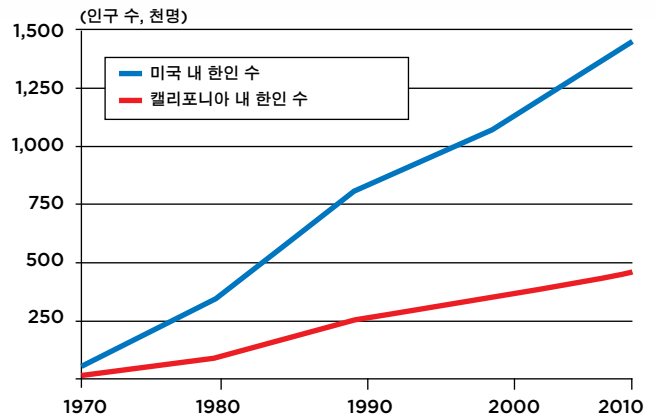


미국 및 캘리포니아 거주 한인 수
1910년-1940년



출처: American Community Survey (1950년 및 1960년 데이터 부재)

미국 및 캘리포니아 거주 한인 수
1970년-2010년



출처: American Community Survey (1950년 및 1960년 데이터 부재)

한국과 캘리포니아

2010년, 452,000명의 재미한인들이 캘리포니아에 거주하였으며, 이는 미국 내 총 재미한인 수의 약 30%에 해당한다. 캘리포니아 거주 재미한인들은 2000년 346,000명을 기록한 이래 증가해왔다. 1990년 미국 센서스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내 재미 한인 수는 1990년에 260,000명을 기록한 이래, 과거 20년 동안 74% 증가하였다.



2010년 캘리포니아 거주 재미한인 인구 집중도

출처: 2010 American Community Survey, 1년 추정치

LA 카운티

1930년대 재미한인들은 현재 LA 사우스 센트럴이라고 알려진 곳에 커뮤니티를 형성하였다. 이후부터 1965년 이민법 제정 시까지 이 지역으로의 한인 이주는 주춤하였다. 이민법 제정 후 LA는 대다수 한인 이주민의 주요 이민종착지가 되었다. 현재 LA 다운타운에 코리아타운이 위치한다. 코리아타운은 1990

년대 급속히 확대되었고, 현재는 수 많은 한국계 은행, 상점, 음식점, 기업들을 찾아볼 수 있다. 오늘 날, 코리아타운은 인종 구성이 보다 다양해졌으나, 여전히 한국인이 이 지역 전체 인구의 약 25%를 차지한다. LA 카운티 내 많은 재미한인이 거주하는 이 외 지역으로 토랜스 (Torrance), 다이아몬드 바 (Diamond Bar), 세리토스 (Cerritos), 글렌데일 (Glendale)이 있다. 226,000명에 달하는 재미한인들이 현재 LA 카운티 경계 내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는 캘리포니아주 재미한인 인구의 약 절반에 해당한다.

LA 카운티 북부

오글랜드 “코리아타운 노스게이트 (Koreatown Northgate)”의 발달은 한국인 이주로 인한 커뮤니티 변천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 지역은 재미한인들이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초반에 걸쳐 비즈니스를 구축하기 시작할 때까지 노숙자들과 범죄의 온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미한인들은 근접 지역 내에서 소수민족에 불과하였다. 2010년, 18,500명, 34,300명, 12,300명의 재미한인들이 각각 알라메다 카운티, 산타클라라 카운티와 샌프란시스코 카운티에 거주하였다.

LA 카운티 남부

LA 카운티 북부 지역에 비해 더 많은 재미한인들이 오렌지카운티에 거주하고 있다. 2010년 센서스에 따르면, 오렌지카운티의 재미한인 수는 86,700명이었다. LA 카운티를 떠난 많은 재미한인들이 1990년대 오렌지카운티로 이주하였다. 샌디에고카운티의 재미한인들은 총 17,800명이었다. 1950년대 이후 많은 한인 이민자들이 샌디에고카운티 내 군사기지 인근에 정착하였다.



2장 • 비경제적 관계

한미간 교육 관계

“(양 지역간) 학술적 교류 증진은 미국의 고등교육 및 리서치 활동을 강화하고, 질병퇴치, 환경보호, 테러와의 전쟁 등 공동의 국제문제에 관한 국가간 협력을 조성하기 위한 최선의 투자이다.”

-Allan E. Goodman, 국제교육협회
(Institute of International Education)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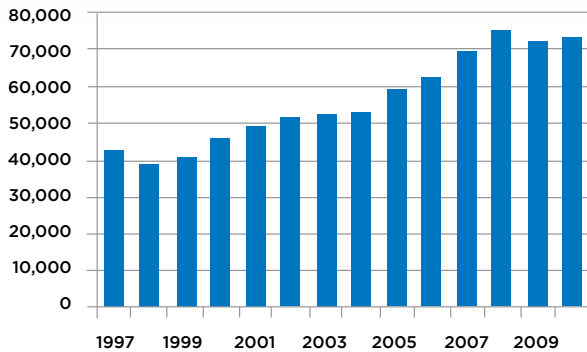
“나는 여전히 많은 해외 리더들로부터 천연자원, 기술, 자본, 경험도 없는 국가가 어떻게 단 한 세대 만에 그토록 많은 것들을 이루었는가라는 질문을 받는다. 이에 대한 나의 대답은 매우 간단하다. 교육의 힘이 그 답이다.”

— 이명박, 대한민국 대통령

한국은 유구한 역사에 걸쳐 항상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이 같은 전략은 한국의 경제발전에 중대한 역할을 해왔다. 고등교육 학위를 보유한 25세 이상 한국인 수는 1960년 2%에서 2010년 35.8%로 증가하였다. 그 결과, 한국은 경제 번영을 이룰 수 있었다. 세계화의 물결이 일자, 많은 한국학생들은 해외 유학의 기회를 선택하였다. 중국인 및 인도인 유학생들과 더불어 한국인 유학생들도 미국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이를 가능케 했던 것은 무엇보다도 경제성장이 한국 가정에 가져다 준 기회와 수년간 수립된 미국 무역 및 투자 관계였다. 실제로 1980년대와 1990년대 무역과 투자가 급증함에 따라 많은 한국인 유학생들이 미국 유학길에 올랐다. 이 수치는 과거 10년간 꾸준히 증가하여, 2010-2011 학년도에 73,351명의 한국 유학생들이 미국 내 대학에 등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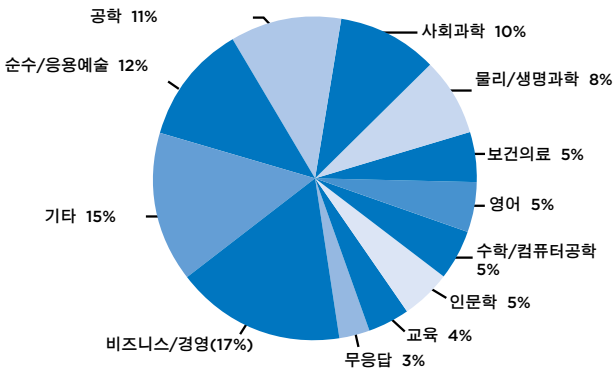


미국 내 한국인 유학생 수



출처: 국제교육협회, Open Doors

학문 분야별 미국 내 한국인 유학생 수



출처: 국제교육협회, Open Doors

과거 수년간, 이 같은 추세는 미국 경제와 한미관계에 커다란 도움을 주었다. 상무부는 외국인 학생들이 한 해 미국 내 고등 교육비용으로 약 200억 달러를 지출한다고 추산한다. 현재 경제에 영향을 주는 유학생 지출에는 학비, 수수료, 생활비 등이 있다. 이들 유학생들이 졸업 후 미국에서 고용되어 거주한다면 향후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다.

지역의 교육분야 관계

전세계적으로 LA 카운티만큼 풍부한 학문적 토양을 제공하는 곳은 드물 것이다. 이 지역은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 대학인 Caltech, USC, UCLA와 그 외 수십 개의 우수한 기관들이 있다. 매년 이들 학교는 수만 명의 졸업생을 배출한다. LA 카운티는 교육 커리큘럼, 유능한 교수진, 다양한 대학들을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2만 명 이상의) 해외 학생들에게 제1의 고등교육 유학 지역이 되고 있다. 실제로 현재 2,300명의 한국인 유학생들이 LA 카운티 소재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다.

남부캘리포니아대학 (USC)
진정한 글로벌 사립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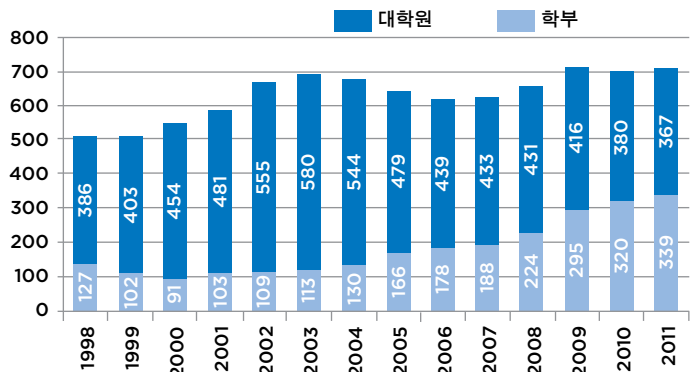
미국 내 전체 대학 가운데, 남부캘리포니아대학 (USC)은 과거 10년 연속 가장 많은 수의 유학생들이 등록하였다. 2010-2011 학년도에 총 33,000명 이상의 USC 재학생 중 유학생 수가 8,615명에 달하였다. 2011-2012학년도에 USC에 등록한 한국인 유학생 수는 706명이었다. USC는 미국 내 대학 중 한국인 등록 학생 수가 가장 높은 대학 중 하나이다.

USC 등록 한국인 유학생 수: 2011-2012학년도

학부생	339
대학원생	367
USC 등록 총 한국인 유학생 수	706

현재는 1990년대 후반에 비해 더 많은 한국인 유학생들이 USC에 등록하고 있다. 학부학생들의 수 증가가 이 같은 증가 추세를 견인하였다. 1994년 이후 USC는 미국 내 최초의 글로벌대학이 되기 위해 동양으로의 확대를 추구해왔다. USC는 전직 총장인 Steven B. Sample과 현직 총장이자 전직 학장인 C.L. Max Nikias의 지도력 하에 미국 내 연구중심 대학 중 가장 빠른 속도로 미국 내 대학 순위를 최대 상승시켰다. 또한 USC는 환태평양에서 LA의 지리적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1990년대, 전직 총장인 Sample은 환태평양의 등장을 강조하고, 환태평양지역이 21세기를 주도하는 경제지역이 될 수 있는 방안과 남부캘리포니아가 이 지역으로 향하는 미국 관문이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강력히 역설하였다. Sample 총장은 LA를 의미하는 “환태평양의 수도”라는 신조어를 탄생시켰다.

USC 등록 한국인 유학생들



출처: USC Office of International Students



남부캘리포니아대학교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USC)- 진정한 글로벌 사립대학교

환태평양 대학 교류협의회 (Association of Pacific Rim Universities, APRU)

1997년 환태평양 대학 교류협의회 (APRU)가 수립됨에 따라 환태평양 대학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했던 Sample총장의 비전이 실현되었다. APRU는 현재 환태평양지역 16개 국가의 42개 대학교로 구성된 컨소시엄이다. 본 협회에 소속된 LA 카운티 및 한국대학교들은 아래와 같다

LA 카운티 회원 대학

남부캘리포니아대학 (USC)
캘리포니아대학교 LA캠퍼스 (UCLA)
캘리포니아공과대학 (Caltech)

한국 회원대학

고려대학교
서울대학교

동아시아학 연구소 (East Asian Studies Center, EASC)

USC 동아시아학 연구소 (EASC)는 1975년 인문사회과학대 내에 설립되었다. EASC는 동아시아학 연구 분야에서 선두적인 미국 연구소 중 하나로 인정 받아 왔다. EASC는 미국교육부가 지정한 국립 동아시아 연구소 (National Research Center for East Asian Studies) 소속이다.

EASC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다.

- 동아시아 시각문화 방문자 프로그램 (East Asian Visual Cultures Visitors Program)
- 동아시아 탐구: 중국, 일본, 한국 (Explore East Asia: China, Japan and Korea)
- 동아시아 교수 프로그램 (Teaching East Asia Program, TEAP)
- 해외 리서치연구 (Research Study Abroad)
- 해외 지역연구 (Area Studies Abroad)

또한 EASC는 미국교육부 Title VI에 의거하여 재정지원을 받는 USC/UCLA 공동 동아시아 연구소의 본부이다. (Title VI는 고등교육법에 의거하여 재정지원을 받는다. 또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유치원에서 12학년까지의 학생들을 위한 국제 교수법 및 커리큘럼 강화를 위해 노력한다.)

동아시아 언어 및 문화학과 (East Asian Languages and Cultures Department, EALC)

또한 USC 인문사회과학대에는 동아시아 언어 및 문화학과 (East Asian Languages and Cultures Department, EALC)가 있다. 학생들은 다양한 동아시아 관련 일반 과정 외에도 중국어, 일어, 한국어와 이들 문화를 선택하여 학습할 수 있다. 현재 USC는 8개 레벨로 등급이 나뉜 한국어과정을 제공한다.

한국학연구소 (Korean Studies Institute)

한국학연구소 (Korean Studies Institute)는 한국의 역사, 정치, 산업, 문화, 언어, 사회에 관한 과정을 제공한다. 전임 교수진이 6명이고, 매년 약 20개 과정이 개설된다. 또한 한국학을 부전공으로 선택할 수 있다.

국제전략연구소(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CSIS)와 USC 한국통일프로젝트 (Korea Unification Project)

CSIS와 USC가 추진하는 연구 프로젝트는 남북한 통일 관련 이론적 이슈들에 대해 준비하고 연구한다.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이 함께 각종 가능한 시나리오를 논의한다. Victor Cha, CSIS 선임 자문과 David Kang, USC 국제관계학 교수는 최근 “한국통일계획수립 관련 도전과제 (Challenges for Korean Unification Planning)”란 제목의 프로젝트 2단계 보고서에서 통일이 제도, 거버넌스, 보건, 경제, 국민에 미칠 영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기타 한국관련 USC 조직들

- 서울 USC 세계화 사무소 (USC Office of Globalization in Seoul)
- 한국경영학학생기구 (Korean Business Students Organization)
- 재미한인 약학학생협회 (Korean American Pharmacy Student Association)
- 한국치과협회 (Korean Dental Association)
- 한국기독교학생회 (Korean InterVarsity Christian Fellowship)
- 한국학생협회 (Korean Student Association)
- 한국전통타악 - 하늘소리 (Korean Traditional Percussion - Haneulsori)
- 한미대학선교회 (Korean-American Campus Mission)
- 차세대 재미한인 과학기술자협회 (Korean-American Scientists and Engineers Association-- Young Generation)
- 한국대학원생협회 (Korean Graduate Student Association)



USC의 한국 대학 학점취득제도 (USC KOREA STUDY ABROAD PROGRAMS):: 학부프로그램

- 부산 국제학부 (동아대학교)
- 서울 국제학부 (연세대학교)

USC는 다양한 한국관련 과정을 제공한다. 이 가운데에는 ‘한국예술’, ‘현대한국영화문학’, ‘한국문학과 문화’, ‘한국 시각 및 문화연구 주제’, ‘영어로 번역된 한국문학’, 다양한 ‘한국어’ 과정이 있다.

동창회

USC 한인동창회는 한국에 소재한다. 많은 졸업생들이 한국에 거주하며, 기업과 정부기관의 주요 직위에서 근무한다. USC 한국동창은 전직 총리를 비롯, 많은 인재를 배출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USC가 배출한 유명 인사의 예는 아래와 같다.

- 강영훈- 전직 한국총리 (1988-1990) (한국인)
-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 한진그룹 회장, SkyTeam 얼라이언스 초대회원(한국인)
- 황혜경, Pinkberry Yogurt 공동창립자 (재미한인)
- 새미 리 (Samuel “Sammy” Lee)박사, 올림픽금메달을 수상한 최초 아시아계 미국인 다이빙 선수 (재미한인)

캘리포니아대학교 LA 캠퍼스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UCLA) 진정한 글로벌 공립 대학교

UCLA는 LA시에 위치한 또 하나의 글로벌 학문기관이다. 2010년, UCLA는 총 6,249명의 유학생이 2010-2011학년도에 등록하여 미국 내 유학생 등록 순위에서 6위를 차지하였다. 2011-2012학년도에 694명의 한국인 유학생들이 UCLA에 등록하였다. UCLA는 등록된 한국인 유학생 수가 가장 높은 미국 대학 중 하나이다. 최신 통계는 아래와 같다.

UCLA 등록 한국인 유학생 수: 2011-2012학년도

학부생	500
대학원생	194
UCLA에 등록한 총 한국인 유학생 수	694
UCLA에 등록한 총 재미한인 학생 수	1,790

USC와 마찬가지로, UCLA는 지금까지 한국에 대한 깊은 관심과 의지를 보여왔으며, UCLA 교내 프로그램, 센터, 기관들이 이를 증명한다.

아시아 언어문화학과 (Department of Asian Languages & Cultures, ALC)

UCLA에는 한국을 비롯, 아시아 문명과 문화에 대해 연구하는 아시아 언어문화학과 (Department of Asian Languages & Cultures, ALC)가 있다. 본 학과는 언어, 종교, 고고학, 사상 및 기타 분야에 대한 강좌를 개설한다.

아시아계 미국인학 연구소 (Asian American Studies Center)

UCLA 아시아계 미국인학 연구소 (Asian American Studies Center)는 1969년에 설립되었다. 창립위원회의 목표는 “오랫동안 간과되어 온 우리사회의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역사, 풍부한 문화유산, 현재 위치를 이해하는 데에 기여함으로써, 대학 전체의 경험을 풍부하게 한다”는 것이었다. 과거 45년간, 본 연구소가 거둔 성과는 아래와 같다.

- 미국 내 최대 규모인 38명의 아시아계 미국인 연구 교수진을 채용하였다.
- 아시아계 미국인 학문 분야에 대한 학사, 석사 및 부전공 학위 수여 등 미국 내 최대 아시아계 미국인 학과 (Department of Asian American Studies)를 보유한다.
- 1971년 이후 본 연구소는 아시아계 미국인 연구에 관한 주요 저널과 200권 이상의 서적을 발행하였다. 2003년 본 연구소는 두 번째 국내 저널인 AAPI를 출범시켰다.
- 넥서스 (Nexus): 아시아계 미국인과 태평양 도서민 관련 정책, 관행 및 커뮤니티
- 아시아계 미국인과 관련해 미국 내 가장 다양한 라이브러리 및 아카이브를 개발하였다.
- 캘리포니아, 미국 및 전 세계적으로 수백 개의 기관 및 리더들과 강력한 실무 관계를 다져왔다.

UCLA는 아시아계 미국인학 관련하여 미국 내 최고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국제문제연구소 (International Institute)

UCLA 국제연구소 (UCLA International Institute)는 전세계 지역 및 글로벌 이슈와 관련하여 25개 전문분야간 협력센터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소는 UCLA의 국제연구 및 강화를 위한 포럼을 제공한다. 또한 UCLA와 전세계 대학교들 간의 교환학생 프로그램과 협동연구를 지원한다. 본 연구소는



캘리포니아대학교 LA 캠퍼스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UCLA) 진정한 글로벌 공립 대학교

해외 저명인사, 정치인, 학자들을 초청한 행사와 연속강의들을 제공한다. 또한, 원격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연구프로젝트 자금을 지원하고, 기업과 정부를 위한 훈련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글로벌 이슈에 관한 미디어 자문을 제공한다. 또한, 본 연구소는 UCLA가 세계와 연결되고, 졸업생들이 본 연구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커다란 역할을 수행한다.

본 연구소는 여러 해외 기업 및 재단 뿐 아니라, 40여 개 국가 대학교들과의 관계를 증진함으로써 UCLA와 세계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한다.

현재 UCLA는 한국과 18개 양해각서 (MOU)를 체결하였다. MOU는 협력연구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계약 문서이다.

아시아연구소 (Asia Institute)

아시아연구소 (Asia Institute)는 UCLA의 아시아 연구를 촉진하고, 동아시아/동남아시아/남아시아 관련 다양한 연구지원, 공공 프로그램, 커뮤니티 아웃리치 등을 통해 아시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킨다. 본 연구소는 아시아, 유럽, 북미 기관들과의 협력확대, 국제 교환연구 및 학부/Faculty 펠로우십 프로그램을 통해 아시아연구가 내용, 소통, 조직 측면에서 보다 다양한 전문분야간 연구, 진정으로 국제적인 연구가 되도록 한다.

아시아연구소 프로그램에는 K-12 교사 워크샵, 중앙아시아 프로그램, 많은 아시아대학들과의 협력연구프로그램이 있다. 아시아연구소는 동아시아연구, 남아시아연구, 동남아시아연구의 3개 학제간 프로그램이 있다. 동아시아 연구프로그램은 중국, 일본, 한국의 세 개 전문 분야로 나뉜 학제간 연구 프로그램이다. 전임 교수가 23명이며, 한국에 관한 연구 및 수업 관련 강의가 있다.

한국학연구소 (Center for Korean Studies)

UCLA 한국학연구소 (Center for Korean Studies)는 한국의 다양한 문화에 대한 교육을 위해 1985년에 설립되었다. 매년 2,500명 이상의 학생들이 한국관련 과정을 선택한다. UCLA는 미국 본토에서 한국어 및 문화 학사 학위를 수여하는 최초의 대학이었다.

교환프로그램

한국학연구소를 통해, UCLA는 아래 캠퍼스와 다양한 교환프로그램을 제공한다.

- 서울대학교
- 고려대학교
- 연세대학교 (해외 학점취득 제도 포함)
- 한국외국어대학교

기타 한국관련 UCLA 기관

재미한인학생회

(Korean American Student Association, KASA)

1972년 설립된 UCLA 재미한인학생회 (Korean American Student Association, KASA)는 현재 500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KASA는 남부캘리포니아 한국인학생회협회 (Southern California Korean College Student Association)에 소속된 캠퍼스 조직이다.

한국기독교 온라인 아카이브 (Online Archive Korean Christianity, OAKC)

목상득 UCLA교수가 개설한 온라인 아카이브는 한국기독교 관련 저널기사, 온라인서적, 서평 등을 제공한다.

한국 내 UCLA 유학기회

한국에서 제공되는 캘리포니아 대학교 프로그램

- 연세대학교 인터내셔널 썸머스쿨
- 연세대학교
- 서울대학교

헨콕대학교-한서대학교

롱비치에 위치한 헨콕대학교 (Hancock University)는 자매학교인 한서대학교와 함께 한국인과 비영어권자를 위한 ESL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헨콕대학교 재학생은 현재 약 80명이며 약 25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3/6/12개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한 본 대학은 기숙사를 구비하고 있다. 주요 학술분야로 항공, 아트 디자인, 비즈니스, 어학이 있다.

한국의 한서대학교는 1991년 개교한 항공학, 디자인 아트 전문 대학교이다. 현재 50명의 학부전공생과 35명의 대학원 및 박사과정 학생들이 있다. 캠퍼스는 충남 서산과 태안에 위치한다.



한국과 교육 관계를 맺고 있는 기타 현지 대학교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롱비치 캠퍼스 (California State University, Long Beach)

- 총 한국인 유학생 수: 234
- 총 재미동포 학생 수: 431
- 아시아 및 아시아계 미국인학 (Asian and Asian American Studies)
- 한국어학 (Korean Language Studies)
- CSU 인터내셔널 프로그램 - 연세대학교 해외대학 학점취득제도 (Korea Study Abroad Program)
- 재미한인학생회 (KASA)
- 한인유학생협회 (Korean International Students Association)

캘리포니아주 폴리텍 대학교 (California State Polytechnic University, Cal Poly Pomona)

- 총 한국인 유학생 수: 208
- 총 재미동포 학생 수: 1,513
- 한국 관련 공개강좌 프로그램
- 한국정부 초청 영어봉사장학생 제도 (Study Abroad Teach and Learn in Korea, TaLK)
- CSU 인터내셔널 프로그램 - 연세대학교 해외대학 학점취득제도 (Korea Study Abroad Program)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노스리지 캠퍼스 (California State University, Northridge)

- 총 한국인 유학생 수: 187
- 총 재미동포 학생 수: 741
- 아시아계 미국인학 (Asian American Studies)
- 한국어학
- CSU 인터내셔널 프로그램 - 연세대학교 해외대학 학점취득제도 (Korea Study Abroad Program)
- 재미한인학생회 (KASA)

클레어몬트 칼리지 (The Claremont Colleges)

- 총 한국인 유학생 수: 96
- 총 재미동포 학생 수: 해당 없음
- 아시아학 프로그램
- 한국어 과정
- 환태평양연구소 (Pacific-Basin Institute)

캘리포니아 공과대학교 (California Institute of Technology, Caltech)

- 총 한국인 유학생 수: 72
- 총 재미동포 학생 수: 해당 없음
- 한국어강의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LA 캠퍼스 (California State University, LA)

- 총 한국인 유학생 수: 33
- 총 재미동포 학생 수: 277
- 한국어과정
- 한국 및 재미 한국인학 연구소 (Center for Korean and Korean-American Studies)
- CSU 인터내셔널 프로그램 - 연세대학교 해외대학 학점취득제도 (Korea Study Abroad Program)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도밍게즈 힐즈 캠퍼스 (California State University, Dominguez Hills)

- 총 한국인 유학생 수: 32
- 총 재미동포 학생 수: 112
- 아시아태평양학 프로그램
- CSU 인터내셔널 프로그램 - 연세대학교 해외대학 학점취득제도 (Korea Study Abroad Program)

페퍼다인 대학교 (Pepperdine University)- 시버칼리지 (Seaver College)

- 총 한국인 유학생 수: 72
- 총 재미동포 학생 수: 해당 없음
- 아시아학 프로그램
- 한국어강의

로올라 매리마운트 대학교 (Loyola Marymount University, LMU)

- 총 한국인 유학생 수: 17
- 총 재미동포 학생 수: 223
- 아시아태평양학
- 재미 아시아태평양인학
- 한국어과정
- 아시아 비즈니스 센터
- 해외대학 학점취득제도
- 서울-서강대학교

옥시덴탈칼리지 (Occidental College)

- 총 한국인 유학생 수: 4
- 총 재미동포 학생 수: 해당 없음
- 동아시아학



문화적 관계

한국과 LA 지역은 많은 놀라운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다. 교육 관계 외에도, 양 지역 사이의 비경제적 관계는 많은 문화적 관계를 포함하고 있다. 6개 카운티로 구성된 남부캘리포니아 지역은 미국 전체에서 가장 많은 한인과 재미 한인동포가 거주하고 있다. 실제로 LA 카운티는 미국 내 최대 한인 및 재미 한인동포 커뮤니티가 위치하고 있다 (약 225,000명). 그 결과, LA 카운티는 미국 내 다른 지역보다 많은 한국관련 기관 및 조직들이 위치한다. 또한 주변 카운티들도 상당히 많은 재미한인이 거주하고 있다.

LA 카운티 출신 재미 한인 유명인사

- **Jay Kim (Diamond Bar)** - 하원의원으로 선출된 최초의 재미 한인
- **Michelle Park Steel (Palos Verdes)** - California Board of Equalization 의장
- **Angela E. Oh** - 변호사, 교사, 강사
- **장도원/장진숙 부부 (Highland Park)** - Forever 21 창업자. 현재 CEO 및 구매담당
- **안필립, 안필선, 안수산, 안수라, 안필영(형제자매)** - 도산 안창호 선생과 이해련 여사의 자녀들로 최초 미국 이민자 가족. 장남 안필립(1905-1978)은 헐리웃 영화배우, 차남 안필선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방위산업체 임원 (하워드 휴즈 항공 제조회사 부사장)을 역임한 최초 아시아계 미국인, 3남 안필영은 한미개척자위원회 (Korean-American Pioneer Council) 회장 역임, 재미한인 커뮤니티 내 가장 존경 받는 인물 중 한 명으로서 현재도 미국 이민 1세대 커뮤니티의 후손들의 모임인 KAPC에 봉사하며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장녀 안수산은 미 해군 최초 여성 포격장교로서 이들 모두 LA 한인 커뮤니티의 영웅들이다
- **Alfred Song** -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 역임, 미국 내 정계관직을 역임한 최초 재미한인
- **김정숙 (Eleanor Kim Chow)** - 전 몬테벨로 교육위원회 (Board of Education of the Montebello School District) 회장, 미국 내 관직에 선출된 최초 재미한인 여성
- **김영옥 대령**- 세계 2차 대전 중 442연대 소속 영웅으로서 무공훈장 수여
- **Nic Cha Kim** - 극작가이자, LA 다운타운 Gallery Row 설립자
- **Joe Hahn (글렌데일)** - Linkin Park로 재미한인 최초의 그래미상 수상 뮤지션



자매도시

LA 카운티의 한국 자매도시는 아래와 같다.

• LA시	부산 1971년 4월 5일 이래
• 컬버시 (Culver City)	익산시 (1983)
• 버뱅크 (Burbank)	인천 (1961)
• 패서디나 (Pasadena)	파주 (우호도시), 2009년 6월 22일 이래
• 카슨 (Carson)	완주군 (1997)
• 라하브라 (La Habra)	은평구 (1979)
• 글렌데일 (Glendale)	고성 (2009)
• 글렌데일 (Glendale)	김포 (2011)
• 몬트레이파크 (Monterey Park)	영등포구 (2007)
• 라팔마 (La Palma)	하남 (2009)
• 롱비치 (Long Beach)	포항 (1985)
• 잉글우드 (Inglewood)	경주 (1990)

대한민국민회 (KOREAN NATIONAL ASSOCIATION)

대한민국민회(Korean National Association)는 1909년 2월 1일, 샌프란시스코에서 당시 미국 하와이의 합성협회와 국민회(공립협회의 후신)의 연합으로 창설된 미국 내 최초 재미한인 연합단체였다. 1911년, 대한민국민회 중앙총회를 조직하여 전세계 독립운동을 강화하고자 했으며, 하와이, 만주, 러시아, 멕시코, 쿠바에 지방총회를 조직하였다.

1910년 한일합방 후 대한민국민회는 1919년 상하이 임시정부 수립시까지 한국의 독립운동을 이끌었다. 대한민국민회는 1914년 4월 캘리포니아 기관으로 공식 등록 되었다. 대한민국민회는 미 정부로부터 한국 공식 대표기관으로 인정받은 후 한인들의 권리보호 등 유사정부기능을 수행하였다. 대한민국민회는 1936년 샌프란시스코에서 LA 36번가로 근거지를 옮겼다. 또한 신한민보를 발간, 전 세계에 독립운동관련 소식을 전파하고 독립과 민족주의 정신을 불어 넣어 주었다. 1938년 LA의 W. Jefferson Blvd 1368번지에 회관을 신축하여 입주하였고, 지금까지도 그 자취를 찾아볼 수 있다.

미국정부는 2차 세계대전 중 재미일본인 억류를 법제화하였다. 재미한인들은 재미일본인으로 분류될 위험에 처하였다. 대한민국민회는 한인들에게 대한민국 국적증명서를 발행하여 이들을 보호하였다. 1970년대에 대한민국민회가 해체됨에 따라 국민회관은 LA한인연합장로교회에 매각되었다. 1991년 LA시는 대한민국민회관 건물을 사적으로 지정하였다.

그 후, 2002년 11월 12일에 LA 재미한인 커뮤니티는 대한민국민회 유사보존위원회를 조직하고 본 회관현장을 “대한민국민회 기념관”으로 복원하기 시작했으며 2003년 12월 9일에 개관한 것이 현재에 이른다. 대한민국민회 기념관은 현재 대한민국민회의 역사적 중요성을 일깨우고, 향후 세대에 재미한인의 뿌리에 대한 인식과 문화적 자긍심을 불어넣을 것이다.

코리아타운

LA 다운타운에서 서쪽으로 3마일, 할리우드 남동쪽으로 3마일 떨어진 곳에 위치한코리아타운은 비즈니스 및 엔터테인먼트 종사자들의 중심거주지이다.

역사적 배경:

- 1960년대 한국인들이 현재 LA 코리아타운이 형성된 지역에 이주하기 시작하였다.
- 1975년, 재미한인들은 코리아타운 청소년 커뮤니티센터를 수립하였다.
- 코리아타운은 현재 LA 내 최대 인구밀집 지역 중 하나이다.

그러나 코리아타운이 항상 평화로웠던 것은 아니다. 1992년 LA 폭동으로 많은 건물이 파괴되었으며, 약탈, 살인, 방화 등 범죄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많은 재미한인들이 오렌지카운티로 이주한 한편, LA시의 ‘스마트성장’ 프로그램에 따라 2000년대까지 잔류한 이들은 보상을 받았다.

‘스마트성장’ 프로그램:

- 대중교통 이용, 걷기, 자전거타기 촉진을 통해 자동차 의존도를 감소시키고자 했던 도시계획 및 교통프로그램
- 한 개 종점을 포함해 코리아타운 내 메트로 퍼플라인 지하철노선에 3개 정차역 신설
- 코리아타운은 현재 중/고가 거주용 아파트 및 공동주택 건설 중



코리아타운 (계속)

- 다양한 상업지구
- 야간 유흥지구 번성

코리아타운 개발 :

- 서울국제공원
- 코리아타운 청소년커뮤니티센터
- 코리아타운 갤러리아
- 코리아타운 플라자

외곽의 한인 커뮤니티

LA카운티내 가장 많은 재미한인이 밀집된 5개 지역은 밀집도 순서에 따라 (재미한인의 절반 가량이 거주하는) 로스앤젤레스, 토랜스 (Torrance), 글렌데일 (Glendale), 세리토스 (Cerritos), 다이아몬드바 (Diamond Bar)이다.

- 로스앤젤레스 (LA 카운티의 중심)- 코리아타운
- 토랜스 (Torrance)- 카운티 북부말단 해안가지역
- 다이아몬드바 (Diamond Bar)- 카운티 서부지역
- 세리토스 (Cerritos)- LA 카운티 남쪽의 이 시는 오렌지 카운티와 경계를 같이 하고 있으며 많은 자동차딜러들을 찾아볼 수 있다
- 글렌데일 (Glendale)- 다운타운 서쪽에 인접한 도시로 많은 식당과 쇼핑센터를 찾아볼 수 있다

2010년도 LA 카운티 내 도시 및 CDP	재미한인 수 (천명)
로스앤젤레스	108.3
토랜스 (Torrance)	12.1
글렌데일 (Glendale)	10.3
세리토스 (Cerritos)	7.2
다이아몬드바 (Diamond Bar)	5.8
라 크레센타-몬트로스 (La Crescenta-Montrose)	4.0
라 미라다 (La Mirada)	3.7
로랜드 하이츠 (Rowland Heights)	3.5
가데나 (Gardena)	3.5
라 캐나다 플린트리지 (La Canada Flintridge)	2.9
산타 클라리타 (Santa Clarita)	2.9
랜초 팔로스 버데 (Rancho Palos Verde)	2.8
패서디나 (Pasadena)	2.7
노워크 (Norwalk)	2.6
다우니 (Downey)	2.5
합계	224.5

주: CDP = Census Designated Place (인구조사지정지) 출처: U.S. Census

LA의 한국음식과 엔터테인먼트

LA는 전통적인 한국김치에서부터 순두부찌개, 비빔밥, 미국식 한국 타코, 한국식 후라이드 치킨에 이르기까지 무수한 한인 식당, 재미한인 식당 등 많은 식당들이 있다. LA 카운티 한 곳만도 600개 이상의 한국식당이 있다. 식당 외에도 다양한 한국 술집과 노래방이 있다.

한인축제 (ANNUAL KOREAN FESTIVAL)

2011년 제 38회 한인축제 (Annual Korean Festival)이 서울 국제공원에서 개최되어 총 4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렸다.

- 본 축제는 LA 카운티 지역민들에게 한국 문화를 알린다
- 본 축제는 풍년에 감사하는 축제인 추석 또는 한가위를 기념한다

한국문화원

한국 문화체육관광부가 운영하는 한국문화원은 코리아타운 서쪽에 위치하며, 박물관, 아트 갤러리, 강당, 도서관, 영화 아카이브, 영화 상영실로 구성되어 있다.

제공서비스:

- 한국인 아티스트를 격려하기 위해 매년 현대미술 입선작 전시 및 월간/특별 전시 개최
- 월간 한인 공연예술 공연
- 문화 수업을 포함한 한국어 과정
- 월간 및 특별 영화 상영

한국교육원

한국 교육과학기술부는 코리아타운 내에 한국교육원을 운영한다.

한국교육원 제공 프로그램:

- 한국어 과정, 한국전통음악, 무용, 미술, 서예, 판소리 등 한국문화유산프로그램
- 한국역사 및 리더십 캠프 등 여름청소년프로그램
- 주말한국어학교와 공립학교 내 한국어 과정에 대한 보조금과 지원
- TALK 및 EPIK 프로그램 영어 원어민 강사 채용



콜레보레이션 (KOLLABORATION)

콜레보레이션 (Kollaboration)은 2000년 LA 최초 공연이래로 젊은 재미한인들이 음악적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왔다.

- 2011년 공연이 LA 다운타운 노키아 극장에서 개최되었다
- 최근 행사는 13개 도시를 순회하며 수천 명의 관객을 동원했으며, 온라인 관객만 수백만 명이 넘었다

한국과 LA 다저스

많은 한국인들에게 야구는 빼놓을 수 없는 스포츠이다. 전 LA 다저스 감독 토미 라소다 (Tommy Lasorda)는 강연과 야구 클리닉을 위해 1981년에 한국방문을 시작하였다.

- 1990년대 다저스는 한국어로 시합이 중계된 최초의 미국 구단이 되었다
- 13명 이상의 한국 선수들이 미국메이저리그 (MLB)에 입단하였다. 최초 메이저리거인 박찬호, 최희섭, 서재응은 다저스 소속이었다
- 2009년 다저스는 월드베이스볼클래식 (World Baseball Classic) 준비 차 한국국가대표와 시범경기를 가졌다
- 한국은 16개 팀이 참가한 토너먼트에서 선전을 해 WBC 챔피언십에 참가했으며, 이는 다저스 스타디움에서 전세계로 중계되었다

우정의 종각 (KOREAN FRIENDSHIP BELL)

한국은 1976년 미합중국독립 200주년을 기념하고 한국전 참전 미군용사들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LA시에 우정의 종각을 기증하였다. 우정의 종각은 LA항 인근 산페드로에 위치하며 현재 경주국립박물관에 안치된 현존하는 한국 최대 종인 성덕대왕신종과 모양이 유사하다.

한인교회

재미한인 중 70%-80%는 자신을 기독교인이라 정의한다. 한인교회는 한인 커뮤니티 활동의 허브 역할을 한다. 미국 내에 약 2,800개 한인교회가 있으며 이 중 다수가 LA 카운티에 위치한다.

LA 카운티에 소재한 많은 한인교회 중 일부는 아래와 같다:

- 온누리교회- LA
- 주님의 영광교회 - LA
- 선한목자장로교회 - 로우랜드 하이츠
- 나성한인교회
- 영락교회

L.A 한인신문

코리아 타임즈 (한국일보)

- 한국어 종합일간지
- 1969년 창간
-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와 파트너십 관계

코리아 데일리 (중앙일보)

- 한국어 종합일간지

한국 헤럴드경제

- 2005년 창간

한국 TV 채널, 라디오방송국, 잡지, 기타

TV

- KBS 아메리카- KBS (한국방송공사) 프로그램
- MBC 아메리카- MBC 문화방송 프로그램
- KTN- 뉴스, 드라마, 코리아 타임즈 자매회사
- L.A.18- KSCI-TV뉴스
- SBS 인터내셔널- SBS 프로그램
- TVK24- 타임워너 케이블 라디오 채널의 뉴스, 스포츠, 예능프로그램
- 라디오서울 AM 1650
- 라디오코리아 AM 1540
- 라디오K1230 AM 1230

잡지

- 코레AM (KoreAM)- 재미한인 월간지, 블로그 (CA, 가르데에 본사 소재)
- 넷코아 (NETKOA)- 분기별 출간되는 한국관련 종합영어잡지

LA 특파원 파견 (한국에 본사 소재)

- KBS- 한국방송공사
- MBC- 문화방송
- SBS- 서울방송
- YTN- 연합TV뉴스, 연합뉴스 자회사
- 연합뉴스- 한국 뉴스통신사



캘리포니아 관광청 (CALIFORNIA TRAVEL AND TOURISM COMMISSION)

1988년에 설립된 캘리포니아 관광청 (California Travel and Tourism Commission)은 주관광국 (State Division of Tourism)과 협력하여 캘리포니아 관광 홍보를 추진한다. 본 기관은 주의 연간 마케팅 계획 이행을 지원하며 서울 사무소를 설립하였다.

LA INC.

LA 관광청 (LA Convention and Visitors Bureau)은 미국 전역에 영업 및 마케팅 사무소를 둔 비영리 사업협회이다. LA Inc. 는 LA 국제공항 (LA World Airports, LAWA)과 제휴, 한국을 비롯한 세계 전역에 마케팅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LA Inc.는 컨벤션 산업, 국내/해외 여행객, 크루즈 산업, 전세계 여행미디어 산업의 목적지인 LA를 대표한다.

한류



최근 한국대중문화의 물결은 온라인과 주요 미디어를 통해 미국사회에 침투하고 있다. 한류: 새로운 대중문화현상에 따르면 한국 드라마는 제일 먼저 중동, 유럽, 아프리카, 북미에 전파되었다. 곧 보아,

소녀시대 등 한국 대중가요가 그 뒤를 이어 미국, 캘리포니아, LA 카운티 등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소녀시대는 SM 엔터테인먼트가 2007년 결성한 9명 멤버로 구성된 K-POP 여성그룹이다. 소녀시대는 소시 및 SNSD라고도 불린다. 소녀시대는 3개 정식앨범과 3개 미니앨범을 발표하였고 1개 일본어 정식앨범과 멀티싱글을 발표하였다. 이 그룹의 멤버 중 한 명은 LA 카운티 출신이다. 한국 이름이 황미영이며 성이 STEPHANIE HWANG인 티파니는 다이아몬드바에서 자랐다. 최근, 소녀시대는 데이비드 레터맨 쇼 (DAVID LETTERMAN SHOW)에 출연하기도 하였다.

2000년, 많은 K-POP 아이돌 그룹이 일본 차트를 석권하면서 신한류가 형성되었다. 신한류는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온라인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되었다. 한국일보 조사에 따르면, 2010년 한국 가수 및 아이돌 그룹이 부른 923개 뮤직비디오의 연간 유튜브 조회 수가 아시아에서 5억6670만 회, 북미에서 1억2350만 회, 유럽에서 5540만 회를 기록하였다. 기타 영어 K-POP 사이트에는 ALLKPOP.COM, SOOMPI.COM, POPSEOUL.COM이 있다.

“모방하기(COPYING)”는 전세계적인 K-POP 열풍을 더욱 뜨겁게 달구었다. 음반회사들에게는 다행히도, 모방하기는 가요 불법복제가 아닌 커버댄스 형태로 나타났다. 팬들은 댄스 동작을 암기하거나 스스로 해석하여 춤 추었고 자신의 비디오를 인터넷 소셜미디어 사이트에 업로드하며 즐겨워하였다. 이 모든 온라인 채널을 통해 얻은 인기에 힘입어 적은 비용으로 빠르게 미국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홍보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인터넷은 또 다른 한국 대중문화현상인 한류드라마 열풍을 가져왔다. 한류드라마는 인종,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양한 미국시청자들을 사로잡았다. DRAMAFEVER.COM, DRAMACRAZY.COM 등 한류드라마 사이트는 영어자막을 추가한 합법적인 양질의 비디오를 제공한다. 한류드라마 수요의 빠른 증가로 일류 온라인스트리밍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이 구축되었다.

또한 영화도 전세계적인 한국의 창작/엔터테인먼트 산업 열풍에서 예외는 아니다. 최다 국내 관객을 동원하며 수입영화로 무색케 한 최초의 영화 중 하나가 1999년 상영된 쉬리이다. 당시 한국영화는 재능 있는 신세대 한국영화 제작자들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하며 전성기를 누렸다. 이 시기에 올드보이 (2004), 괴물 (2006) 등 국내에서 인정 받은 흥행작들이 쏟아져 나오자 한국은 “아시아의 할리우드”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다. 공포영화에서 로맨스에 이르기까지 모든 장르에 걸친 한국영화의 선전으로 할리우드 스튜디오들은 THE LAKE HOUSE (2006), MY SASSY GIRL(2008) 등 리메이크 영화들을 제작하기도 하였다. 한국은 단 10년 만에 중국, 홍콩 지역의 굴지 영화사들의 모범이 되었다.

전세계 한국 대중문화 열풍은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반에 활기를 불어넣게 되었다. 또한 K-POP은 언어장벽을 허물고 인터넷을 통한 대규모 유통을 시도하면서 중요한 문화교류 도구가 되었다. 라디오, TV, 영화 스크린을 불문하고, K-POP의 열풍은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다.



네트워크 관계

아시아 소사이어티 (ASIA SOCIETY)

아시아 소사이어티 (Asia Society)는 아시아인 및 아시아 기관들과 미국을 긴밀히 연결하기 위해 설립된 글로벌 기관이다. 본 기관은 과거 50년 이상 활동해 왔으며, 경제, 정치, 예술, 문화, 국제관계 프로그램과 행사에 중점을 두었다. 아시아 소사이어티는 캘리포니아, 뉴욕, 텍사스, 워싱턴 D.C., 홍콩, 뭄바이, 필리핀, 상하이, 서울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 아시아 소사이어티는 샌프란시스코와 LA에 각각 지부를 두고 있다. 아시아 소사이어티 남부캘리포니아는 과거 수년간 급속히 성장하였고 아시아와 미국서부지역간 관계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아시아 소사이어티 남부캘리포니아는 남부캘리포니아 전역에 걸쳐 비즈니스, 엔터테인먼트, 교육, 공공정책 관련 프로그램 및 행사를 제공하고 있다. 본 기관은 남부캘리포니아가 아시아 및 미국 혁신의 중심지로 부상하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아시아 소사이어티 남부캘리포니아의 한국관련 프로그램 및 행사

Examples of Programs

- 태평양도시 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 (Pacific Cities Sustainability Initiative)
- LAsia21

교육 이니셔티브

국제학 학교 네트워크

- 국제학 및 언어를 전문으로 하는 국내 최초의 도시중등 학교 네트워크
- LA 2개 학교
- 국제학러닝센터 (International Studies Learning Center), 본 국제학아카데미 (Vaughn International Studies Academy)

기타 한국 프로그램 및 행사

영화 및 음식축제, 만찬, 포럼, 강연, 원탁회의, 무역사절단, 언어프로그램, 서적출판, 보고서, 카탈로그

한미재계회의 (U.S.-KOREA BUSINESS COUNCIL)

한미재계회의 (U.S.-Korea Business Council)는 한미간 무역과 투자 촉진에 기여하는 선두적인 미국기업들이 가입되어 있는 단체이다.

- 1987년 설립
- 한미자유무역협정 (KORUS FTA)을 촉진했던 한국의 '자유무역협정 산업체휴'의 설립에 중심적 역할 수행

3M
ACE-INA, Inc.
Accuray, Inc.
암웨이 (Amway Corporation)
블룸버그 (Bloomberg)
보잉 (The Boeing Company)
Boston Scientific
Cargill, Inc.
Caterpillar, Inc.
CBOL Corporation
Chartis
쉐브론 (Chevron Corporation)
The Chubb Corporation
Citi
ConocoPhillips
Covington & Burling, LLP
C.V. Starr Co.
Dolby Laboratories
Educational Testing Services
Eli Lilly and Co.
FedEx Express
Gale International
제네럴모터스 (General Motors Corp.)
골드만삭스 (Goldman Sachs)
IBM
인텔 (Intel)

존슨앤존슨 (Johnson & Johnson)
JP모건체이스 (JPMorgan Chase)
맥그로힐 (The McGraw-Hill Co.)
McLarty Associates
Medtronics, Inc.
Merck & Co., Inc.
메트라이프 (MetLife)
마이크로소프트 (Microsoft)
Monsanto
Northrop Grumman Corp.
Prtnrs for the Future Found.
화이자 (Pfizer)
Pharmaceutical Research & Manufacturers of America
Prudential Financial
퀄컴코리아 (Qualcomm Korea Ltd.)
RGA Reinsurance Group of America
Steptoe & Johnson LLP
Sybase
타임워너 (Time Warner)
United Airlines
Visa
White & Case LLP



주미 한국상공회의소 (KORE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IN THE U.S., KOCHAM)

주미 한국상공회의소는 미국에 본사를 둔 300개 이상의 한국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한다. 본 기관은 월간 뉴스레터를 발행하고 회원사에 자사 관련 정책이슈들을 알리고 지원한다. 1992년 설립된 본 기관은 뉴욕시에 본점을 두고 있다. KOCHAM은 한국국제무역협회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KITA), 한국 미경제연구소 (Korea Economic Institute of America, KEI), 대한무역진흥공사 (KOTRA), 코리아 소사이어티 (Korea Society), 한미재계회의 (US-Korea Business Council), 미국상공회의소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 AMCHAM)와 협력한다.

로스앤젤레스 한인상공회의소 (KOREAN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OF LOS ANGELES, KACCLA)

KACCLA는 1971년 한인 커뮤니티가 새로운 비즈니스 환경에 적응하도록 돕는 기관 설립의 필요성을 느낀 진취적인 한국계 기업 오너들에 의해 설립되었다. KACCLA는 LA지역 회원사와 기타기업들을 위한 비즈니스 활성화를 취지로 다양한 프로그램과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KACCLA는 또한 한국, 중국, 브라질, 베트남 등의 상공회의소 및 기업들과 상호교류를 통해 해외 무대로 활동을 확대해가고 있다. KACCLA는 회원사를 위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끊임없이 모색하고 있다. KACCLA는 또한 LA지역 비즈니스에 중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타 커뮤니티 기반 기관들을 적극 지원한다.

환태평양상공회의소 (PACIFIC RIM CHAMBER OF COMMERCE)

환태평양상공회의소 (Pacific Rim Chamber of Commerce)는 환태평양 무역과 비즈니스 분야에 활발히 활동하는 기업가, 임원, 리더들이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다. 본 상공회의소는 뉴욕, 일본, 한국, 상하이, 베이징, 선양, 비벌리힐스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 본 상공회의소의 주된 임무는 환태평양 국가들과 전세계 국가들의 비즈니스관계 촉진 및 지원이다.

국제정책에 관한 태평양 평의회 (PACIFIC COUNCIL ON INTERNATIONAL POLICY, PCIP)

국제정책에 관한 태평양 평의회(Pacific Council on International Policy · PCIP)는 태평양연안지역의 국제문제에 대한 의결권을 제공하기 위해 USC와 미국

외교관계평의회 (Council on Foreign Relations)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1995년에 설립되었다. 본 기관은 테러리즘, 세계화, 지구온난화 등 가장 시급한 세계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해 활동한다. 본 평의회 회원들은 글로벌 리더 네트워크, 공적 교류, 연구, 출판, 전세계 핵심 기관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글로벌논의에 적극 참여한다.

아시아비즈니스연합 (ASIAN BUSINESS ASSOCIATION, ABA)

아시아비즈니스연합 (Asian Business Association)은 지역, 주, 연방차원에서 아시아계 미국인 비즈니스 오너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위한 단체이다. 본 연합의 5개 목적은, (1) 회원사의 안건을 관철시키기 위해 정부에 의견 제시, (2) 정부정책의 영향에 관해 회원사 교육, (3) 상호 비즈니스 기회 창출을 위한 환경 제공, (4) 비즈니스 커뮤니티의 연대도모, (5) 교육훈련 제공이다.

남부캘리포니아 아시아 비즈니스 동맹 (ASIAN BUSINESS LEAGUE OF SOUTHERN CALIFORNIA, ABL)

아시아 비즈니스 동맹 (Asian Business League)은 1984년에 LA다운타운에서 수립되었다. 본 기관의 주요 임무는 회원사를 위해 사우스랜드 전역의 사업기회를 증진하는 것이다. ABL은 남부캘리포니아 전역의 아시아 비즈니스 커뮤니티에 기술, 전자상거래, 부동산개발 등 이슈와 환태평양지역 비즈니스환경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아시아아메리칸 경제개발사 (ASIAN-AMERICAN ECONOMIC DEVELOPMENT ENTERPRISES, INC., AAEDE)

AAEDE는 아시아이주민들에게 재정지원을 제공하고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을 돕고자 1977년에 설립되었다. AAEDE는 몬트레이파크에 위치하며 아시아계 미국인들을 위한 비영리 경제개발촉진 기구로 성장하였다. 본 기관은 워크샵, 세미나, 소기업지원프로그램, 자금마련, 정보지원, 연례고용박람회를 제공하며, 주요 목표는 4E 즉, 고용(Employment), 교육(Education), 기업 (Enterprise), 경쟁력(Excellence)을 제공하는 것이다.



아시아태평양 커뮤니티펀드 (ASIAN PACIFIC COMMUNITY FUND, APCF)

APCF는 LA 카운티 전역의 아시아인들과 태평양도서민들의 생활 향상을 도모하는 커뮤니티기관들의 모임이다. 본 펀드는 1980년 설립되었고, 주요 임무는 건강한 이웃 만들기, 리더 양성, 주민을 위한 강력한 의견 개진, 모두를 위한 더 나은 미래 구축이다. 이를 위해 APCF는 보건서비스, 방과후 프로그램, 주택, 상담, 훈련, 고용 및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시아 전문가 교류회 (ASIAN PROFESSIONAL EXCHANGE, APEX)

아시아 전문가 교류회 (Asian Professional Exchange)는 남부 캘리포니아 소재 아시아태평양 커뮤니티들을 위한 전문가양성, 커뮤니티서비스, 문화 인식 증진을 위해 1993년 설립되었다. 본 교류회의 주요 목적은 아시아태평양계 미국인들이 기업의 리더로서 자신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비즈니스 관련 핵심 이슈들을 해결하며, 지원시스템의 역할을 수행하고, 아시아태평양계 미국인들간 아이디어 교류 포럼을 개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LA 카운티 아시아계미국인 피고용인연합회 (LOS ANGELES COUNTY ASIAN AMERICAN EMPLOYEES ASSOCIATION, LACAAEA)

LA 카운티 아시아계미국인 피고용인 연합회 (LACAAEA)는 회원들의 권리 증진을 위해 1970년대에 설립된 피고용인 기관이다. 본 연합회는 피고용인 권리 관련 정보 제공, 회원간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포럼 제공 등 회원들의 고용조건 개선을 위해 활동한다.

미주한국학교연합회 (KOREAN SCHOOL ASSOCIATION OF AMERICA, KSAA)

미주한국학교연합회 (Korean School Association of America, KSAA)는 남부캘리포니아, 네바다, 뉴멕시코, 아리조나의 주요 한국어학교들이 1982년 설립한 비영리기관이다. KSAA는 한국어학교와 교사들이 한인2세들이 한국어 쓰기 및 말하기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모든 교육적 방식을 통해 지원한다.

남부캘리포니아 한인미국변호사협회 (KOREAN-AMERICAN BAR ASSOCIATION OF SOUTHERN CALIFORNIA)

1981년 설립된 남부캘리포니아 한인미국변호사협회 (Korean-American BAR Association of Southern California)는 무료 법률클리닉 등을 통해 재미한인 커뮤니티에 봉사하는 변호사 및 법학생들로 구성된 비영리기관이다.

남가주 한인치과의사협회 (KOREAN-AMERICAN DENTAL ASSOCIATION- SOUTHERN CALIFORNIA)

1969년 이래로 남가주 한인치과의사협회 (Korean-American Dental Association)는 치과의사들의 전문성증진을 위해 활동하였다. 본 협회는 매 2년마다 남부캘리포니아에서 활동하는 재미한인 치과의사들을 위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아시아청소년센터 (ASIAN YOUTH CENTER, AYC)

아시아청소년센터 (Asian Youth Center)는 아시아계 청소년에 대한 서비스 공백을 메우기 위한 취지로, 유나이티드 웨이 (United Way) 프로젝트로서 1989년 설립되었다. AYC는 1997년 산 가브리엘 (San Gabriel)에 센터를 개원하고, 2003년 부속건물을 신축하여 청소년들이 뛰어 놀며 학습할 수 있는 레크리에이션 공간을 제공하였다.



3장 • 무역관계

세계경제 속의 한국

과거 50여 년 동안, 한국은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룩하였다. 실제로 한국은 1960년대 초부터 1990년대까지 전 세계에서 최고속 성장을 이룬 국가 중 하나였다. 한국인들은 이 같은 경제기적을 “한강의 기적”이라 부른다. 한강은 수도서울 심장을 가로질러 흐른다. 경제적 기준으로 볼 때, 한국은 소득수준이 높은 선진국으로 분류된다. 오늘날 한국은 명목GDP(시장환율사용) 기준 세계 15대 경제대국 또는 PPP환율 기준 12대 경제대국이다. 한국은 G-20 회원국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이기도 하다. 또한, 한국은 홍콩, 싱가포르, 대만과 함께 고속경제성장을 이룬 아시아국가를 지칭하는 별칭인 아시아의 호랑이 (Asian Tigers)로 불린다.

한국 경제가 GDP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은 과거 40년 중 단 2년에 불과하다. 한국 GDP는 과거 50년 동안 10억 달러 미만에서 1조 달러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한국은 2008년-2009년 세계를 강타한 금융 경제 위기 동안 실질 경제 성장을 이룬 극소수 국가 중 하나이다. 이는 한국 경제가 최근 내수소비에 더욱 의존하게 되었음을 극명히 보여준다. 실제로, 소비는 주요 한국 경제소득 요소가 되었다.

한국 경제는 세계화와 무역자유화의 최대 수혜국 중 하나이다. 한국의 경제성장모델은 수출에 기반한 것이다. 과거 수년간, 한국 경제는 더욱 수출에 의존하게 되었다. 한국 GDP의 절반가량이 수출에 의존한다. 그 결과, 한국 경제는 세계경제, 특히,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과 떼어낼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 그러나, 최근 십 년간, 한국 경제는 신흥경제국 및 경제개발국과 더욱 밀접한 관계를 구축해 오고 있다. 한국과 중국의 경제관계는 최근 한국의 경제성장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되었다.

한국은 전자, 자동차, 조선 등 산업 전반에 걸쳐 세계 최고 혁신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다. 반도체와 LCD의 경우, 한국 기업들의 세계 시장점유율은 50%를 초과한다. 한국 자동차제조사들은 글로벌 시장점유율이 10%를 육박하게 되었다 (역동적 한국에 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서문 참조). 이들 기업 중 삼성, LG, 현대, 롯데, 포스코, 한진, 한화, 신한, 한국, 기아 등 다수가 뉴욕/뉴저지 메트로지역, 남부캘리포니아, LA 카운티에서 확고한 사업 입지를 구축하였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비즈니스 관계” 참조).



최근 경제동향 (2009년 대불황 이후)

2009년 한국경제는 많은 관측자들을 놀라게 하였다. 한국 경제의 수출 의존도가 높은 가운데, 한국이 당시 글로벌 금융 및 경제위기 한가운데에서 실질성장을 보일 것이라고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2009년 상반기의 한국경제는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지탱되었다. 2009년 하반기에는 소비자지출이 구세주였다. 동기간 민간수요와 (주로 중국발 수요) 수출회복에 힘입어 2009년 GDP성장률이 약 0.5%를 기록하였다.

(아시아 4대 경제강국 중 하나인) 한국경제는 2010년 아시아 경제국 중 최고의 성적을 보여주었다. 또한 한국은 글로벌 경제 회복을 주도한 주요 국가 중 하나였으며, 중국경제 성장의 주요 수혜국이었다. 한국경제는 비록 중국 또는 인도 경제보다는 낮았지만, 2010년에도 매우 견실한 성장을 유지하였다. 2010년 한국 GDP는 수출과 산업생산의 지속되는 호조로 6.1% 확대되었다. 2010년 수출은 약 30% 급등하였다. 이 같은 성공의 열쇠는 아시아 주변국들의 강한 수요가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에 있었다. 한국 수출의 33%를 차지하는 중국 수요는 이 같은 성장 가속화의 동력이었다. 전자, 자동차, 조선은 최대 수요 업종이었다.

한국경제는 2011년 상반기에도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갔다.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확대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글로벌 경제 회복을 견인하였다. 계속되는 수출호조로 한국의 GDP는 2011년 1/4분기와 2/4분기에 전년동기대비 각각 4.2%, 3.5% 성장하였다. 5월 전년동기대비 수출은 약 24% 증가하였다. 그러나, 중국, 미국, 유럽, 일본의 수요가 2011년 중반부터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한국의 수출 환경은 악화되기 시작하였다.

2011년 하반기에는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다소 후퇴하였다. 예상되었던 바와 같이, 어두운 글로벌 경제환경이 주요원인이었다. 전반적인 세계경제에 대한 의존으로 인해 2011년 하반기 한국경제는 글로벌 수요가 악화되자 경기둔화를 경험하였다. 이는 중국의 경기둔화와 유럽채무위기의 여파로 인한 것이었다. 그러나, 한국경제는 수출강세에 따라 2011년 (지난해에 대비하여 낮지만) 3.6%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한국경제의 2012년 성장률은 3.5%로 전망된다.”

2012년 한국경제 전망은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경제환경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첫째, 한국의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이 한국에 최대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둘째, 글로벌금융시스템이 유럽의 금융전이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럽 또한 한국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유럽의 불황은 한국수출에도 먹구름을 드리울 것이다. 무역차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연성을 고려할 때, 유럽의 상황이 특히 중요하다. 그러나, 한미 FTA가 한국수출을 상당히 부양할 수 있을 것이다. 전반적으로, 글로벌 경제 둔화와 상대적인 원화강세는 한국경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또한 최근 국내소비둔화가 위협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한국의 견고한 중산층을 고려할 때, 국내소비가 한국경제에 핵심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분명 향후 수개월 동안 북한의 동향을 예의 주시할 것이다.

한국은행은 인플레이션억제를 위해 2010년 중반부터 2011년 6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금리를 인상하였다. 예견된 바와 같이, 성장에 대한 우려가 물가상승에 대한 우려보다 심각해짐에 따라, 2012년 초기 통화정책이 180도 선회하였다. 실제로, 한국은행은 2011년 6월 이후 금리를 일정하게 유지하였다. 중국의 경기둔화와 유럽불황으로 인해 2012년 한국경제 성장전망이 기존의 4.5%에서 3.5%로 하향 조정되었다.



한미 무역

한국경제는 주로 수출산업 주도의 성장을 추구해왔다. 1960년대 이후, 한국은 산업기지 구축에 주력하였다. 한미 무역은 1970년대에서 1990년대까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이 기간 동안, 미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파트너 중 하나였다. 실제로, 수년간 미국은 중국이 미국과 일본을 추월하기 전까지 한국의 최대 또는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교역파트너였다. 현재 한국은 캐나다, 중국, 멕시코, 일본, 독일, 영국에 이어 미국의 7위 교역파트너이다.

1970년 한미 양국간 총 무역액은 10억 달러 미만이었으나, 1980년 100억 달러에 달했으며, 1990년과 2000년에 각각 360억 달러, 670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1997년 아시아금융위기 후 2년 만에 한미 무역액은 430억 달러에서 670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한미 양국간 총 무역액은 2008년에 약 850억 달러에 육박하였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후 한미 무역은 2000년 수준인 670억 달러로 크게 하락했으나, 2011년 사상최대인 1000억 달러를 돌파하였다. 최근의 한미FTA 통과 및 시행을 고려할 때, 그 미래가 더욱 밝아졌다.

1980년대 이후, 미국은 삼성, 현대, LG 등 한국 제조사들의 주요 시장이 되었다. 미국시장은 한국의 수출지향적 경제에 크게 기여하였고, 한국의 선진화를 가능케 한 주요 동인이었다.

한미 무역은 1970년 10억 달러 미만에서 2011년 사상최대인 1,000억 달러 이상을 기록하였다. 미국의 한국 수출은 6억 달러 미만에서 2011년 440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미국의 한국 수입은 4억 달러 미만에서 2011년 약 560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이제 한국과의 무역은 미국의 전체 세계무역 중 약 3%를 차지한다.

급속한 무역 증가는 과거 40년 동안 미국과 한국 양국의 눈부신 경제성장에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 결과, 양국은 세계 최대 1인당 국민소득을 자랑하게 되었다. 또한 양국은 높은 소비성향을 지닌 두터운 중산층을 확보하게 되었다.

캘리포니아-한국 무역

캘리포니아는 환태평양으로 통하는 미국 관문이다. 1980년대 이후, 미국은 한국과의 무역이 크게 증가하였다. 수년간 한국은 캘리포니아의 10위 수출시장이었다. 향후 캘리포니아의 번영은 한국을 비롯한 아태지역과의 국제무역과 더욱 밀접하게 관련될 것이다. 캘리포니아는 미국 그 어느 주보다 한국 및 아태지역과의 무역으로부터 더 큰 혜택을 누릴 것이다. 특히 한미FTA 발효로 이 같은 혜택은 더욱 극명해졌다.

캘리포니아는 한국 경제성장의 혜택을 입을 수 있는 독특한 위치에 있다. 2011년 한국은 캘리포니아의 5대 수출 시장이었고, 수출액은 840억 달러에 달하였다 (아래 표 참조). 한국이 전세계 경제 강국 및 최대 시장으로서의 입지를 유지한다면 한국과 캘리포니아는 향후 지속적인 혜택을 입을 것이다. 또한, 한미 무역의 대부분이 (LA 및 샌프란시스코 세관지역인) LA항, 롱비치항, 오클랜드항을 거쳐 이루어짐에 따라, 캘리포니아는 최근 통과된 FTA의 주요 수혜자가 될 것이다.



캘리포니아 수출- 2006년-2011년, 상위 5위 수출국 (10억 달러)

(10억 달러)

국가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멕시코	19.6	18.3	20.5	17.5	20.9	26.0
중국	14.8	15.5	16.8	15.6	19.3	21.9
캐나다	14.2	16.3	17.9	14.3	16.2	14.2
일본	13.9	13.5	13.1	10.9	12.2	13.0
한국	7.0	7.4	7.7	5.9	8.0	8.4

주: 중국은 홍콩, 마카오 포함.

출처: U.S. Census Bureau, USA Trade Online



L.A.카운티는 미국 국제무역의 수도이다

- 세계경제로 향하는 미국 1위의 관문
- 아시아로 향하는 미국 1위의 관문
- 한국으로 향하는 미국 1위의 관문
- 미국 1위 세관지역
- 미국 1위 항구 - LA항 (POLA)
- 미국 2위 항구 - 롱비치항 (POLB)
- LA항과 롱비치항은 수로로 미국에 유입되는 전체 컨테이너화물의 40% 이상을 취급한다
- LA 국제공항 (LAX)은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출발/도착 공항이다

2011년 세계 상위 컨테이너항 (물동량 기준)

• 상하이	31.7 Million TEUs
• 싱가포르	29.9 Million TEUs
• 홍콩	24.4 Million TEUs
• 인천	22.6 Million TEUs
• 부산	16.2 Million TEUs
• 닝보	14.7 Million TEUs
• 광저우	14.7 Million TEUs
• LA & 롱비치	14.0 Million TE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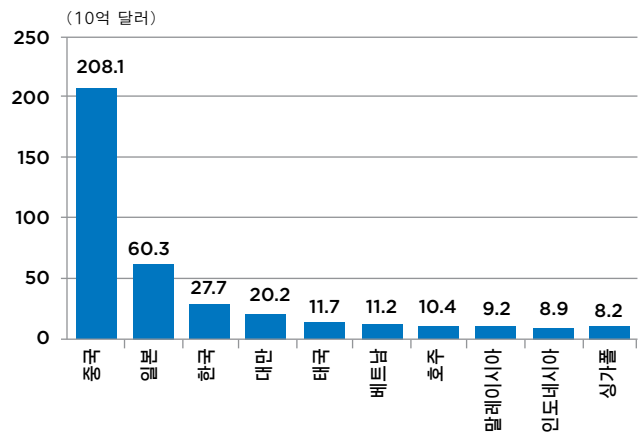
LA세관지역 (LOS ANGELES CUSTOMS DISTRICT, LACD)- 한국 무역

LA 카운티는 국제상업 및 투자의 리더로 성장하였으며 아시아 국가로 통하는 미국관문으로 부상하였다. LA는 아시아와의 긴밀한 연결성으로 인해 환태평양의 수도로 불려왔다. LA항과 롱비치항이 포함된 산페드로 (San Pedro)항만단지는 미국과 서반구 내 최대항만단지로서 (1400만 TEU 수송-미국 내 전체 컨테이너 수송량 중 1/3), 전세계적으로 8번째로 붐비는 단지이다. 2011년 산페드로의 전체 컨테이너 수송량은 상하이, 싱가포르, 인천, 부산, 닝보, 광저우에 이어 8위를 차지하였다.

비경제적 유대관계와 마찬가지로 LA 카운티와 한국은 미국 어느 지역도 필적할 수 없는 경제적 유대관계를 수립하였다. LA세관지역 (LACD)과 한국의 국제무역관계는 양 지역간 경제관계를 혁명적으로 변화시켜 끊을 수 없는 유대관계를 형성하였다. LA지역은 지역 내 항구들이 미국-아시아/한국 무역의 중심이 됨에 따라 주요 수혜자가 되었다. LA세관지역은 한-미 무역의 50% (총 물동량 기준)이상 및 약 30%(총 무역액 기준)를 취급한다. 실제로, LA항과 롱비치항을 합할 때 한-미 전체 무역의 약 25%(총 무역액기준)를 차지하고, 2002년 한국은 대만을 제치고 LACD의 제 3위 교역파트너가 되었다. 중국은 2001년 WTO 가입 후 LACD의 최대 교역파트너가 되었다. 2010년 한국과의 총 무역액 (총 수출 및 수입)은 243억달러를 기록하였다.

2011년 한국과의 총 무역액 (일반 수출 및 수입)은 사상최대인 277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LACD 하적 기준, 한국으로부터의 총수입 (일반수입)액은 167억 달러인 한편, LACD 선적 기준, 한국으로의 총수출액은 110억 달러(3위)를 기록하면서 LACD는 한국과의 무역에서 57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였다. 한국의 수입수출비율은 1.52로서 2010년의 1.36보다 증가하였다. 그러나 본 비율은 LACD 상위 5개 교역파트너 중 가장 낮은 수치이다. LACD가 취급하는 양국간 무역 (일반수출입)은 약 4,670억 달러에 달하고 한국은 이 중 6%를 차지하였다.

2011년 LACD 상위 10개 무역파트너



*주: 중국은 홍콩, 마카오 포함.

출처: U.S. Census Bureau, USA Trade Online



LA세관지역 (LOS ANGELES CUSTOMS DISTRICT, LACD)- 한국 무역 (계속)

국제무역은 남부캘리포니아에서 수십만의 고용을 창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경제 동력 중 하나가 되어왔다. 5개 LA 카운티 지역에서 무역 민감산업에 고용된 종사자만 240,000명이 넘는다. 이 수치는 항구에 종사하는 해안노동자뿐 아니라 임금수준이 높은 기타 직종들도 포함한다. 여기에는 선박운영, 선박서비스, 화물취급, 육상수송 (철도, 트럭), 항공화물, 물류서비스, 무역금융, 화물 포워딩, 관세브로커, 유통센터, 보험, (무역안전규정 해석을 위한) 법무 등이 포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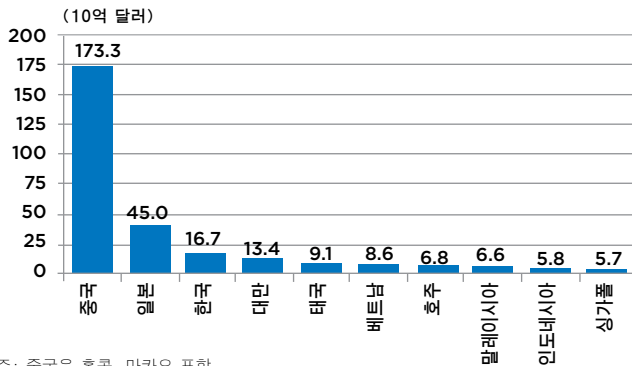
남부캘리포니아는 아시아 및 세계와의 무역관계에서 창출되는 글로벌 물류 및 운송의 허브로 탈바꿈하였다. 뿐 만 아니라 한국 및 한국인들과의 오랜 관계에 힘입어 LA 카운티 지역은 한국전쟁 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한미관계에 있어 전략지역이 되었다.

LACD의 한국수입

한국으로부터 LACD로 수입되는 수입금액은 2011년에 큰 폭인 19.1% 증가하였다. LACD의 대부분의 상위 15개 수입품목들은 한미 FTA 발효 없이도 지난해 견실한 두 자리 수 성장을 보였다. 이 중 구리와 구리제품이 50% 이상 증가로 가장 큰 성장을 보였다. 또한, 기타 금속제품이 약 44% 상승, 그 다음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미국의 경제확대와 관련한 산업생산 증대와 제조업종의 상승세가 이 같은 증가를 견인하였다. 이 외에도 철/철강 (42%), 철/철강제품 (30%) 수입이 뚜렷한 증가를 보였다. 지속적인 소비자 지출 및 산업투자 회복이 전반적인 수입증가에 기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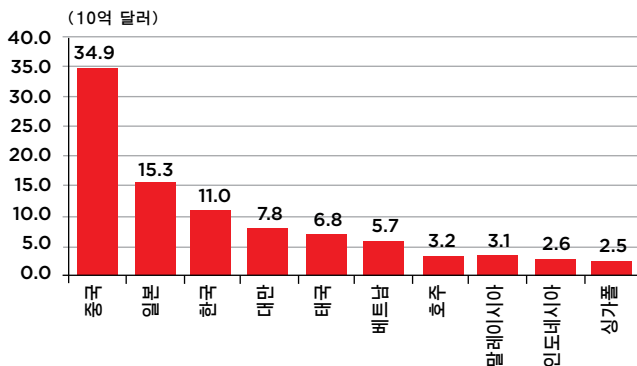
LACD 상위 15개 수입품목 중 2개만이 2011년 감소하였다. 가장 큰 폭의 감소를 보인 것은 정유제품 (17.3%감소) 이었다. 한국은 천연가스와 원유를 전량 수입 후 원유수입량 중 1/4가량을 가솔린 등 정제제품으로 재수출한다. 또 다른 감소세를 보인 품목은 2.5% 감소한 항공기 및 우주항공기 부품이었다.

2011년 LACD 상위 10개 수입국



*주: 중국은 홍콩, 마카오 포함.
출처: U.S. Census Bureau, USA Trade Online

2011년 LACD 상위 10개 수출국



*주: 중국은 홍콩, 마카오 포함.
출처: U.S. Census Bureau, USA Trade Online

LACD의 상위 10개 한국수입품목

품목	2011 (100만 달러)	총 한국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
컴퓨터, 주변기기, 기계, 가전 및 부품	5,040.7	30.2%
전기기기, TV 및 전자부품	2,872.2	17.2%
전동차량 및 부품	2,776.7	16.6%
고무 및 고무제품	1,091.4	6.5%
플라스틱 및 플라스틱제품	586.3	3.5%
정유제품 및 천연가스	551.9	3.3%
철/철강제품	474.8	2.8%
광학, 사진, 의료/수술용 기기	354.2	2.1%
철/철강제품	253.0	1.5%
기타금속제품	213.1	1.3%
합계	14,214.3	85.1%

출처: U.S. Census Bureau, USA Trade Online



LACD의 한국수출

2011년 LACD의 한국으로의 수출은 7.0% 증가하였고, 이는 2010년 38.4%의 급등에 이은 상승폭이다. 상위 3개 수출품목은 컴퓨터/기계/가전과 가전부품, 전기기기 및 전자부품, 육류와 육류제품이었다. 그러나 2011년, 상위 1위, 2위 수출제품이 각각 15.9%, 11.1% 하락하였다. LACD의 육류 및 육류제품 수출은 지난해 50% 증가하였다. 한국의 전반적인 소비심리 회복과 산업생산수요 증가로 금액기준 상위 15개 수출품목 중 면(144.2%), 기타 조리식품 (49.0%), 철/철강제품 (42.6%), 알루미늄과 알루미늄 제품 (21.6%) 또한 상당한 증가를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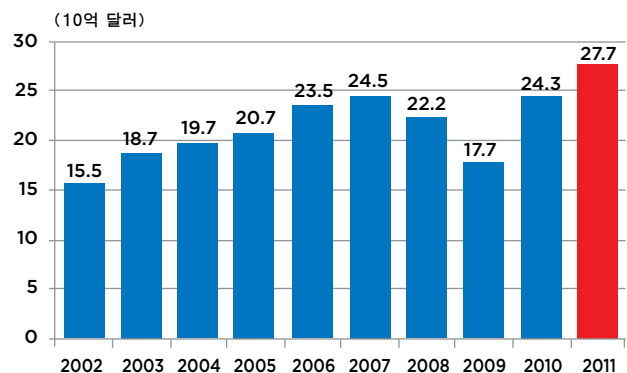
LACD의 컴퓨터, 기계, 가전제품 및 가전부품, 전기기기 및 전자부품 수출에 대한 한국의 수요는 2011년 한국이 더 나은 대안을 확보함에 따라 크게 감소하였다. 한국-유럽 FTA가 2011년 7월 발효됨에 따라 유럽은 미국에 비해 경쟁우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한국은 LACD 수입증가, 삼성, LG 등 한국 전자제품기업의 높은 수익성 등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상기 완제품들을 특화하여 전문 생산하기 시작했다.

LACD 상위 10개 한국수출품목

품목	2011 (100만 달러)	총 한국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
컴퓨터, 주변기기, 기계, 가전 및 부품	1,423.7	13.0%
전기기기, TV 및 전자부품	1,094.2	10.0%
육류 및 육류제품	699.9	6.4%
철/철강제품	614.8	5.6%
광학, 사진, 의료/수술용 기기	596.6	5.4%
항공기, 우주항공기 및 부품	516.9	4.7%
플라스틱 및 플라스틱제품	490.4	4.5%
유기화학물	428.1	3.9%
전동차량 및 부품	415.1	3.8%
기타화학제품	375.0	3.4%
합계	6,654.8	60.6%

출처: U.S. Census Bureau, USA Trade Online

LACD-한국 양자간 무역 2002-2011



출처: U.S. Census Bureau, USA Trade Online.



2011년 LACD 상위 10개
한국수입 세부품목

- 1 **가전, 기계, 컴퓨터**
 - 냉장고, 냉동고
 - 세탁기
 - 드라이클리닝기계
 - 프린터

- 2 **전기기기, 전자컴포넌트**
 - 휴대폰 등 전화기
 - TV 수신기/모니터
 - 전자집적회로
 - 유압식변압기
 - 진공청소기 및 부품

- 3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 자동차부품
 - 여객수송용 차량

- 4 **고무 및 고무제품**
 - 타이어

- 5 **플라스틱 및 플라스틱제품**
 - 플라스틱 플레이트 및 시트
 - 폴리머, 수지
 - 컨테이너 (박스)
 - 폴리에스테르

- 6 **정유제품, 천연가스**
 - 비트 석유, 비튬 미네랄 석유

- 7 **철/철강제품**
 - 튜브, 파이프
 - 스크류, 볼트, 너트
 - 튜브 및 파이프 고정기
 - 철사줄

- 8 **광학, 의료/수술용 기기**
 - 의료/치과/수술용 기기

- 9 **철/철강**
 - 앵글 등
 - 평판압연철강, 비합금강
 - 평판압연 스테인레스스틸

- 10 **기타금속제품**
 - 비금속제품

2011년 LACD 상위 10개
한국수출 세부 품목

- 1 **기계, 기계부품, 컴퓨터**
 - 반도체소자 제조기기
 - 천공기, 굴착기
 - 원심분리기, 정수기

- 2 **전기기기, 전자컴포넌트**
 - 전자집적회로, 메모리, 프로세서, 컨트롤러
 - 휴대폰 등 전화기
 - TV 수신기, 모니터

- 3 **육류 및 육류제품**
 - 소고기
 - 돼지고기

- 4 **철/철강제품**
 - 고철, 파쇠

- 5 **광학, 사진, 의료/수술용 기기**
 - 반도체 웨이퍼 검사용 광학기기
 - 의료/ 치과/ 수술기기 부품

- 6 **항공기, 우주항공기 및 부품**
 - 경기구, 항공기, 우주항공기 부품
 - 여객기, 엔진, 부품

- 7 **플라스틱 및 플라스틱제품**
 - 폴리에스테르
 - 폴리아미드

- 8 **유기화합물**
 - 헤테로싸이클릭 화합물
 - 페놀 또는 페놀알코올 파생물
 - 유기/무기화합물

- 9 **전동차량 및 부품**
 - 전동차량 부품 및 액세서리
 - 전동차/차량
 - 탱크, 장갑차

- 10 **기타화학제품**
 - 반응개시제, 촉매제, 촉진제
 - 안티녹제 (anti-knock preps), 미네랄오일 첨가제
 - 몰드 바인더, 화학제품



산페드로 항만

(LA항/롱비치항 포함)- TEU 컨테이너 물동량 전망

TEU 컨테이너 수 기준으로, 산페드로 항만 (LA항과 롱비치항 포함) 한국수입 상위 품목은 자동차 부품, 세탁기, 냉장고, 자동차/트럭 타이어였다.

산페드로 항만 상위 10개 한국수입품목

순위	품목	2011 TEU	전체 10개 품목 중 차지하는 비율, %
1	자동차부품	55,102	13.2%
2	세탁기	54,386	13.0%
3	냉장기기	53,257	12.8%
4	자동차/트럭 타이어 및 튜브	38,520	9.2%
5	EDP, 숫자, 주소 관련기기	11,732	2.8%
6	전자/전자 제품 등	11,264	2.7%
7	종이, 합판 (폐지 포함)	11,017	2.6%
8	합성수지, 플라스틱	7,153	1.7%
9	일반화물 등	6,989	1.7%
10	섬유 (원면 포함)	6,326	1.5%
	한국수입총액	416,887	100.0%

산페드로 항만 상위 10개 한국수출품목

순위	품목	2011 TEU	전체 10개 품목 중 차지하는 비율, %
1	종이, 종이합판 (폐지 포함)	38,138	12.9%
2	금속고철/파쇄	33,534	11.3%
3	애완동물사료	27,290	9.2%
4	육류 (신선, 냉동)	16,223	5.5%
5	일반화물 등	14,077	4.7%
6	금속고철, 철형, 선철	11,697	3.9%
7	섬유 (원면포함)	9,957	3.4%
8	오렌지	6,746	2.3%
9	자동차부품	6,271	2.1%
10	기타 화학물	6,260	2.1%
	한국수출총액	296,510	100.0%



LA항 (PORT OF LA)

LA항은 산페드로 항만에 위치해 있으며, 롱비치항과 함께 산페드로 항만단지를 구성한다. LA항은 LA로부터 남쪽으로 20마일 떨어져 있으며, 해안, 건물, 액체벌크, 컨테이너, 브레이크벌크, 자동차, 창고 시설 등을 포함한 7,500 에이커 면적, 43마일 길이의 25개 여객 및 화물터미널이 있다. LA항은 월드크루즈센터가 위치한다. LA항은 2011년에 12년 연속 미국내 가장 붐비는 항구였고, 2012년에도 13년 연속 미국 내 가장 붐비는 항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 10년간 컨테이너 물동량이 두 배 증가하였다. LA항은 전세계 가장 붐비는 항구에서 16위를 차지하며, 인접한 롱비치항과 합칠 경우 8위에 해당된다. LA항은 2010년에 780만 TEU를 취급하였고, 같은 해 총 화물금액은 2,364억 달러였다. 2010년 총 화물 중량은 1억5,780만 MTR이었다. 2010년 LA항에 도착한 선박은 2,182대였으며, 자동차는 150,233대였다. 2011년 LA항은 790만 TEU를 취급하였고, 향후 LA항의 실적전망도 밝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1년 LA항의 총 수입TEU는 410만이었고, 이 중 주요 컨테이너 수입품목은 아래와 같다.

2011년 LA항 TEU기준 상위 5개 수입품목

제품	TEU
가구	392,278
자동차부품	376,117
의류	338,572
전자제품	237,807
신발	158,854

2011년 LA항의 총 수출TEU는 210만이었고, 이 중 주요 컨테이너 수입품목은 아래와 같다.

2011년 LA항 TEU기준 상위 5개 수출품목

제품	TEU
폐지	295,783
고철	233,035
동물사료	196,073
면	103,242
수지	83,979

LA항 상위 교역파트너 (단위: 십억달러)

• 중국	\$136 Billion
• 일본	\$ 41 Billion
• 한국	\$ 16 Billion
• 대만	\$ 13 Billion
• 베트남	\$ 9 Billion

LA항의 한국수입 상위 품목

2011년, 최대 한국수입품목은 컴퓨터 부품과 기계로 금액으로는 35억 달러에 달했으며, 전기기기, 전자컴포넌트, 전동차 및 부품이 그 뒤를 이어 총 26억 달러에 달하였다. 그 다음으로 많이 수입된 품목은 고무와 고무제품 (9억3100만 달러), 플라스틱과 플라스틱제품 (4억5000만 달러), 정유제품 (3억4700만 달러)이었다. 2010년 대비 가장 주목할 만한 품목은 총 86% 증가한 컴퓨터부품 및 기계류였다. 이외에도 주목할만한 기타 증가품목은 전동차 및 부품, 철강 및 철강제품이다.

LA항 상위10개 한국수입품목

품목	2011 (100만달러)	총 한국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컴퓨터, 주변기기, 기계, 가전 및 부품	3,520.2	32.9%
전기기기, TV 및 전자부품	1,519.7	14.2%
전동차 및 부품	1,083.9	10.1%
고무 및 고무제품	930.8	8.7%
플라스틱 및 플라스틱제품	449.8	4.2%
철/철강제품	380.6	3.6%
정유제품 및 천연가스	347.4	3.2%
철/철강제품	212.6	2.0%
광학, 사진, 의료/수술용 기기	199.4	1.9%
종이, 합판, 관련제품	161.6	1.5%
합계	8,806.2	82.3%

출처:U.S. Census Bureau, USA Trade Online

2011년 LA항의 TEU기준 한국수입제품 상위 품목에 세탁기, 냉장기기, 자동차 부품, 자동차/트럭 타이어가 포함된다.



LA항 상위10개 한국수입품목

순위	품목	2011 TEU	전체 10개 품목 중 차지하는 비율, %
1	세탁기	35,369	14.0%
2	냉장기기	35,190	13.9%
3	자동차부품	35,028	13.9%
4	자동차/트럭 타이어 및 튜브	20,840	8.3%
5	종이, 합판 (폐지 포함)	8,129	3.2%
6	전자/전자 제품 등	5,865	2.3%
7	EDP, 숫자, 주소 관련기기	5,319	2.1%
8	일반화물 등	4,948	2.0%
9	도어 및 부품	4,812	1.9%
10	플라스틱제품 등	3,534	1.4%
LA항 한국수입합계		252,367	100.0%

LA항의 한국수출

2011년 LA항을 거쳐 한국으로 수출된 최대 품목은 컴퓨터부품 및 기계였고, 그 다음은 철/철강이었다. 컴퓨터부품 및 기계가액은 약 5억8500만 달러였고, 철/철강은 약 5억1900만 달러였다. 또한 육류 및 육류제품, 플라스틱 및 플라스틱 제품이 그 뒤를 이었다.

2011년 상위 한국 수출품목상의 가장 큰 변화는 2010년 대비 4배 증가한 전동차 및 부품이었다.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는 LA항에서 취급되는 무역의 95%를 차지한다. 이는 LA항의 상위 5대 교역파트너가 중국, 일본, 한국, 대만, 베트남임을 통해 알 수 있다. 총 무역의 절대다수가 주로 중국에서 생산된 수입품이었다. 실제로 2011년 중국과의 양자간 무역이 총 1,359억 달러로 중국은 LA항 최대 교역파트너로 부상했으며, 일본과 한국이 각각 409억 달러, 162억 달러로 그 뒤를 이었다.

LA항 상위10개 한국수출품목

품목	2011 (100만 달러)	총 한국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율, %
컴퓨터, 주변기기, 기계, 가전 및 부품	584.5	10.7%
철/철강	518.6	9.5%
육류 및 육류제품	484.0	8.9%
플라스틱 및 플라스틱제품	348.1	6.4%
유기화학물	327.2	6.0%
전동차 및 부품	284.5	5.2%
생가죽, 스킨, 가죽	281.9	5.2%
면 (방적사, 직물포함)	227.4	4.2%
기타 화학제품	196.4	3.6%
전기기기, TV 및 전자부품	192.1	3.5%
합계	3,444.8	63.1%

출처: U.S. Census Bureau, USA Trade Online

2011년, LA항의 TEU기준 한국수출 상위품목에 종이 및 합판, 각종 고철, 애완동물 및 동물사료가 포함되었다.



LA항 상위10개 한국수출품목 (계속)

LA항 상위10개 한국수출품목

순위	품목	2011 TEU	전체 10개 품목 중 차지하는 비율, %
1	종이, 합판 (폐지 포함)	29,862	13.5%
2	각종고철	24,651	11.1%
3	애완동물, 동물사료	21,136	9.5%
4	일반화물 등	12,333	5.6%
5	육류 (신선, 냉동)	11,601	5.2%
6	금속고철, 철형, 선철	10,123	4.6%
7	식물 (원면포함)	7,948	3.6%
8	생가죽, 스킨, 모피	5,456	2.5%
9	자동차부품	5,032	2.3%
10	오렌지	4,566	2.1%
LA항 한국수출 합계		221,918	100.0%

롱비치항

롱비치항은 LA항과 인접하여 산페드로만에 위치해 있다. 롱비치항은 LA다운타운으로부터 20마일 떨어져 있으며 3,200에이커 면적에, 10개 부두, 80개 정박지와 66대 파나맥스 이상의 갠츨리크레인이 설치되어 있다. 롱비치항은 미국 내 두 번째로 붐비는 항구이다. 전세계 가장 붐비는 항구 중 18 위이며, 인접한 LA항과 합칠 경우 8위에 해당된다. 롱비치항은 2011년 610만 TEU를 취급하였고, 같은 해 총 화물가액은 1,550억 달러였다. 2011년 롱비치항에 도착한 선박은 4,898 대였으며, 취급한 총 화물 중량은 7,660만 MTR이었다. 2011년 롱비치항은 매일 평균 약 16,600 TEU를 취급하였다.

롱비치항 상위 5개 수입품목

- 원유
- 전자제품
- 플라스틱
- 가구
- 의류

롱비치항 상위 5개 수출품목

- 석유코크스
- 석유벌크
- 화학물
- 폐지
- 식품

롱비치항 상위 교역파트너

• 금액기준

- 중국 전체의 50.2%
- 일본 11.1%
- 한국 6.8%
- 호주 5.4%
- 대만 3.4%

• 중량기준

- 중국 (1위)
- 한국 (2위, 2010년에 일본을 제침)
- 일본 (3위)
- 대만 (4위)
- 베트남 (5위)





롱비치항의 한국수입 상위품목

2011년 한국에서 수입된 최대 수입품목은 컴퓨터 부품 및 기계로 금액으로는 13억 달러에 달했으며, 전기기기, 전자부품이 그 뒤를 이어 총 5억 8백만 달러에 달하였다. 그 다음으로 많이 수입된 품목으로는 자동차 및 부품 (4억6,200만 달러), 정유제품 (2억3백만 달러), 고무 및 고무제품 (1억6천만 달러)이었다. 2010년 대비 가장 주목할 만한 증가를 보인 품목은 철도 또는 전차선로물품과 교통신호장비였다. 이 외에도 기타 뚜렷한 증가품목은 각종 금속제품, 광학/의료/수술용 기기였다.

롱비치항 상위10개 한국수입품목

품목	2011 (100만달러)	총 한국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컴퓨터, 주변기기, 기계, 가전 및 부품	1,304.7	37.8%
전기기기, TV 및 전자부품	508.4	14.7%
전동차 및 부품	462.2	13.4%
정유제품, 천연가스	202.8	5.9%
고무 및 고무제품	160.1	4.6%
플라스틱 및 플라스틱제품	129.4	3.7%
철/철강제품	92.4	2.7%
광학, 사진, 의료/수술용 기기	73.2	2.1%
기타 금속제품	67.3	2.0%
철도 또는 전차선로물품, 교통신호장비	59.2	1.7%
상위 10개 품목 합계	3,059.8	88.7%

출처: U.S. Census Bureau, USA Trade Online

2011년, 롱비치항의 TEU기준 한국수입 상위 품목에 자동차 부품, 세탁기, 냉장고, 자동차/트럭 타이어가 포함된다.

롱비치항 상위10개 한국수입품목

순위	품목	2011 TEU	전체 10개 품목 중 차지하는 비율, %
1	자동차부품	20,075	12.2%
2	세탁기	19,017	11.6%
3	냉장기기	18,066	11.0%
4	자동차/트럭 타이어 및 튜브	17,681	10.7%
5	EDP, 숫자, 주소 관련기기	6,413	3.9%
6	전자/전자 제품 등	5,399	3.3%
7	합성수지 및 플라스틱	3,991	2.4%
8	직물 (원면포함)	3,116	1.9%
9	TV장비	2,975	1.8%
10	종이, 합판 (폐지 포함)	2,888	1.8%
	롱비치항 한국수입 합계	164,520	100.0%



롱비치항의 한국수출 상위품목

2011년 LA항을 거쳐 한국으로 수출된 최대 품목은 컴퓨터부품 및 기계였고, 그 다음은 전기기기 및 전자부품이었다. 금액기준으로 컴퓨터부품 및 기계는 약 3억5,700만 달러였고, 전기기기 및 전자부품은 약 2억8,800만 달러였다. 이어 육류 및 육류제품, 각종 화학제품이 그 뒤를 이었다. 2010년에서 2011년까지 상위 6개 수출품목이 총 50% 이상 하락하였다. 가장 큰 수출 성장을 보인 산업은 면, 항공기/우주항공기 산업이었다. 면, 방적사, 직물 수출은 119% 성장했고, 항공기/우주항공기/부품은 21% 증가하였다.

롱비치항 상위10개 한국수출품목

품목	2011 (100만달러)	총 한국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컴퓨터, 주변기기, 기계, 가전 및 부품	356.5	11.9%
전기기기, TV 및 전자부품	287.6	9.6%
육류 및 육류제품	215.5	7.2%
각종 화학제품	137.5	4.6%
면 (방적사 및 직물포함)	133.2	4.4%
플라스틱 및 플라스틱제품	119.1	4.0%
항공기, 우주항공기, 부품	106.4	3.6%
과일, 너트	103.3	3.5%
철,철강	90.2	3.0%
전동차 및 부품	88.7	3.0%
합계	1,637.9	54.7%

출처: U.S. Census Bureau, USA Trade Online

2011년 롱비치항 TEU기준 한국으로 수출하는 수출 상위품목으로 각종 고철, 종이/합판, 애완동물 및 동물 사료가 포함되었다.

POLB TOP TEN EXPORT COMMODITIES TO KOREA

순위	품목	2011 TEU	전체 10개 품목 중 차지하는 비율, %
1	각종고철	8,883	11.9%
2	종이, 합판 (폐지 포함)	8,275	11.1%
3	애완동물 및 동물사료	6,153	8.2%
4	육류 (신선, 냉동)	4,622	6.2%
5	기타 화학물	2,700	3.6%
6	오렌지	2,180	2.9%
7	식료품류	2,041	2.7%
8	직물 (원면포함)	2,009	2.7%
9	붕산, 염산	1,929	2.6%
10	일반화물 등	1,744	2.3%
	롱비치항 한국수출 합계	74,591	100.0%



LA 국제공항 (LOS ANGELES INTERNATIONAL AIRPORT, LAX)

LA 세계공항 (LA World Airports)은 LA시 산하기관으로 LA 국제공항을 소유 및 운영한다. LA국제공항은 의료기기, 전자, 변질성 물품 등 고가제품을 취급하고, LA 카운티 국제무역의 또 하나의 핵심연결고리라고 할 수 있다. 국제공항은 43개 국제항공사와 두 개 한국항공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를 포함해 모든 주요 항공기가 취항하고 있다. LA국제공항은 한국 및 환태평양지역과의 화물유통중심지가 되었다. LA국제공항은 2011년 170만 미터톤의 항공화물을 취급하여 전세계적으로 13번째로 분주한 화물공항이었다. 또한, 2011년 여객 6,180만 명을 취급하여 여객수송에서 6번째로 분주한 공항이기도 하였다 (2009년 7위로 한 계단 내려간 후 2010년과 2011년에 6위를 고수하였다). LAX는 세계에서 가장 분주한 출발/도착공항이다.

LA국제공항의 최대 교역파트너는 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 연간 450억 달러를 초과하는 582,283톤 화물을 취급하였다. 매일 화물 운송용 항공기 1,000편 이상이 LAX에 도착 및 출발한다. 이 중 50% 이상이 국제항공이다. LA지역 항공화물의 약 80%가 LAX에서 취급된다. LAX는 6,500만 달러 이상의 수출입 화물을 담당하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포함한 모든 아시아 및 환태평양지역 항공사가 이곳을 이용한다.

LA국제공항 상위 5개 수입품목

- 컴퓨터기기
- 전자
- 진주, 보석
- 광학기기
- 의류

LA국제공항 상위 5개 수출품목

- 전자
- 항공기, 항공기부품
- 광학기기
- 컴퓨터기기
- 의약품

LA국제공항 상위 교역파트너 (수출입포함)

1. 중국 전체의 19.2%
2. 일본 11.1%
3. 한국 6.0%
4. 인도 5.7%
5. 독일 5.2%

LA국제공항의 한국 수입 상위품목

2011년 한국에서 수입된 최대수입품목은 전기기기, 전자컴포넌트로 금액으로는 8억100만 달러에 달했으며, 그 뒤를 이어 컴퓨터 부품 및 기계가 총 2억 12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그 다음으로 많이 수입된 품목은 광학의료기기 (8,100만 달러 이상), 특수분류품목 (수출반품, 기부물품, 군인의류 등) (7,500만 달러 이상), 금속도구/날붙이류/부품 (약 900만 달러)이었다.

LA국제공항 상위10개 한국 수입품목

품목	2011 (100만 달러)	총 한국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율, %
전기기기, TV 및 전자부품	801.1	63.2%
컴퓨터, 주변기기, 기계, 가전 및 부품	212.0	16.7%
광학, 사진, 의료/수술용 기기	81.3	6.4%
특수분류품목	75.3	5.9%
금속도구/날붙이류/부품	8.8	0.7%
장난감, 게임, 스포츠기기	7.2	0.6%
플라스틱 및 플라스틱제품	7.1	0.6%
각종화학제품	6.7	0.5%
어류, 갑각류, 수생무척추류	6.6	0.5%
실크 (방직사, 방직사직물 포함)	5.5	0.4%
합계	1,211.6	95.7%

출처: U.S. Census Bureau, USA Trade Online





LA국제공항의 한국 수출 상위품목

2011년 LA국제공항을 거쳐 한국으로 수출된 최대 품목은 전기기기와 전자부품이었고, 그 뒤를 이은 품목은 컴퓨터부품과 기계였다. 금액기준으로 전기기기와 전자부품은 약 6억1,400만 달러에 달했고, 컴퓨터부품과 기계는 약 4억8,200만 달러였다. 항공기 및 부품, 광학 및 의료 기기, 특수분류품목이 그 뒤를 이었다.



LA국제공항 상위10개 한국수출품목

품목	2011 (100만 달러)	총 한국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율, %
전기기기, TV 및 전자부품	613.9	24.9%
컴퓨터, 주변기기, 기계, 가전 및 부품	482.2	19.6%
항공기, 우주항공기 및 부품	388.5	15.8%
광학, 사진, 의료/수술용 기기	345.3	14.0%
특수분류품목	63.7	2.6%
유기화합물	41.5	1.7%
각종화학제품	41.1	1.7%
각종조식식품	40.6	1.7%
무기, 탄약	34.8	1.4%
의약품	28.3	1.1%
합계	2,079.8	84.5%

출처: U.S. Census Bureau, USA Trade Online

인천국제공항 (ICN)

ICN은 한국 최대공항이며, 세계 최대 공항 중 하나이다. ICN은 서울에서 서쪽으로 43마일 (70km)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폴라에어카고 (Polar Air Cargo)의 허브공항이다. ICN은 국제공항협회(Airports Council International)가 7년 연속 최고의 국제공항으로 선정하였다. ICN은 동아시아 국제 민간여객수송과 화물수송의 허브로 부상하였다.

ICN은 한국문화박물관, 개인 취침실, 골프장, 스파, 아이스 스케이트장, 카지노, 실내정원이 구비되어 있다. ICN은 홍콩 국제공항, 싱가포르 창이공항 (Changi Airport)과 함께 Skytrax 5성급 등급을 획득하는 영광을 안았다. 이 외에도 IATA, ACI, Skytrax로 부터 베스트공항상 (Best Airport Award)을 수상한 바 있으며, 공항 서비스 품질 어워드 (Airport Service Quality Awards)에서 세계 베스트공항으로 선정되었다.

LAX와 한국 (인천국제공항)

LAX와 ICN - 대한항공 (KAL)과 아시아나항공 (AAR)은 매일 총 4개 직항편을 운행한다. 이 두 항공사는 2011년 총 국제여객의 6%이상, 총 국제항공화물의 8.5% 이상을 취급하였다. 2011년 이 두 항공사를 통해 한국에 입출국한 승객은 총 1백만 명이상이었다. 이 중 대한항공은 LAX를 통해 더 많은 승객을 취급하였다. 또한 대한항공은 중량기준 최대 항공화물을 취급하였다. 이 외에 LA와 서울인천을 매일 취항하는 항공사로 아메리칸, 델타, 싱가포르, 유나이티드 항공이 있다.



한미자유무역협정 (KORUS FTA)

미국과 한국은 본래 2007년 6월 30일 한미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다. 2009년 미국 오바마행정부는 한국 정부와 논쟁이 되는 핵심 이슈들을 해결하기 미 무역대표부에 양자간 협상 개시를 지시하였다. FTA에 반대하는 측은 주로 자동차, 농업, 자동차/농업 노조였다. 이들은 FTA가 미국기업에 새로운 한국시장접근을 충분히 제공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2010년 12월, 이 같은 핵심 우려사항들을 해결하고자 추가 합의가 도출되었고, 그 결과 양당사자에게 만족스러운 FTA가 통과되었다. 마지막으로, 2011년 10월 12일, 미의회가 이를 통과시켰으며 2011년 11월, 한국국회 또한 이 협정을 통과시켰고 미 오바마 대통령과 한국 이명박 대통령이 이에 서명하였다.

새로운 FTA에 따라, FTA 시행일 (2012년 3월 15일) 후 3년~5년 내에 소비자 및 산업제품 중 95% 이상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고, 소비자 및 산업제품 중 약 80%가 즉시 면세대상이 된다. 대부분의 추가관세가 10년 이내에 철폐된다. 협정에 참여한 협상당사자들은 한국에 대한 미국수출이 관세철폐만으로 매년 약 110억 달러씩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FTA는 기존의 비관세장벽을 허물고, 미래의 비관세장벽 출현을 막을 것이다.

다음으로 한미FTA는 미국 상품과 서비스에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상품의 경우, FTA는 세계 제 12대 경제국인 한국의 중산층 소비자들이 미국산 제품에 지갑을 열도록 할 것이다. 서비스측면에서 5,800억 달러 규모의 한국 서비스 시장이 미국기업에 개방될 것이다. 특히, 많은 산업부문들 (농업, 우주항공, 자동차, 교육, 전자, 의료보건, 의료, 금속, 교통, 텔레콤 등)이 큰 수혜를 입을 것이다. 이 산업부문들 중 대다수가 LA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FTA 발효로 향후 많은 이득이 예상된다. 한미FTA가 미국제조업에 많은 기회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미국 제조업의 수도가 바로 LA 카운티이다.

결국, LACD에는 본 협정의 커다란 수혜가 기대될 것이다. 한미무역 중 다수가 LACD (LA항 및 롱비치항)를 통해 이루어진다. 총 상품금액 기준으로, LACD는 한미 총 무역의 약 30%를 차지한다.

한미FTA가 중요한 이유

1. 1994년 NAFTA 발효 이래로 상업적으로 가장 중요한 FTA이다
2. 미국 경제는 고용창출이 필요하며, 수출은 (특히 아시아와) 우리의 경제 미래를 결정지을 핵심 요소이다. 본 FTA는 2014년까지 미국 수출 2배 증가를 목표로 하는 오바마 대통령의 국가수출이니셔티브 (NEI)를 지원한다.
3. 한미 양국에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한다.
4. 한미 양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한다.
5. 매우 중요한 시기에 지리적으로 전략적인 동맹관계를 강화시키고, 한미경제 통합을 더욱 증진시킨다.
6. 아시아 특히 일본, 중국 등의 향후 협정 가능성을 높이는 선례가 될 것이다. 이는 미국경제 방향을 크게 선회시킬 것이다.

무역과 미국경제

- 미국의 약 600만개 일자리가 국제무역과 직접 관련된다.
- 수출은 미국 GDP의 약 11%를 차지하고, 수출 비중 증가가 목표이다. 수출은 대공황 이후 경제발전의 두 번째로 큰 기여를 해왔다.
- 수출이 미국의 미래 경제성장에 가지는 중요성
- 전세계 소비자의 95%가 미국 국외에 거주한다.

FTA가 왜 중요한가?

- 모든 소비자 및 공업제품의 약 95%가 5년 내 무관세 대상이 되고, 거의 100%가 10년 내 무관세 대상이 된다
- 미국의 한국수출에 부과되는 관세는 평균 11.2%였다
- 미국 수출 공산품에 대한 관세는 평균 6.2%였다
- 미국 수출 농산물에 대한 관세는 평균 52%였다
- 5,800억 달러 규모의 한국 서비스시장이 미국기업에 개방된다



한국-LACD 무역관계의 새시대

한미FTA가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한미FTA로 무역량 증대가 기대되는 가운데, 최대 수혜지는 LA항과 롱비치항이 될 것이다. 한미무역 대부분이 LA항과 롱비치항에서 취급되고 TEU 기준으로 볼 때 한국은 이 두 항구의 제 2대 교역파트너이다. LACD와 한국간 총 무역액은 한미무역의 약 30%에 육박하고, 한국은 LACD의 최대 교역파트너이며, LACD는 미국세관지역 중 한국의 최대 교역파트너이다. 항구활동 증가 외에, 무역관련 산업/부문에 대한 혜택이 기대된다.

FTA는 IT에서 기계, 전기기기, 화학, 쇠고기, 의료장비, 항공기엔진 및 부품, 면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LACD 상위 수출품목의 수출을 증가시킬 것이다. 관세장벽 철폐는 지역 무역부문에 극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예를 들어, 과거 수년 동안 한국정부의 비관세장벽 완화로 미국 쇠고기 수출이 급증하였고, 미국 쇠고기 수출 중 60%가 LACD의 항구들을 거쳐 수출되므로 LACD가 주요 수혜자가 되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FTA는 영화, 소프트웨어, 음악, 비디오에 대한 지적재산권보호 강화 및 이행을 통해 지역의 엔터테인먼트산업에 혜택을 주게 된다. 또한, LA 카운티가 미국 제조업의 수도임을 감안할 때, 본 협정은 제조업수출 (특히 기계, 장비류)에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FTA로 많은 비관세장벽이 철폐됨에 따라, (금융, 회계, 법률 등) 지역의 전문서비스와 비즈니스서비스 산업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한미 FTA는 미국이 아시아 주요 경제국과 체결한 첫 번째 자유무역협정이다. 이는 미국이 (우리의 제 2대 교역파트너인) 일본을 포함한 9개 태평양 국가들과 보다 큰 포괄적 무역협정인 환태평양전략적경제동반자 협정 (Trans-Pacific Partnership, TPP)을 체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LA 카운티의 상위 5대 교역파트너가 동참할 것으로 예상되는 TPP 체결은 미국 내 그 어느 지역보다 우리 지역의 경제에 더 많은 혜택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미FTA 수혜가 예상되는 주요상품

관세즉시철폐 대상품목:

자동차부품

- 브레이크 패드 (기존 관세율: 2.5%)
- 냉간단조 부품 (기존 관세율: 0-2.5%)
- 엔진블럭/피스톤 (기존 관세율: 0-2.5%)
- 볼트/너트 (기존 관세율: 5.75%-12.5%)

섬유

- 폴리에스터 섬유 (기존 관세율: 4.3%)
- 자동차 매트 (기존 관세율: 6.7%)

기계

- 볼 베어링 (기존 관세율: 9.0%)
- 펌프 (기존 관세율: 2.5%)

전자

- 터치스크린모니터 (기존 관세율: 2.7%)

석유화학

- 에폭시 수지 (기존 관세율: 6.1%)

정부조달

- 리튬 배터리 (기존 관세율: 2.7%)

LACD 상위수출품목 관련 관세철폐일정

상품	기존 관세	한미FTA 관세철폐일정
반도체 제조기기	0-8%	즉시
전기기기	0-13%	96% 즉시, 나머지는 3년 이내
화학물	0-50%	50%이상 즉시, 나머지는 3년-10년 이내
농산물 (쇠고기)	0-40%	66% 즉시, 나머지는 10년 이내
의료기기	0-50%	43% 즉시, 나머지는 3년 이내
우주항공	0-8%	92%이상 즉시, 나머지는 3년 이내



EU는 2011년 7월 1일부터 2012년 3월 15일까지 상당한 경쟁우위를 가졌다- 그러나 더 이상 그렇지 않다

상품	기존 미국관세	EU평균관세 (7월1일부터)
전기기기	7.4%	0.2%, 7%이상의 우위
화학물	6.1%	0.7%, 5%이상의 우위
의료기기	5.4%	1.0%, 4%이상의 우위
우주항공	3.5%	0.3%, 3%이상의 우위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한미FTA HELP 데스크 및 지적재산권 (IP) 데스크

KOTRA LA의 한미 FTA Help 데스크는 자유무역협정과 그 혜택에 관한 최신정보와 전문 비즈니스 컨설팅을 제공한다. KOTRA 산업전문가와 대외수출 자문관들이 한미 FTA 관련 일반정보, 반덤핑관세, 원산지규정, 원산지증명, 세미나, 워크샵, 정부등록 및 규정, 업계표준, 인증, 관세, 세관, 법률컨설팅, 회계, 금융시장, 국제무역, 의류 및 직물, 자동차부품, IT, 과학기술, 녹색산업, 미디어 등 모든 문의에 도움을 준다.

KOTRA LA IP 데스크는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 출원 및 등록 절차에 관한 법률 정보를 제공하고, 지적재산권침해 대처방안, 손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KOTRA는 일정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출원인에 대해 지적재산권 출원수수료 일부를 지원하기도 한다.

유용한 한미 FTA 관련 웹사이트

미국무역대표부 (Office of the U.S. Trade Representative):
<http://www.ustr.gov/trade-agreements/free-trade-agreements/korus-fta>

FTA Tariff Tool:
<http://export.gov/fta/ftatarifftool/ftamain.aspx>

U.S. Korea Connect:
www.uskoreaconnect.org

FTA 시대의 한국 무역방법 - 단계별 가이드:
<http://www.uskoreaconnect.org/facts-figures/issues-answers/trade-with-korea-under.html>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KOTRA):
www.kotrala.com



4장 • 투자 관계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미 상무부 경제분석국 (U.S. Bureau of Economic Analysis, BEA)은 해외직접투자 (FDI)를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직·간접적으로 미국 법인기업 주식 총수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또는 비법인 기업에 대해 이에 상응하는 이해관계를 갖는 것”으로 정의한다. FDI는 일반적으로 1) 신설투자 (Greenfield Investment)와 2) 인수합병 (M&A)으로 나뉜다. 신설투자는 새로운 시설에 직접 투자 또는 기존 시설을 확장하는 것이다. 인수합병은 기존기업을 매입하는 것이다.

경제역사에 비추어 볼 때, 국가 개발 및 무역 증대에 따라 해외 투자도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강력한 경제성장으로 저축률이 증가하고, 그 결과 국가는 해외투자 여력이 생긴다. 한국은 이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한국의 성공적인 수출 주도 전략은 (주로 1997년 아시아금융위기 후) 상당한 해외투자로 이어졌다. 한국과 미국은 먼저 긴밀한 무역관계를 수립

하고, 상호 투자를 시작하였다. 한국은 1970년대와 1980년대 대미 수출(주로 자동차)을 시작하였고 과거 20-30년간 수출 증대가 가속화되었다. 미국에 대한 한국의 FDI는 1980년대 시작되었고 1997년 금융위기 후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한국은 미국 캘리포니아 특히, LA 카운티에 상당한 규모의 투자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과 FDI유입

FDI into Korea

한국경제는 1997년 아시아금융위기까지 해외직접투자 유입을 제한하였다. 한국은 1960년대부터 1980년 후반 및 1990년대 초반에 이르기까지 자국 경제개발에 필요한 투자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해외차관에 크게 의존하였다. 실제로 한국은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FDI가 아닌 해외차관으로 재원을 조달하였다. 1962년부터 1986년까지 FDI는 한국 총 누적 외국인자본의 4%에 불과하였다.

이 같은 양상은 1997년 금융위기 후 한국경제가 세계화 및 세계경제로의 통합에 대한 관점을 바꾸면서 크게 바뀌었다. 금융시장이 안정화되고 견실한 수출 증가가 계속되자 해외투자가 유입되기 시작하였다. 한국은 수출지향 성장 모델을 지양하고 FDI지향 성장 모델을 채택하였다. 최근 한국 국회의 한미 FTA 통과를 한국의 경제 변화 노력을 더욱 극명히 보여준다. 한국은 개방 시장경제 구현을 위해 수 많은 장애물들을 극복해왔다. 한국은 한미 FTA 통과로 이 목표 실현에 한걸음 더 다가가게 되었다.

“최근 국회의 한미 FTA 통과는 한국의 경제 변화 노력을 더욱 극명히 보여준다.”

1990년 한국의 FDI는 GDP의 2%에 불과하였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치 중 하나이며, 세계 평균 및 개발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1990년에서 2006년까지 FDI는 2%에서 8%로 증가하였고, 총 투자금액도 50억 달러에서 700억 달러로 증가했다. 정부는 인센티브 제공과 규제개혁 실행을 통해 포괄적인 FDI 유치 전략에 착수하였다.

금융위기 후 4년간 (1998년-2001년), 한국은 약 520억 달러의 FDI를 유치하였다. 이는 이전 4년간 유치한 금액의 두 배에 달한다. 2002년 한국정부는 한국을 지식기반경제 및 동북아시아 내 국제비즈니스센터로 탈바꿈하기 위해 기념비적인 전략을 발표하였다. 한국은 기술혁신리더로 성장하였고, 그 결과, 세계무역에서 자국의 비교우위를 극대화할 수 있었다.

1990년 후반 이후 성장기간 동안 전자 및 화학부문이 주도한 제조산업은 최대투자금액을 유치하였다.

한국은 자유경제지역 (FEZ) 축진을 통해 매우 공격적인 추가 FDI 유치 전략을 추구하였다.

6개 FEZ는 아래와 같다.

1. 인천 (2020년 완료예정)
2. 부산/진해 (2020년 완료예정)
3. 광양만 (2020년 완료예정)
4. 황해 (2020년 완료예정)
5. 대구/경북 (2020년 완료예정)
6. 새만금/군산 (2020년 완료예정)

자유경제지역은 제조, 바이오테크, 항공, 물류, 서비스, 기타 산업 클러스터뿐 아니라 국제학교, 레크리에이션, 국제병원 등을 갖춘 생활 및 근무 환경 조성에 역점을 둔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최근 몇 년간 한국정부는 우호적인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취지의 법안들을 통과시키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한국은 다양한 FDI 유치 프로그램 및 자원들을 제공한다. 여기에는 6개 외국인 전용 산업단지, 4개 자유무역지역, 7개 외국인투자지역이 포함된다. (한국투자 관련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의 비즈니스환경 (Doing Business in Korea)와 Invest Korea 홈페이지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한국의 FDI 유출

1980년대 이후 한국은 해외 프로젝트에 투자하기 시작하였다. 1990년은 연간 FDI가 10억 달러를 달성한 첫 해이며, 그 후 FDI 유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2006년 한국 FDI는 100억 달러를 초과하였다. 초기 한국은 선진경제국 프로젝트에 투자하였다. 미국은 특히 1980년대와 1990년대 초기 한국의 최대 투자대상국이었다. 특히, LA 지역은 한국투자 중심지 중 하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한국 FDI는 동남아, 중국 본토로 이동하기 시작하였다. 과거 20년 동안 중국에 대한 한국 FDI 규모는 크게 증가하여 2002년에는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최대 FDI 수취국이 되었다. (1988년부터 2002년까지) 단 14년 만에, 중국에 대한 한국 FDI는 10,000 달러에서 약 10억달러로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한국 FDI 유출의 2/3는 제조업에 집중되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중국은 한국 FDI의 최대 수취국이었다. 그러나, 과거 1년간 중국은 그 지위를 잃게 되었다. 중국의 세금혜택 감소와 노동비용 증가로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역내 다른 국가들이 중국보다 매력적인 투자처로 급부상하였다.

2010년 FDI 유출

한국은 (기존의 11위에서) 2010년 세계 6위 글로벌 자본 투자국이 되었고, 세계 5위 해외고용 창출국이 되었다. 또한, 한국의 해외 프로젝트가 12.5% 증가하였다. 한편, 자본 투자가 36% 증가하고, 고용창출은 50% 급등하였다. 가장 빠른 성장 분야는 전자, 자동차, 플라스틱이었다. 한국 기업들은 2010년 106,000개 이상의 해외 고용을 창출하였다. 실제로, 한국에 본사를 둔 기업들이 세계 그 어느 도시보다도 더 많은 해외 고용을 창출하였다. 이는 171개 프로젝트와 약 320억 달러 자본투자의 결과였다 (세계 3위).

한미 FDI

미국은 한국에 대한 최대 투자국으로 한국 유입 FDI의 15% 이상을 차지한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한국에 대한 미국의 FDI는 17억 달러에서 19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그 중 대부분이 도매무역, 소매무역, 금융서비스, 전자에 집중되었다.

미국에 대한 한국의 FDI는 2006년에서 2008년까지 상당히 증가하였다. 실제로 미국에 유입된 총 FDI는 2006년 22억 달러에서 2008년 62.6억 달러로 상승하였다. 그러나, 2009년 금융경제위기의 직접적인 결과로 글로벌 FDI 흐름이 크게 악화된 가운데 미국에 대한 한국 FDI도 크게 하락하였다. 미국 및 한국에 대한 FDI는 약 40% 가량 하락하였다. 2010년 미국에 대한 한국의 FDI는 총 35억 달러로 다시 하락하였다. 미국은 한국 FDI의 최대 수취국이다. 이 같은 투자는 대부분 광업, 제조업, 도소매 무역, 금융서비스에 집중되었다.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삼성, LG, 현대 등의 대규모 투자를 포함, 한국은 150개 이상 신설투자 (Greenfield)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미국에 대한 한국의 직접투자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향후에도 신설투자자와 인수합병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과거 20년간, 한국의 해외 투자는 주로 신설투자 형태를 띠었다. LAEDC 연구에 따르면, 한국은 LA 카운티에 투자한 주요 FDI 국가들 중 하나이다. 최근 한국은 남부캘리포니아 진출을 더욱 확대해왔고, 이 같은 추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투자 재원의 대부분이 아래 지역에서 기원했거나 기원하고 있다.

- 서울- 한국의 수도, 최대 경제규모- GDP의 20% 이상 차지- 한국 상업 및 산업의 중심- 대부분의 한국 재벌 본사가 위치
- 경기도- 경제활동인구, 공장, 국제무역량 1위, 대기업 2위-글로벌 IT 허브, 자동차 및 녹색산업 중심지
- 부산- 한국 제 2대 도시- 한국 최대항 위치, 부산-진해 자유경제지역
- 경상남도- 한국 제 3대 경제권
- 경상북도- 한국 제 4대 경제권- 최대 전자산업단지 보유

미국과 캘리포니아 유입 FDI

미국과 캘리포니아는 전반적으로 FDI 유치에 성공적이었다. 그러나, FDI를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해외기업들이 해외계열사 순자산에 대해 보유한 지분과 해외계열사에 대해 제공한 채무 합계 금액을 가리키는 FDI 잔액 (Stock)의 경우, 미국은 2009년-2010년 2.4조 달러 (예, 미국 기업에 대한 FDI 잔액)로 세계 1위였으며, 중국 (홍콩



포함, 1.4조 달러), 프랑스 (1.2조 달러), 영국 (1.0조 달러)가 그 뒤를 이었다.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신규해외직접투자의 경우, BRIC 그룹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등 신흥국가 및 베트남이 북미, 유럽과 대등한 수준을 이루고 있다. 많은 개발국가들이 최근 자국 내 FDI 잔액에서 인상적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예, 2001년 이후 BRIC 국가들의 경우 100%이상 증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산업국가들 (특히 EU)이 자국의 부유한 소비자 층과 제1세계 법률 및 투자보호에 힘입어 세계 FDI유치 잔액에서 가장 높은 증가를 보였다.

많은 국가들이 분명한 신규FDI 유치 전략을 개발하고 있다. 선진산업국가들 (및 선진국 내 지역들)은 현재 자신의 우호적인 지위에 만족해서는 안될 것이다.

미국의 경우, 캘리포니아는 모든 측면에서 FDI 최대 수취지역이다. 그러나, 빠른 FDI증가가 미국 타 지역에서 감지되고 있다. 캘리포니아 내 은행을 제외한 모든 계열사들의 총 부동산, 공장 및 장비 수준이 1999년-2005년간 10.7% 증가한 1,240억을 기록했고, 동 기간 동안 미국전역의 성장률은 20.6%였다.

글로벌기업의 미국자회사가 미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 **고용 및 연봉**
 - 미국 내 5,600만 개 일자리 창출
 - 연봉 약 4,100억 달러
- **평균연봉 73,000 달러 이상 (미국기업대비 33% 높음)**
- **제조업**
 - 전체 고용의 약 40%가 제조업분야
 - 미국 내 전체 제조업 고용의 13%에 해당
- **수출**
 - 미국 수출의 약 20% 차지
- **연구개발 (R&D)**
 - 400억 달러 이상 지출
- **세금**
 - 법인세 약 400억 달러 납부 (전체 법인세수의 약 20%에 해당)
- **총 미국FDI의 98%는 민간부문 글로벌기업에 의한 것이다**

LA 카운티 FDI 유입

LA는 항상 주요 FDI 목적지였다. FDI는 신기술, 자본, 기술력, 외국과의 유대, 신규 고용 창출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킨다. 국가 및 주 단위의 FDI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졌다지만, LA 카운티 내 FDI 관련한 정부공식데이터는 찾아볼 수 없다.

LA 카운티는 전세계 국가들로부터 투자자본을 유치한다. LAEDC FDI 데이터베이스에는 총 4,521개 해외법인 및 외자계 기업들이 등록되어 있으며, LA 카운티는 이 중 2,130개 기업들 (47.1%)에게 제1 소재지 (Primary Location), 2,391개 기업들(52.9%)에게 제2 소재지 (Secondary Location)가 된다. LA 카운티 내 해외법인 및 외자계 기업들은 4,521개로 이는 LA주 소재 13,969개 해외법인 중 1/3에 약간 못 미치는 수치 (32.4%)이다.

LA 카운티의 해외법인 및 외자계 기업들 중 거의 절반 (48.5%)은 모기업이 유럽에 소재한다. 이 외 1,948개 기업들(43.1%)는 모기업이 아시아기업이다. 한편, 335개 기업들은 (7.4%) 캐나다 또는 멕시코에 모기업이 있으며, 27개 (0.6%)는 중동 또는 아프리카에, 17개 (0.4%)는 라틴 아메리카 또는 카리브해에 모기업을 두고 있다.



한국기업들의 해외 투자산업분야

- 제조업
- 도소매무역
- 금융서비스

일본은 LA 카운티 내에 1,413개 해외법인 및 외자계 기업들을 두고 있어 전체 중 31.3%를 차지, 단일국가로서 LA 카운티 FDI에서 1위를 차지한다. 영국이 794개 기업으로 2위를 차지하고, 프랑스와 독일이 각각 360개, 334개로 큰 격차를 두고 그 뒤를 잇고 있다. 캐나다는 278개 기업으로 5위를 차지한다. “2차 5대” 국가그룹 중 3개국은 총 515개 기업을 둔 유럽국가들-스위스, 이탈리아, 네델란드-이고, 2개국은 총 236개 기업을 둔 아시아국가-대만, 호주-이다.



LA 카운티 FDI 유치(계속)

LA 카운티의 해외법인 및 외자계 기업들은 몇 개 산업부문에 속해 있다. 가장 많은 부문은 소매무역 (총 981개 기업, 전체 해외법인 및 외자계 기업 중 21.7%)이고, 도매무역 (총 930개 기업, 전체 해외법인 및 외자계 기업 중 20.6%)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이 중 도매무역 범주에는 수출입 활동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LA 카운티에 두 개 주요 항구인 롱비치항과 LA항이 위치한다는 점을 반영한다.

그 뒤를 이어, 제조업이 3위로 총 608개 기업이 전체 중 13.4%를 차지한다. 많은 해외소유의 은행 및 보험사들 (481개 법인, 10.6%) 또한 다양한 인증배경과 산업기반, 국제거래에 대한 금융조달 기회를 제공하는 LA 카운티에서 운영되고 있다.

LA 카운티는 최다 해외법인 및 외자계 기업 (총 1,591개)을 유치하고 있으며, 그 뒤를 토랜스(310개), 롱비치(212개), 산타모니카(134개), 패서디나(127개), 시티오브인더스트리(City of Industry)(118개)가 잇고 있다.

전체 기업 대비 해외법인 및 외자계 기업 비율에서, 카슨 (Carson)과 엘 세군도 (El Segundo)가 공동 1위 (6.6%)를 차지하고, 그 뒤를 시티오브인더스트리 (City of Industry) (5.2%), 콤프톤 (Compton)(4.8%), 산타페 스프링스 (Santa Fe Springs)(4.5%)가 따르고 있다.

한국FDI의 LA 카운티 유입

총 89개 한국 해외법인 및 외자계 기업들이 LA 카운티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73개는 제1 소재지(Primary Location)로, 16개는 제2 소재지(Secondary Location)로 LA 카운티에 진출해있다. 한국소유기업들이 속한 최대 산업분야는 총 50개 기업이 진출한 도매무역이고, 운송 및 창고업 (총 16개)가 그 뒤를 잇고 있다.

부문	제1 소재지 (Primary Location)	제2 소재지 (Secondary Location)	총 기업 수	전체 중 차지하는 비율, %
도매무역	41	9	50	56.2%
운송 및 창고업	12	4	16	16.4%
기타	20	3	23	27.4%
합계	73	16	89	100.0%

다. 전국 비율은 1.8%이다.

LA 카운티의 해외법인 및 외자계 기업인들은 136,000개 일자리와 76억 달러 임금을 창출한다. 이들 기업 종업원들의 평균임금 (56,000 달러)은 전체 기업 임금 평균을 상회한다 (47,000 달러).

LA 카운티의 고용 및 임금의 경우, 유럽이 63,500개 일자리와 37억 달러 임금 창출로 가장 많은 기여를 하는 직접투자국이다. 아시아-오세아니아가 62,000개 일자리와 33억 달러 임금 창출로 2위를 차지한다.

LA시에서 가장 많은 해외법인 및 외자계 기업이 속한 산업은 소매무역 (총 369개)이고, 그 뒤를 도매무역 (총 226개), 금융 및 보험 (총 223개), 제조업 (총 178개)이 잇고 있다. 소매무역을 구성하는 업종은 식당에서 의류, 주유소까지 매우 다양하다.

LA시 해외법인 및 외자계 기업들은 51,900개 일자리와 28억 달러 임금을 창출한다. 이 중 일본이 16,200개 일자리와 7억9,200만 달러 임금을 창출로 가장 많은 기여를 하는 투자국이며, 프랑스가 10,000개 일자리와 5억8,300만 달러 임금 창출로 2위, 영국이 7,200개 일자리와 4억2,200만 달러 임금을 창출로 3위를 차지한다.



KOREAN-OWNED ESTABLISHMENTS BY DETAILED INDUSTRY

산업	총 기업 수	전체 중 차지하는 비율, %
도매무역상, 내구재	38	42.7%
도매무역상, 비내구재	12	13.5%
기타	39	43.8%
합계	89	100.0%

출처: LA 카운티 경제개발공사 (LAEDC) FDI 보고서

도매무역에서 주요 세부산업은 내구재 (특히 자동차, 소비자가전) 도매무역상점 및 비내구재 도매무역상점이다.

LA 카운티에 진출한 주요 한국기업은 전자기업인 삼성과 운송기업인 한진해운, 대한항공 (양사 모두 한진그룹 계열)이다.

LA시는 가장 많은 (총 45개) 한국 해외법인 및 외자계 기업들이 진출한 지역이고, 그 뒤를 토랜스 등이 잇고 있다. (코리아타운 포함) LA지역은 미국시장에 진출하는 한국기업들에게 핵심 상업중심지 중 하나가 되었다. 이는 한국기업 및 종사자들에게 상당한 “편안함”을 제공한다.

도시별 한국소유기업들

도시	총 기업 수	전체 중 차지하는 비율, %
LA	45	50.6%
기타	44	49.4%
합계	89	100.0%

출처: LA 카운티 경제개발공사 (LAEDC) FDI 보고서

LA 카운티의 한국 해외법인 및 외자계 기업인들은 2,200개 일자리와 1억2,600만 달러 임금을 창출한다. 운송 및 창고업은 가장 많은 고용을 창출하는 주요 산업부문 중 하나이다 (900개 일자리와 5,400만 달러 임금). 이어 도매무역이 2위를 차지한다 (600개 일자리와 3,400만 달러 임금).

주요 산업부문별 한국소유 기업들의 고용 및 임금

부문	고용	임금 (1,000 달러)	총 고용 중 차지하는 비율, %	총 임금 중 차지하는 비율, %
운송 및 창고업	900	\$54,000	40.9%	42.9%
도매무역	600	\$34,000	27.3%	27.0%
기타	700	\$38,000	31.8%	30.2%
합계	2,200	\$126,000	100.0%	100.0%

출처: LA 카운티 경제개발공사 (LAEDC) FDI 보고서

The City of Los Angeles is the largest location for employment and wages by Korean-owned and-affiliated companies (1,500 employees and \$85 million in wages). Torrance is also a top location for employment and wages of Korean-owned companies.

LA 카운티 도시별 한국소유 기업들의 고용 및 임금

도시	고용	임금 (1,000 달러)	총 고용 중 차지하는 비율, %	총 임금 중 차지하는 비율, %
LA	1,500	\$85,000	68.2%	67.5%
기타	700	\$41,000	31.8%	32.5%
합계	2,200	\$126,000	100.0%	100.0%

출처: LA 카운티 경제개발공사 (LAEDC) FDI 보고서



향후 한국의 투자처는 어디인가?

1980년 후반과 1990년대 초반 한국기업들은 주로 북미와 유럽 선진경제국에 투자를 집중하였다. 과거 10년간 이들 선진국들에 대한 FDI 유출이 감소한 한편, 아시아에 대한 FDI 유출은 증가하였다. 한국기업들은 과거 10년간 중국과 인도가 매우 높은 경제성장을 이룩하자 이들 국가에 대한 투자에 초점을 두었다. 또한, 한국기업들은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기타 동남아 경제국가로 눈을 돌려 이 지역의 견실한 경제 성장 및 저렴한 비용을 활용하고자 하였다.

과거 수년간, 일부 한국기업들은 미 달러 등 타국 통화 대비 원화 강세가 계속되자, 점차 많은 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하기 시작하였다. 현대, 기아 등 자동차제조사와 삼성, LG 등 전자기업이 그 예이다. 미국, 특히 미국의 자동차 업계는 이 같은 추세에 수혜자가 되었다.

미국이 한국에 매력적인 투자처가 되는 데에는 많은 이유가 있다. 먼저, 미국은 세계 최대 내수 시장을 보유하고 있다. 둘째, 미국시장은 세계 다른 시장들에서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점들이 거의 없다. 셋째, 해외 생산설비를 수립함으로써 한국기업들은 상업분쟁 관련 장애물들을 피할 수 있다.

LA 카운티 보다 더 큰 소비시장을 보유한 미국 내 카운티는 없으며, 이는 잠재 투자자들에게 분명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또한, LA 카운티는 더 많은 한국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몇 가지 부인할 수 없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첫 번째 자산은 항구, 철도, 복합운송 자원, 물류 및 LA국제공항 등 운송 인프라이다. 두 번째는 수천 명에 이르는 아시아 및 한국 유학생들이 속한 세계 수준의 대학 및 R&D 인력이다. 이 외에도 미국 내 최대 한국 커뮤니티, 지역인들의 한국어 소통능력, 본 보고서 서두에 언급되었던 강한 문화적 유대관계 등을 자산으로 들 수 있다. 이는 신중한 투자자들에게 커다란 위안요소가 된다. 핵심은 향후 한국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LA 카운티 내 산업클러스터를 확보하는 것이다.

투자는 전기자동차 등 녹색/청정기술산업, 태양/풍력 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에 유치될 것이다. 또한 엔터테인먼트, 의류, 디지털카메라, 애니메이션, 하이테크 소비자가전 산업이 미국 민간부문의 투자 타겟이 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핵심

투자 분야가 될 것이다. 이 외에도 자동차, 우주항공, 의료보건, 의약, 식품, 교육기술 등이 유력한 투자대상이 될 것이다. 또한, LA 카운티 내 한국 FDI 타겟으로 바이오테크/바이오메디컬, 물류를 들 수 있다.

미국에 진출한 주요 한국기업

기업	
삼성	한진그룹
현대	금호-아시아나 그룹
LG	대한항공
SK그룹	우리
포스코	CJ
롯데	한국타이어
한화	신한

한국의 투자는 제조업이 아닌 기술의 형태가 될 것이다. 기술 투자는 이미 LA 카운티에 집중되어 있는 제조시설들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실제로 기술 형태의 투자 유입은 LA 카운티가 미국 제조업의 수도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유통센터 또한 미국 진출을 고려하는 한국기업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같은 투자에는 핵심적인 고객서비스 제공을 위한 영업 및 서비스 사무소가 동반되기 마련이다. FDI는 경쟁력 유지를 위한 혁신 증진을 위해 연구 개발 설비 형태로 유입될 것이다. 또한 과거 20년간 뉴욕 메트로 지역에서 경험한 바와 같이, FDI는 (미국 및/또는 북미) 지역본사 형태를 띠 수 있다. LA 카운티는 일부 한국대기업들이 자사의 지역본사를 LA지역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더욱 집중적인 노력을 펼쳐야 할 것이다. 이 밖에도, 상기 언급된 산업분야에 대한 신규기업 유치뿐 아니라, 이미 LA 카운티에 소재한 한국의 중소기업들의 본사가 이탈하지 않도록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해외직접투자 (FDI)

경제이론에 따르면, 기업이 해외 투자를 시도하는 이유는 시장, 효율성, 자원과 관련이 있다. 첫째, 기업은 해외시장에 대한 접근성 확보를 위해 해외투자에 참여한다. 가장 적절한 예로, 기업이 특정 시장 내에서 또는 해당 타겟 시장과 인접한 지역에서 상품을 생산 또는 조립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고자 노력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미국 타겟 시장에 근접하고자 미국 전역에 조립공장을 설립한 현대와 기아 등 한국기업이 그 적절한 예이다.

둘째, 전세계 기업들은 항상 효율성 제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생산현장을 생산 투입자원(노동력 또는 자본)과 인접한 곳에 설립하는 것은 종종 가장 비용효과적이다. 본국에 비해 노동비용 또는 공장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해외에 생산시설을 이전하는 많은 사례들이 있다. 이 같은 현상은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반 이래로 매우 흔히 볼 수 있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기업들은 전세계 기초천연자원에 투자한다. 경제개발을 꾀하는 국가들에게 에너지 및 기타 필수원자재 생산원을 확보하는 것은 언제나 가장 중대한 목표 중 하나였다. 유사 이래로 세계 경제강국들(미국 및 영국)은 모두 자원이 풍부한 지역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함으로써 자국을 유지할 수 있었다. 오늘날 미래의 경제 초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이 중동, 아프리카, 호주, 남미 등에 투자하면서 자국의 경제 미래를 확보하고자 함에 따라 우리는 과거 현상이 그대로 반복되는 것을 목격한다. 실제로 한국도 특히 광산, 원유, 천연가스 등 특정 자원이 풍부한 지역에 대한 접근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왔다.

경제성장은 거시경제정책의 기본 목표 중 하나이다. 무역과 마찬가지로, FDI는 전세계에 걸쳐 강력한 경제성장을 실현하는 데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경제연구보고에 따르면, FDI는 신규 고용을 촉진하고 생산성을 증대시킨다. 신규 비즈니스 모델이 FDI를 동반하여 도입됨에 따라 생산성이 향상되어왔다. 또한, FDI는 신규자본, 기술, 비즈니스 모델, 국가 관계, 세수입을 창출하며, 자본수익률 증대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계 국가들은 항상 더 나은 해외투자처가 되기 위해 상호 경쟁해왔다. 각 국은 규제완화, 운영비절감, 세율인하, 유연한 노동시장, 인수합병 기회확대,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옹호함으로써 더욱 매력적인 해외투자처가 될 수 있다.

과거 20년 동안 한국의 FDI유출은 주로 미국을 겨냥한 것이었다. 최근 한국 FDI유출은 제조업, 광업, 도매무역, 소매무역, 금융, 보험(은행 및 지주사) 분야에 초점을 두어왔다. 한국에 대한 미국 FDI유입은 압도적으로 도소매무역, 금융 및 보험, 전자산업의 형태를 띠었다.



LA 카운티 FDI- 녹색/청정기술 전략

LAEDC 자회사인 세계무역센터협회 로스엔젤레스-롱비치 (World Trade Center Association Los Angeles - Long Beach, WTCA)는 녹색/청정기술 분야 투자 유치에 매우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WTCA의 LA-롱비치 “녹색전략”은 청정기술 자동차 산업 및 대체/재생에너지 산업에 한국 투자를 유치하는 것을 포함한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태양, 연료전지, 풍력에너지에 초점을 둔다.

분야별 한국 선두 기업은 아래와 같다:

- **현대자동차** - 자동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
- **기아자동차** - 자동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
- **현대중공업** - 자동차 (태양에너지)
- **LG** - 전자 (태양에너지)
- **삼성** - 전자 (태양에너지)
- **포스코** - 철강 (태양에너지)
- **한화화학** - 화학물 (태양에너지)
- **OCI화학** - 전자 (태양에너지)
- **넥슬론** - OCI화학 관련 (태양에너지)
- **미니솔라** - 태양전지판

이 외 분야의 선두 중소기업은 아래와 같다:

- **에스에너지**
- **탑선**
- **케이솔라**
- **오성LST**
- **유일엔시스**
- **디솔라테크**
- **드윈드**
- **에코니티**
- **필맥스**
- **네오텍유브이**

투자유치를 위한 주와 국가차원의 노력이 주법 및 연방법제정, 인센티브, 유용자원 및 다양한 자금원에 대한 접근성 확보 등 많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예는 아래와 같다:

주 법률제정 (STATE LEGISLATION)

- **캘리포니아 의회법안 (California Assembly Bill, AB) 32-** 캘리포니아 온실가스 배출감축법 (California Global Warming Solutions Act)
- **캘리포니아 의회법안 (California Assembly Bill, AB) 811 & (AB) 474** - 에너지 효율 및 신재생에너지 재원 조달 프로그램 (Energy Efficiency and Renewable Energy Financing Program)
- **그린빌딩이니셔티브 및 이에 동반한 그린빌딩행동계획 (Green Building Initiative and the accompanying Green Building Action Plan)**캘리포니아 의회법안 (California Assembly Bill, AB) 939 - 통합폐기물 관리법 (Integrated Waste Management Act)
- **재생포트폴리오표준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PS) 및 상원법안 (Senate Bill) X12** - 유틸리티기업을 상대로 신재생에너지 전력제공 요구
-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 (California Air Resources Board, CARB)의 저배출자동차 (LEV) 프로그램** - 자동차 배출가스감축을 위한 표준 수립

주 인센티브 (STATE INCENTIVES)

- **캘리포니아 쏘라 이니셔티브 (California Solar Initiative)**
- **캘리포니아 의회법안 (California Assembly Bill, AB) 118** - 청정자동차 리베이트 프로그램
- **녹색제조장비에 대한 판매세 혜택**
- **요금납부식 융자 (On-Bill Financing, OBF)** - 일부 유틸리티기업이 에너지효율을 위해 융자 제공

녹색기회 (GREEN OPPORTUNITIES)

- **캘리포니아는 전세계 10위 에너지 소비지역**
- **산페드로 항만 청정대기 행동계획(San Pedro Bay Ports Clean Air Action Plan, CAAP)** - 선박, 기차, 트럭, 기타 상품 운송용 중장비로 인한 대기오염 감소 기준과 목표 설정
- **LA시 (City of Los Angeles)** - 그린 L.A. 이니셔티브
- **앤티로프 밸리 (Antelope Valley)** - 주의 풍력 생산 용량 및 생산량의 95% 차지



재생에너지를 위한 연방자금조달 (FEDERAL FUNDING FOR RENEWABLE ENERGY)

- 25억 달러 - 에너지 효율성 및 신재생에너지 기술 응용연구, 개발, 시연, 설치
- 12.5억 달러 - 풍력, 태양, 수력, 수소, 자동차, 산업, 빌딩 기술
- 12.5억 달러 - 다양한 산업 및 에너지 효율성 개선 프로젝트간 경쟁 강화
- 45억 달러 - 지능형전기망 (smart electricity grid) 개발
- 300억 달러 - 산업, 에너지 효율개선, 보존활동과 파트너쉽을 통한 신기술 개발 응용연구 투자, 대출보증, 보조금 지급
- 42억 달러 - 국방부 시설 에너지 효율화

LA 카운티 인프라 프로젝트 투자 (BILLIONS FOR LOS ANGELES COUNTY INFRASTRUCTURE PROJECTS)

- 350억 달러 - Measure R: L.A. County 운송프로젝트 자금조달
- 41억 달러 - LAX 현대화
- 55억 달러 - LA항과 롱비치항 업그레이드 및 녹색화

주, 카운티, 연방정부는 자금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자프로세스를 촉진하고 있다. 사모펀드와 벤처캐피탈 기업들이 상당한 기회를 제공하는 등 민간부문 또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기타 주요 자금으로 연방부양기금, 보조금, 담보부 대출 등이 있다.

프로필



SoCal Edison 전기차 기술센터 (SoCal Edison's Electric Vehicle ("EV") Technical Center) - Pomona

남부캘리포니아 에디슨 (Southern California Edison, "SCE") EV 기술센터는 플릿운영 (fleet operation)을 통해 전기차 성능을 시험하도록 승인된 유일한 미 에너지부 테스트 시설 두 개 중 하나이다. 본 센터는 1993년 설립되었고, 자동차제조사, 배터리 제조사, 정부기관, 비즈니스 및 산업용 fleet 고객들을 위한 솔루션 마련에 역점을 두고 다양한 전기수송서비스를 제공한다.

SCE EV 기술센터의 목적은 아래와 같다:

- SCE 교통 서비스부 (Transportation Services Department)가 가장 성공적인 미국 최대 배터리전기 전용 자동차 플릿 (Fleet)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재까지, EV 플릿은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 없이 1700만 마일을 주행하였다
- 연방 및 주 규정 준수에 맞도록 SCE 자체 플릿 애플리케이션에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전기동력 기술을 평가한다
- 그리드에 연결된 자동차 수 증가로 인한 영향을 파악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한다
- 안전하고, 신뢰할 만한, 에너지 효율적인 전기동력기술 사용에 관한 교육 및 파견교육을 제공한다

EV 센터는 아래 첨단 장비를 포함한다:

- 전기자동차 테스트 및 유지 설비
- "미래의 차고 (Garage of the Future)" - 볼트 충전, 에너지 흐름/저장/생성 및 조절기 시뮬레이션 가능
- 충전테스트 및 급속충전테스트 설비
- 수소 내부연소엔진 (Internal Combustion Engine, ICE) 및 연료전지 EV 프로토타입 유지 관리를 위한 메인テナンス 베이
- 배터리 테스트실

LA 카운티 FDI- 녹색/ 청정기술 전략 (계속)

프로필



한국 신재생에너지 산업

한국 투자자들이 태양/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성장기회를 포착함에 따라 과거 수년사이 한국 태양/신재생에너지 산업은 글로벌 리더 대열에 서게 되었다. 한국은 세계 최대 청정에너지 투자국이며, 세계 최대 태양에너지 시장 중 하나이다. 태양에너지 시장은 향후 10년간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기업들은 최근 수년간 산업 선두주자였으며, 이제 일본, 중국, 대만 기업들의 경쟁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러나, 많은 한국 선두기업들은 여전히 선두기술 및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한국정부 또한 녹색기술에 대한 투자를 2009년 2조원에서 2010년-2011년 2.3조로 증가시켰다. 또한 정부는 27개 주요 녹색기술 및 녹색인증을 발표하였다. 뿐 만 아니라, 한국은 주거용 태양에너지 사용자들이 잔여 전력을 그리드에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발전차액지원제도 (Feed-in Tariff, FIT) 제도를 도입하였다. 2012년부터 이 제도는 신재생 에너지의무 할당제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PS)로 대체될 것이다. RPS에 따라, 14개 국영 및 민간 전력유틸리티 기업들은 2015년까지 신재생에너지원으로부터 4% 에너지를 생성하기 위해 500MW 초과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용량을 구비해야 한다. 또한 본 할당 비율은 2022년까지 10%로 증대될 것이다. 한국은 향후 최대 태양광 (PV) 시장 중 하나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과 LA 글로벌 환경리더

한국-녹색성장에 대한 의지

녹색성장을 위한 국가 전략

비전과 임무- 세가지 목적

1. 기후변화 완화 및 에너지의존도 개선
2. 경제성장을 위한 새로운 성장엔진 창출
3. 삶의 질 개선 및 국제사회에서의 지위 향상

10개 정책 방향

1. 효과적인 온실가스 배출 억제
2. 화석연료 사용 감소 및 에너지 의존도 개선
3. 기후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력 강화
4. 녹색 기술 개발
5. 기존 산업 녹색화, 녹색산업 진흥
6. 산업구조 선진화
7. 녹색 경제를 위한 구조적 기반 마련
8. 토양 및 수자원 녹색화, 녹색교통 인프라 구축
9. 녹색혁명 생활화
10. 녹색성장의 Role Model로서 국제적인 입지 구축

한국- 녹색산업 소개

한국은 세계 5위 원유 수입국이자 2위 액화천연가스 매입국이다

- 에너지 수요의 97%를 수입한다
- 한국은 에너지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나, 2015년까지 400억 달러 신재생에너지 수출을 목표로 한다
- 신재생에너지 분야 글로벌 리더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2009년 신재생에너지는 한국 총 에너지공급의 3% 미만이었고, 이는 2013년 4%, 2020년 6%, 2030년 13%로 확대될 전망이다
- 목표: 2020년 전세계 상위 10개 녹색에너지 강국 중 하나 (7위)로, 2050년 5위로 부상한다.



- 한국은 2030년 총 에너지의 11%를 신재생에너지에서 충당할 것이다. 현재는 2%를 조금 넘는 수준이다
- 한국 정부는 현재부터 2020년까지 에너지 R&D 예산을 두 배 증대할 계획이다
- 2011년 11월 녹색에너지 분야 기술 강화와 글로벌 시장 10% 확보를 위한 계획이 발표되었다
- 본 계획에 따라 수행된 기술 개발 및 R&D는 에너지효율성 12% 개선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 이는 2020년까지 현재 수준의 30% 배출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배기가스 배출감축의 절반에 해당한다
- 본 계획의 이행: 정부 및 민간부문 비용이 35.5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 수출 202조원 증가, 국내 소비 59조원 증가, 900,000개이상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 삼성, 포스코, 현대가 녹색화 결의를 선언하였다

녹색성장전략- 최근 핵심 현황

- 2008년 한국 이명박 대통령은 저탄소 녹색 성장개발 전략을 발표하였다
 - 그 후 한국은 이 개발 전략을 채택하였다
- 2009년 정부는 녹색성장대통령위원회를 설립하였고, 녹색성장법 제정을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다
- 2010년 정부는 태양, 풍력, 발광다이오드 (LED) 등 녹색산업개발을 추진하였다
- 2011년 정부는 전국 온실가스 및 에너지 관리시스템 개선을 위해 온실가스배출 제한법 이행에 역점을 두었다
- 목표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배출 30% 감축이다
- 2011년 약 500개 기업이 자사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시작하였다
- 정부는 또한 녹색기술에 대한 투자를 2009년 2조원에서 2010년-2011년 2.3조로 증가시켰다. 또한 정부는 27개 주요 녹색기술 및 녹색인증을 발표하였다
 - 정부는 녹색산업 내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 한국은 녹색성장 글로벌 리더가 되었다
 - 한국은 녹색성장을 위한 글로벌 씽크탱크인 글

로벌녹색성장연구소(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GGGI)와 개발국가의 녹색성장 증진을 위한 동아시아 기후 파트너십 (East Asia Climate Partnership)을 설립하였다

청정에너지 특허 증가지수(The CLEAN ENERGY PATENT GROWTH INDEX, CEPGI) 2011년 3분기 결과 (가장 최신 자료)에 따르면, 미국을 제외하고, 한국은 미국 청정에너지관련 특허를 가장 많이 소유한 국가 중 4위를 차지하였다. 한국은 2010년 3분기 35개에 이어, 현재 46개 청정에너지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일본, 독일, 캐나다에 이은 순위이다. 삼성은 29개 특허 보유로, 전체 기업 중 4위를 차지하였다. 이는 GE, GM, 도요타에 이은 순위이다. 삼성의 특허에는 태양 및 하이브리드/전기 자동차 특허와 연료전지 특허가 포함되어 있다.

LA- 녹색 LA: 미국의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행동 계획

2007년 5월, 비야라이고스 (Villaraigosa)시장은 LA시의회 및 환경리더들과 파트너십을 통해 GREEN LA를 발표하였다. 이는 미국의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행동계획이다. 본 계획의 장기 목표는 2030년까지 LA시 온실가스 배출을 1990년 수준의 30% 미만으로 감축하는 것이다. 본 목표는 도쿄의정서의 목표를 초과하고, 전체 미국 도시 중 가장 높은 감축 목표이다.

본 계획은 녹색에너지 촉진, 물 절약, 세계 수준의 교통시스템 구축, 폐기물 감소, 항구 및 공항 녹색화, 공공용지 및 공원용지 확충, 지구기후변화 환경 적응 등 공공 및 민간부문이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취해야 하는 행동들을 정의한다.

Green LA는 LA시 탄소 배출 감축과 기후변화 대처를 위한 청사진을 제공한다.

한국-LA- 글로벌 환경리더 (계속)

LA시는 미국 내 최대 도시 유틸리티기업인 LA수도전력회사 (Los Angeles Department of Water and Power)를 통해 전기생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주요 온실가스 배출원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다. 전체 CO2 배출의 1/3은 시 운영에서 발생한다. 현재 LA는 교토의정서에 따른 미국 배출목표의 절반 이상을 이미 달성하였다.

“LA 경제의 녹색화”- 2011 LAEDC 보고서

LA 카운티가 글로벌경제 녹색화의 선두에 나서야 하는 이유

- 인구가 천만 명에 육박하는 LA 카운티는 거대한 녹색상품 및 서비스 시장을 제공하고, 자체적으로 녹색화 추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충분한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
- LA 지역 전반의 경제 활성화로 다른 어느 신흥경제에 비해 녹색화에 따라 유발되는 높은 초기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더 나은 위치에 있다.
- 캘리포니아주는 타 지역에 비해 “녹색화”에 더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과거 6년간 법률, 행정명령, 행정규칙들은 경제 녹색화에 대한 캘리포니아주의 의지를 반영하였다 (예, 하원법안 32/AB32, 상원 법안 375/SB375, 신재생포트폴리오표준 (RPS) 등).
- 캘리포니아가 환경 정확 및 보호 노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등 주 자체적으로 녹색정책 의지가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비즈니스 리더들은 일반적으로 이 같은 의지들을 공유하고/또는 비용절감을 위해 녹색화를 추진한다.
- 주요 공공 및 민간부문 리더들이 경제녹색화를 현재 및 미래 고용창출원으로 파악하였다.
- LA 카운티 경제의 범위와 국제무역허브로서의 역할을 고려할 때, LA 카운티는 진행중인 대부분의 녹색화 추세와 떼어놓을 수 없는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무역 및 투자 사절단 한국방문

2011년 9월 LAEDC와 세계무역센터협회 로스엔젤레스-롱비치는 무역 및 투자 목적으로 한국 서울을 방문하였다. LAEDC와 WTCA LA-롱비치는 한국총영사관 및 KOTRA와 파트너십을 통해 본 방문을 주관하였고, 향후 더 많은 한국 FDI 유치를 위해 한국총영사관 및 KOTRA와 협력하여 국내 및 해외 사절단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또한, WTCA는 2012년을 기점으로 LA 카운티 전역의 기술 인큐베이터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다.

LAEDC와 세계무역센터협회 로스엔젤레스-롱비치 (WORLD TRADE CENTER LOS ANGELES-LONG BEACH, WTCA LA-LB)

LA 카운티 무역투자사절단 (Los Angeles County Trade and Investment Mission)

사절단원

- **Robert Hertzberg**
LAEDC 회장
- **Bill Allen**
President and CEO of the LAEDC
- **Vance Baugham** – WTCA 소장
- **Lianne Chua** – WTCA 아시아 담당 과장
- **K.Y. Cheng** – East West Bank 국제무역 담당 부사장
- **Matthew Toledo** – Los Angeles County Business Journal 사장, 발행인
- **Thomas Calabro** – Southern California Edison 현지 홍보 및 고객서비스 담당 이사
- **Christopher Martin** – AC Martin Partners, Inc. 대표 이사 & 공동회장
- **Lessing Gold (Partner) & James Bang (Of Counsel)**
– Mitchell Silberberg & Knupp, LLP
- **최기호** – Choi, Kim & Park, LLP 대표파트너
- **Tracy Williams** – Olmstead Williams Communications 사장
- **Charlie Forrest** – Stern Brothers 상무이사



LA시 안토니오 비야라이고사 (MAYOR ANTONIO VILLARAIGOSA) LA시장

LA시 무역투자사절단 (City of Los Angeles Trade and Investment Mission)

사절단원:

- Mayor Antonio Villaraigosa 시장
- Matt Karatz - 경제비즈니스정책담당 부시장
- Elga Sharpe - L.A.시 의전장
- Casey Hernandez - 공보담당
- Stephen Cheung - 경제 비즈니스 정책, 국제무역국장
- Nicole Legacki - 경제 비즈니스 정책, 국제무역과장
- Gabby Ortiz - 시장특별보좌관
- David Fisher - Capital Group 회장
- 장도원 - Forever 21 CEO
- 손성원 박사 - Forever 21 부회장
- Michael Lawson - Los Angeles World Airports, Board of Commissioners 회장
- Kathryn McDermott - LA항 전무이사
- Patti MacJennett - LA INC, Los Angeles Convention & Visitors Bureau 마케팅담당 상무이사

한국으로의 FDI 유입

1997년 아시아 금융 위기 이후 한국으로의 외국인 직접 투자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가 급증하였으며, 국제 무역(주요 성장 원천)과는 달리, 한국 경제가 세계 경제 대국 대열에 진입하는데 제한적이지만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FDI 유입이 많은 국가가 더 높은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

“2010년을 포함한 최근 몇 년간 미국은 한국의 최대 FDI 국가였으며, 한국 유입 총 FDI의 15% 이상을 차지하였다”

지난 10년-20년 동안 한국은 주로 선진국으로부터 FDI를 유치해 왔다. 그러나, 아시아 개발국(중국, 인도 등)과 기타 신흥 시장의 급격한 경제 성장으로 이러한 경향이 크게 바뀌었다. 2010년을 포함한 최근 몇 년간, 미국은 한국의 최대 FDI 국가였으며, 한국의 총 FDI 중 15% 이상을 차지하였다. 분야별로, 도소매, 금융, 보험, 전자제품에 가장 많은 투자가 이루어 졌다.

한국 투자의 이점

• 최대 규모의 경제 및 시장

한국의 경제 규모는 세계 15위이며(시장 환율 기준)이며, 구매력 기준으로 세계 12위이다. 1970년부터 2010년까지 GDP가 20억 달러에서 1조 달러로 증가하였으며, 수입규모는 세계 9위, 수출은 세계 7위이다. 1970년부터 2010년까지 무역 규모는 30억 달러에서 9,000억 달러로 증가하였으며, 2011년 무역 1조 달러 기록을 달성하였다. 2000년부터 2010년까지, 610,000개 기업이 설립되었으며, 지난 11년 동안 매년 평균 56,000개 기업이 설립되었다 (매일 200~300개 회사 설립).

• 높은 구매력

한국은 대규모 중산층 기반이 있으며, 일인당 가구소비비가 높다. 또한, 최고의 신제품 및 서비스 테스트 마켓으로 잘 알려져 있다.

• 한국의 글로벌 기업과 파트너십

한국은 선진 기술 제품 및 혁신 서비스를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을 포함하여, 성공적인 글로벌 기업이 많다. 외국기업의 FDI는 이러한 한국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다수의 외국 기업들이 이러한 파트너십 기회를 잘 활용하였으며, 한국 기업의 높은 신뢰도는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 밝은 글로벌 산업 전망

첨단 기술을 보유한 한국의 정보기술(IT)과 통신분야 전망은 매우 밝다.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는 신재생에너지, 반도체, 부품, 자재, 자동차 부품, 디스플레이, 관광과 레저 산업이 있다.



한국 투자의 이점(계속)

• 높은 교육 수준

한국의 성공 비결 중 하나는 높은 교육수준이다. 세계에서 교육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 중 하나이며, 노동 인구 생산성이 매우 높다(OECD국가를 앞선다).

• 기술 발전의 중심지

한국은 GDP 중 R&D 투자 비율이 높으며, 한국 기업들은 30년 이상 첨단 신기술의 선두주자였으며, 대부분 독자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 우수한 인프라

한국은 우수한 물류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인천 국제 공항은 6년 연속 세계 최고의 공항으로 선정되었으며, 부산항은 물동량이 세계 5위이다 (LA항과 롱비치항을 합한 양보다 많다). 그 밖에 한국은 매우 선진화된 철도 및 지하철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

• 성장하는 아시아 시장의 관문

한국은 경제 성장이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는 동아시아에서 확고한 입지를 확보하고 있다. 이 지역은 지속적으로 경제 통합이 진행되며, 서비스 중심적인 경제로 변모하고 있다. 북미 또는 미국 본사가 주로 LA 카운티에 있는 것과 같이, 한국은 지역 본부로 최적의 위치이다.

• 기업 친화적 사업 환경

한국 정부는 한국에 보다 우호적인 사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아시아 금융 위기가 발생한 1997년 말 이후, 한국은 회계 기준과 기업 법률 기반을 대대적으로 수정하였다. 2012년 세계 은행이 선정한 사업하기 좋은 국가 8위를 차지하였다(2011년 15위).

• 급성장하는 광대역 통신망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비용 효율적인 광대역 통신망을 갖추고 있다. 또한, 광대역 통신망 제품 및 서비스의 기술 수준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이다.

• 녹색 성장 리더

한국은 선도적으로 친환경 사업에 앞장서고 있다. 2008년 이후 한국 정부는 녹색 성장에 힘써왔으며, 한국 기업과 소비자들도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고 있다.

• 밝은 의료 산업 전망

한국은 노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노인층 소비자 성장은 의료 제품과 헬스케어 서비스 수요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 우수한 생활 환경

한국은 생활 수준이 높으며, 많은 도시들이 우수한 인프라와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자랑한다. 다양한 여가 활동과 함께 우수한 헬스케어와 높은 교육 수준을 보유하고 있다. 다섯 가지 삶의 지표를 기준으로 뉴스위크 코리아가 실시한 살기 좋은 국가들 중 상위에 올랐다.

최근 한국으로의 FDI유입

한국으로 유입되는 FDI는 2002년 20억 달러에서 2010년 130억 달러로 성장하였다. 2010년 FDI는 1997년 아시아 금융 위기 이후 최고를 기록하였다. 한국이 2009년 세계 경기 침체를 성공적으로 극복함에 따라, 한국 투자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으며, 그 결과 FDI유입이 2009년 대비 14% 성장하였다. 주요 성장 분야는 바이오 기술, 제약, 신재생에너지, 소프트웨어 등이다. 선진국으로부터의 FDI에 대비하여 중국 및 인도를 주축으로 하는 신흥시장으로부터의 FDI도 증가 하였다. 미국은 한국 총 FDI의 15%를 차지하여,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큰 투자국이다. 미국의 주요 투자 분야는 도소매 무역, 금융 서비스, 전자 제품이다.



한국과의 무역 및 투자 증진을 위해 LA에서 개최되거나 예정인 행사 및 국제 회의

201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행사

- 한미 FTA 컨퍼런스 (2011.11.30)
 - 통관, 규제 변화, 준법 이슈, 기타 현지 사업에 유용한 정보를 포함하여, 한미 FTA에 초점을 둔 컨퍼런스
- AAPEX 2011- 한국 파빌리언 (2011.11.1-3)
- 한국 미디어 & 콘텐츠 마켓-KMCM USA (2011.9.22)
- 섬유 위크 (Textile Week) - 한국 파빌리언 (2011.9월)
- 글로벌 파트너링 (2011.8월)
- JCK 주얼리 쇼- 한국 파빌리언(2011.7월)
- 전문직 직업 박람회(2011.6.17)
- 대국 경북 무역사절단(2011.6월)
- 풍력박람회(Wind Power)- 한국 파빌리언 (2011.5.22-25)
- 광주 무역사절단(2011.3월)
- 매직 쇼- 한국 파빌리언 (2011.2.13-16)
- 한국 금융 시장 설명회 (2011.2.8)
- CES 2011-한국 파빌리언 (2011.1.6-9)

2012 KOTRA 행사

- VerdeXchange 컨퍼런스/비즈니스 연계 행사 (2012.1.22-24)
- 호남 EV 로드쇼(2012.2.22-24)
- 새만금 투자사절단(2012.2.29-3.3)
- 부산항만 투자사절단(2012.3.14-16)
- 세계 무역 주간 (2012.5월)
- E3 Expo - 한국 파빌리언 (2012.6.5-7)
- 섬유 위크 - 한국 파빌리언 (2012.10.15-18)
- KMCM USA 2012 - 컨퍼런스/비즈니스 연계 행사 (2012.12.5)

남부 캘리포니아 바이오 메디컬 협회 컨퍼런스 (SOUTHERN CALIFORNIA BIOCHEMICAL COUNCIL CONFERENCE, SOCALBIO)

남부 캘리포니아 바이오 메디컬 위원회가 주관하는 1일 일정의 연례 회의로 바이오 과학 신규 기업 및 기술을 소개하는 행사이다(한국 회사와 기술 포함). 사업가들에게 도움이 되는 발표나 패널 토론 등이 있으며, 지역 혁신 문화 지속을 위한 공공/민간

파트너십의 역할을 강조한다. 참석자에게는 새로운 사업 모델을 탐색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장이기도 하다.

의료기기 디자인 & 제조 박람회 (MEDICAL DESIGN AND MANUFACTURING WEST 2011, MD&M WEST 2011) - 한국 파빌리언

의료기기 디자인 & 제조 박람회는 업계 고유의 의료 장비 컨퍼런스이며, 의료 장비 업계 전문가들에게 R&D, 설계, 엔지니어링, 생산 및 규제 관련 정보 등 고급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의료 장비 산업은 최고 품질의 제조 기술을 필요로 하며, 한국의 제조 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이다.

미국 자연 식품 박람회 2011 (NATURAL PRODUCTS EXPO WEST 2011)- 한국 파빌리언

미국 자연 식품 박람회는 천연, 유기농, 건강 제품 산업에서 중요한 행사 중 하나이다. 미국에서는 상위 100대 행사로 꼽혔으며, 미국과 캐나다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50대 무역 박람회 중 하나이다. 이 컨퍼런스에는 1,900개의 기업이 3,000개가 넘는 전시회를 통해, 천연 및 전문 제품, 유기농, 건강 미용, 자연 제품, 영양 보조제 및 반려동물 제품 분야의 최신 트렌드를 소개한다.

아시아 태평양 비즈니스 전망 컨퍼런스 (ASIA-PACIFIC BUSINESS OUTLOOK CONFERENCE, APBO)

지난 25년 동안 USC 마셜 경영 대학원(Marshall School's Center for International Business and Research, CIBER)과 미 상무부가 개최해온 컨퍼런스로서 미국 기업들에게 아시아 시장 기회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아태지역에 있는 미국 기업들이 직면한 사업 기회 및 도전 사항을 논의하며, 환태평양 지역 미 대사관의 상무부 관료 및 사업 전문가들로부터 아태지역의 사업 및 경쟁 환경 변화에 대한 현지 의견을 직접 들을 수 있다.

아메리칸 필름 마켓 2011 (AMERICAN FILM MARKET 2011) -한국 파빌리언

매년 2회 산타모니카에서 개최된다. 본 행사는 한국 영화 배급사들에게 좋은 영화 홍보기회이기도 하다.



LA 카운티 무역 투자관련 기관

(미국 정부 RESOURCE는 부록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세계 무역 센터 협회 LA-롱비치 (WORLD TRADE CENTER ASSOCIATION LOS ANGELES-LONG BEACH, WTCA LA-LB)

세계 무역 센터 협회 LA-롱비치 (WTCA LA-LB)는 로스앤젤레스 지역의 무역 활성화와 투자 유치를 목표로 하며, 남부 캘리포니아 지역 기업에 국제 무역 개발 및 사업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기관은 로스앤젤레스 지역에서 주도적인 국제 무역 협회이자 무역 서비스 기관이며, 무역 자원이다. 또한 투자 유치를 위해 특정 해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LA를 홍보하며, 지역 경제 발전, 고용 창출 및 지역 기업들에게 보다 많은 사업 기회 제공을 위해 노력한다.

WTCA는 해외 무역 및 FDI 사절단에도 참여하며, 십 여명의 무역 및 FDI 대표를 해마다 초청하고 있다. 또한 이 지역 기업들에게 새로운 시장 기회를 파악하는 것을 지원하고, 해외 교역 상대방과의 관계유지 가이드를 제공하며, 성장재원 마련을 위한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를 지원한다. WTCA LA-LB는 LAEDC 자회사이며, LAEDC와 함께 LA 내 90개 이상의 영사관을 대상으로 정기 모임을 주재한다 (워싱턴 DC 다음으로 영사관이 많다).

LA 카운티 경제 개발 공사 (LOS ANGELES COUNTY ECONOMIC DEVELOPMENT CORPORATION, LAEDC)

LA 카운티 경제개발 공사는 토지 개발, 프로젝트 파이낸싱, 기타 마케팅 활동을 통해 LA 카운티의 경제 개발 프로그램을 구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LA 카운티 감독 위원회 (Board of Supervisors)가 1981년 설립하였다. 설립 이후 LAEDC는 카운티의 산업 연계 개발 프로그램 홍보기관에서 캘리포니아 남부 최고의 경제 개발 기관으로 성장하였다. “LAEDC의 미션은 LA 카운티에 보다 많은 비즈니스와 고용을 유치, 유지하고 성장시키는 것이다.”

LAEDC의 사업 지원 프로그램 (BAP)은 사업 오너, 의사 결정자와 어드바이저들을 위해 기밀이 보장되는 무료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업 지원 프로그램은 카운티 지역사무소를 통해, 초기 위치 선정을 비롯 포괄적인 사업 기회 분석을 실시한다. LAEDC 사업 지원 프로그램은 175,000개 이상 고용 창출 및 유지에 기여 하였으며, 직접적인 경제 효과는 85억 달러이고, LA 카운티 세수에 연간 1억4,400만 달러 이상 기여하였다.

미 상무부 - U.S. COMMERCIAL SERVICE - 미 LA 다운타운 및 서부 수출 지원 센터(U.S. DEPARTMENT OF COMMERCE -U.S. COMMERCIAL SERVICE - DOWNTOWN & WEST LOS ANGELES U.S.EXPORT ASSISTANCE CENTERS)

미 상무부내 U.S. COMMERCIAL SERVICE는 연방 정부 기관으로 핵심 역할은 제조업 및 서비스 분야의 LA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이다. 경험이 풍부한 많은 국제 무역 전문가들이 해외 파트너 발굴 및 평가, 시장 진입 전략 개발, 수출 장벽 극복 등 수출을 지원한다. LAEDC와 함께 위치하고 있는 이 센터는 82개국 165개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1,700여명의 국제 무역 전문가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로스앤젤레스 상공 회의소 - 글로벌 이니셔티브

로스앤젤레스 상공 회의소는 해외관계 구축을 통해 국제 시장에서 영향력을 높임으로써 LA 현지 기업을 지원하고, 글로벌 무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세계 무역과 관련된 상공 회의소의 핵심 이니셔티브에는 세계 무역 주간(World Trade Week), 아메리카 비즈니스 포럼(the Americas Business Forum), 글로벌 이니셔티브 위원회(Global Initiative Council), 원탁토론(Roundtable Discussions), 사업 연계 및 무역 사절단, 무역 브리핑, 무역 담당 집행 위원 네트워크 그룹(Trade Commissioners Networking Group), 글로벌 파트너십(Global Partnerships), 수출 세미나(Export Seminar Series)와 원산지 인증서(Certificates of Origin), 자유 판매 증명서, 바이어 초청장 등이 있다.

LA시장 안토니오 비야라이고사 - 경제 및 비즈니스 정책 사무소 (OFFICE OF ECONOMIC AND BUSINESS POLICY, OEBP) - 국제 무역

안토니오 비야라이고사 시장의 OEBP는 LA 지역에 기업과 고용 유치, 유지, 성장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이 사무소는 시장의 경제 개발 전략 중 핵심이다. 주요 전략 목표는 창의성과 혁신의 국제 도시로서 LA역할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OEBP가 중점을 두는 분야는 국제 무역이며, LA항만이 제공할 수 있는 모든 이점들을 홍보하여, 미국의 국제무역 수도로서의 LA 입지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OEBP는 한국 등 국가를 상대로 무역 및 투자 사절단 방문을 진행하고 있다.



LA 지역 수출 위원회 (LOS ANGELES REGIONAL EXPORT COUNCIL, LAREXC)

2011년 10월, 안토니오 비야라이고사 시장은 LA지역 수출 위원회(LAREXC)를 발족하였다. 이 위원회는 공공 및 민간 파트너십으로서 정부, 기업, 학계가 참여한다. 시장 사무국, LA 지역 상공 회의소, 국제 무역 발전 센터, USC 국제 사업 교육 및 연구 센터 (CIBER), UCLA 국제 비즈니스 교육 및 연구 센터 (CIBER), LA항, LA 국제 공항 등 7개 핵심 파트너가 참여한다. 이 위원회는 글로벌 시장의 주요 진입 포인트를 파악하고, 원스톱 수출 망을 구축하여 세계 시장 진출을 돕는다. 또한, 한국 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협력하여 현지 기업을 대상으로 한미 FTA 활용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 수출 위원회 (DISTRICT EXPORT COUNCIL OF SOUTHERN CALIFORNIA, DES-SOCAL)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 수출 위원회는 현지 기업의 수출을 지원한다.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에서 수출 관련 행사 및 워크숍을 실시, 후원하여, 지역 기업들이 상품과 서비스 수출 관련 필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돕는다. 미 상무부내 U.S. COMMERCIAL SERVICE와 함께 DES-SOCAL은 해외 시장사업 확장을 위해 다음 네 가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

- 시장 조사
- 무역 행사
- 우수 바이어와 판매 대리점 소개
- 상담

캘리포니아 남부 무역 협회 (FOREIGN TRADE ASSOCIATION OF SOUTHERN CALIFORNIA, FTA)

캘리포니아 남부 무역 협회는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의 국제 비즈니스를 활성화하고 경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1919년 설립되었다. 주요 목적은 국제 무역과 비즈니스에 대한 관심을 높이며, 적시에 수준 높은 회의를 실시하고, 국제 무역 증진 및 발전을 위한 교육 과정, 세미나, 컨퍼런스 등을 제공하며, 국제 무역의 성장 및 개발 관련 사안에 대해 회원들과 협의하고, FTA 기업 및 개인 연례 회원 명부와 주소록을 발간하고 배포한다.

롱비치 국제 무역 사무소(LONG BEACH INTERNATIONAL TRADE OFFICE, LBITO)

TIONAL TRADE OFFICE, LBITO)

롱비치 국제 무역 사무소는 롱비치 지역 기업을 위해 국제 무역 서비스 및 기타 지원을 한다. 롱비치 국제 무역 사무소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롱비치 항만과 롱비치시에서 재원을 조달함에 따라 참여 기업들은 비용부담이 거의 없다. 이 무역 사무소는 세계 무역 센터 LA-롱비치와 국제 무역 개발 센터가 지원하며, 롱비치 시립 대학이 주관한다. 무역 사무소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 무역 상담
- 무역 박람회 지원 및 진행
- 산업 오찬
- 무역 세미나
- 맞춤형 연구 보고서
- 기타 필요 지원

캘리포니아 국제 무역 개발 센터(CALIFORNIA CENTERS FOR INTERNATIONAL TRADE DEVELOPMENT, CITD)

캘리포니아 국제 무역 개발 센터는 기업의 해외 시장 확대를 돕기 위해 주 전역에 사무소를 두고, 회사 연계 행사(matchmaking event), 수출입 업체 지원, 교육, 컨설팅, 시장 조사, 교육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LA 카운티를 담당하는 사무소가 산타 아나, 호손, 롱비치에 위치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기업 서비스를 제공한다:

- 전달(Deliver)- 수출입 프로그램
- 정보(Inform) - 거래 및 규제관련 지원
- 확대(Expand) - 국제 마케팅 기회 및 자원



LA 카운티 무역 투자관련 기관 (계속)

산 페르난도 밸리 경제 협력 센터 (SAN FERNANDO VALLEY ECONOMIC ALLIANCE)

산 페르난도 밸리 경제 협력 센터는 비영리 민간 경제 개발 및 마케팅 회사이다. 주요 역할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해 5개 시 (버뱅크, 칼라바사스, 로스앤젤레스와 산 페르난도)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밸리 국제 무역 협회(Valley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VITA)는 바이어와 판매 기업을 연결하는 Alibaba.com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산페르난도 밸리 경제 협력센터가 진행하는 네 가지 핵심 활동은 다음과 같다:

- 경제 개발
- 인력 투자
- 살기 좋은 커뮤니티
- 마케팅

산 가브리엘 밸리 경제 파트너십 (SAN GABRIEL VALLEY ECONOMIC PARTNERSHIP)

산 가브리엘 밸리 경제 파트너십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산 가브리엘 밸리 지역의 경제 개발을 중심으로 하는 비영리 기관이다. 지역 기업과 정부, 교육 기관, 비영리 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음 세 분야에 초점을 두고 있다:

- 공공 정책 홍보
- 산 가브리엘 밸리 마케팅
- 전문적 사업 지원

산 가브리엘 밸리 경제 파트너십은 밸리 지역이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우수한 교통 인프라와 완벽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적극 활용하여 국제 무역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알라메다 corridor와 LAX 국제 공항을 통해 미국에서 가장 물동량이 많은 컨테이너 항구와 연결되어 있다.

한국 정부, 무역, 투자 기관

주LA 대한민국 총영사관

LA의 한국 총영사관은 모든 비자 및 여권 업무를 포함하여 상업, 문화, 교육, 과학 및 기술 분야의 한국과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 간 협력과 교류를 도모한다. 총영사관은 한국과 LA 카운티의 모든 무역과 투자 개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총영사관 홈페이지에는 한국 방문, 문화와 교육, 비즈니스, 투자, 상호 관계, 한국의 외국인 정책을 비롯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현재 총영사는 신연성(Yeon-sung Shin)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KOTRA)-한국 비즈니스 센터라고도 함(KBC)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한국과 다른 국가 간 무역과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정부 기관이다. KOTRA는 미국에 8개의 무역 사무소가 있으며, KOTRA LA 무역 사무소는 미남서부(남부 캘리포니아, 아리조나, 유타, 네바다, 뉴멕시코, 콜로라도, 하와이)지역을 관할한다. 미 남서부 지역 미국 기업들에게 한국의 시장 기회를 제공하고, 또한 한국 기업들에게 미남서부 지역 시장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한다. KOTRA LA 무역사무소는 주요 4대 KOTRA 사무소 중 하나이며, 미국에서 두 번째로 설립되었다. 지난 10여 년간 LA가 한미 관계의 중심이 되면서 그 전략적 중요성이 한층 커졌다.

KOTRA LA 사무소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개의 주요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무역 개발

- 전시회 및 컨벤션
- 해외 지사화 사업
- 글로벌 소싱
- 친환경/IT/엔터테인먼트/패션/음식/의료 & 바이오테크/항공우주/자동차 부품



투자 컨설팅

- Deal Sourcing
- 조인트 벤처 (JV)/R&D
- 투자자와의 관계
- 원-스톱 컨설팅
- M&A, 지분투자

글로벌 파트너십 프로그램

- 기술협력
- 조인트 벤처 (JV)/R&D
- 마케팅 협력
- 전략적 투자
- 공동 R&D
- R&D 아웃소싱
- 기술 상용화
- 기술 라이선싱

사업 육성 (한국 비즈니스 개발 센터:Korea Business Development Center)

- 마케팅 및 현지화 지원
- 시장 조사 및 분석
- 사업 기획, 개발
- 마케팅 컨설팅, 판매 채널 개발
- 세미나, 워크샵
- 행정 지원
- 법률, 이민 지원
- 사무 지원

한국 비즈니스 개발 센터는 현지 한국 중소기업 개발을 지원하며, 투자 및 마케팅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현지 20개 기업에 사무실을 제공하고 있으며, 입주 회사는 다음과 같다.

- Jin Young I&C, G-1 Contents, Kyung Won, VC Tech, SJE Corporation, OKF, Marine Products Tech, Zeropack, Natura Medial, Inc., Ant21, Kumah Appliances, Lutronic, Eco-Frontier, CN Tech, Cheil Grinding Wheel Ind., RD-TEL, Aprocon, Inc., Cosmosway USA, IncomekOrea, Digital Multimedia Tech, and Good Feel Korea

채용 컨설팅

- 한국 회사의 채용 지원

KOTRA의 주요 목표

- 고급 한국 제품을 선보인다
- 미국 기업의 한국 사무소 설립을 지원한다
- 미국 기업이 한국 사업 파트너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
- 미국 투자자들에게 최첨단 한국 혁신 분야를 소개한다

KOTRA 한미 FTA Help Desk 및 지적 재산(IP) 데스크

KOTRA LA 무역 사무소에 있는 KOTRA 한미FTA Help Desk는 자유 무역 협정에 대한 최신 정보와 FTA 이점에 대해 보다 깊이 있는 비즈니스 컨설팅을 제공한다. KOTRA 산업 전문가와 외부 전문가들이 한미FTA, 반덤핑 관세, 원산지 결정 기준과 원산지 증명서, 정보 세미나, 워크샵, 정부 등록 및 규정, 업계표준, 인증서, 관세, 통관, 법률 상담, 회계, 금융 시장, 국제 무역, 의류 및 섬유, 자동차 부품, IT, 과학기술, 녹색 산업과 미디어를 비롯한 모든 관련 질문에 대해 응대한다.

KOTRA LA 무역 사무소 IP데스크는 지적 재산, 특허 출원 및 지적재산권 등록, 재산권 침해 대처 방안, 피해 구제 등에 대한 법률 정보를 제공한다. KOTRA는 기준을 충족시키는 신청자들의 지적재산권 등록시 출원 수수료 일부를 지원하기도 한다.

KOTRA 및 LA 카운티 경제 개발 공사 (LOS ANGELES COUNTY ECONOMIC DEVELOPMENT CORPORATION, LAEDC)

KOTRA 및 LA 카운티 경제 개발 공사는 한국과 LA지역의 경제 개발을 위해 수년간 함께 협력해 왔으며, 한국과 LA 카운티간 협력관계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이 파트너십의 결과, 특히 무역과 투자 관련하여 수 많은 혜택과 성장이 가능하였다. 두 지역의 무역 및 투자 증대는 고용 창출로 이어졌으며, 세계 수준의 경쟁력과 혁신을 가져왔다. 두 기관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두 지역 경제는 세계 상위 20위에 포함되어 있다.

2011년 9월, KOTRA와 LAEDC는 최초로 두 지역간 양해각서(MOU)에 서명하였다(서울). 상호 협력이 두 지역의 국제 무역, FDI 그리고 21세기의 인프라 구축을 촉진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다. 각 지역의 유명 기업과 지역 정부의 지원 하에 두 기관은 보다 견실한 경제 개발, 역동적인 사업 환경 구축과 지역 사회의 삶의 질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한국 정부, 무역, 투자 기관 (계속)

이 MOU는 LA와 서울이 각 국가의 경제 관문 역할을 하고 동시에, 상호 계획된 협력을 통한 시장 기회 활성화, 경제 확대, 공동 기술 개발, 기업 성장, 자본 투입, 고용 창출 등 이점을 재확인하고 있다.

KOTRA는 또한 LAEDC와 협력하여 동반성장 : 한국과 LA카운티 (Growing Together, Korea and Los Angeles County)를 출판하고, 롱비치에서 열리는 LA-롱비치 국제 무역 행사를 후원한다. MOU와 한미FTA를 통해 KOTRA와 LAEDC간 파트너십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인베스트 코리아 (KOTRA가 운영)

Invest KOREA는 한국의 국가 투자 진흥 에이전시이다. 1998년 Korea Investment Service Center (KISC)로 시작하여 2003년 Invest Korea로 명칭 변경하였으며,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외국인 투자자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 투자 상담
- 시장 조사
- 파트너 모색
- 행정 지원
- 법률, 회계 자문
- 정착 지원
- 후속 서비스

외국인 투자 옴부즈맨 사무소(OFFICE OF THE FOREIGN INVESTMENT OMBUDSMAN (KOTRA와 INVEST KOREA에 소속)

외국인 투자 옴부즈맨 사무소(OFIO) 또는 투자 옴부즈맨 사무소 (Office of Investment Ombudsman, OIO)는 한국소재 외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KOTRA와 Invest KOREA가 설립하였다. OFIO 또는 OIO는 외국기업들이 타국에서 사업운영 중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이슈, 사업 관리 문제와 생활 애로 사항 등 문제 해결을 지원한다. OFIO는 노동, 세제, 금융, 건설 등 다양한 분야별, 일대일 전문 서비스(“홈닥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OFIO나 OIO는 외국 기업의 고충을 듣고 충분히 해결함으로써 한국으로의 FDI 유치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외국인 투자 옴부즈맨은 2006년 임명된 안충용(Choong-young Ahn)씨이다.

한국 수출 보험 공사 (KOREA EXPORT INSURANCE CORPORATION, KEIC)

한국 수출 보험 공사 또는 KEIC는 1968년 채택된 수출 보험법 개정으로 2010년 7월 한국 무역 보험 공사 또는 K-sure로 명칭 변경하였다. K-sure는 수출 및 해외 투자 거래부터 수입까지 그 사업 범위가 확대 되었다. 한국 무역 보험 공사의 수입 보험 설계는 국가 경제에 핵심적인 천연 자원이나 원자재 확보를 돕고, 녹색 산업이나 문화 콘텐츠를 포함하여 글로벌 마켓을 리드할 수 있는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 촉진하는 것이다. K-sure는 LA에 해외 사무소가 있다.

한국 농수산 식품 유통 공사 (KOREA AGRO-FISHERIES & FOOD TRADE CORPORATION, AT CENTER)

AT Center는 1960년에 농수산 개발 회사 (Agriculture and Fishery Development Corporation, AFDC)로 처음 설립되었으며, 1986년 마케팅과 홍보 기능을 강화하여 농수산 마케팅 회사(Agricultural and Fishery Marketing Corporation, AFMC)로 명칭 변경하였고, 2005년 다시 현재의 농수산 식품 무역 회사(ATC)로 명칭이 바뀌었다. 전반적인 역할은 한국 농민의 수익성을 개선하고 보다 균형잡힌 국가 경제 개발을 이루는 것이다. 네 개의 핵심 목표는 한국 식품 수출 증진, 마케팅과 식품 산업 지원, 가격 안정화 프로그램 제공이다. 한국 농수산 식품 무역 회사는 LA에 해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 관광 공사 (KOREA TOURISM ORGANIZATION, KTO)

한국 관광 공사의 주요 목적은 한국을 관광지로 홍보하는 것이다. KTO는 LA에 해외 사무소가 있으며, 서부 13주 (알래스카, 아리조나,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하와이, 아이다호, 몬타나, 네바다, 뉴멕시코, 오리건, 유타, 워싱턴, 와이오밍)를 담당하고 있다. LA 사무소는 주로 언론, 여행 관계자, 여행사, 회의 기획자, 한국 커뮤니티와 협력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KOREAN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KITA)

한국무역협회는 1946년에 설립되었으며, 65,000개의 회원사를 보유한 한국 최대 비즈니스 협회이다. KITA는 한국의 주요 무역 진흥 기관이며, 한국이 세계 주도적인 무역 국가로 성장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한국은 국제 무역을 통해 세계 경제 대국의 대열에 합류할 수 있었으며, 가장 성공적인 수출 주도 성장 스토리를 만들 수 있었다. KITA는 한미 FTA를 포함하여 자유 협정을 강력하게 주창하여 무역 자유화 노력의 선봉에 서 있다.

KITA의 전략:

- 국제 협력
- 연구 및 교육
- 한국 시장 접근

LA 해외 한인 무역 협회 (OVERSEAS KOREAN TRADERS ASSOCIATION OF LOS ANGELES, OKTA LA)

재미 한인 무역기업은 한국 제품을 미국시장에 수입 판매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LA 해외 한인 무역 협회는 회원사들이 글로벌 전문가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영향력 있는 기관이다. 기관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다:

- 국내 해외 네트워크 기회 제공
- OKTA가 제공하는 자원 및 프로그램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 무역학교나 아카데미 등 프로그램을 통해 회원사 개발 및 지원.
- 재미한인 사업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 정치, 문화, 사회 이슈들에 대한 적극 대응

한미 경제 개발 연구소 (KOREAN AMERICAN ECONOMIC DEVELOPMENT CENTER, KAEDC)

한미 경제 개발 연구소는 2002년 LA에서 경제 연구 센터로 설립되었다. 비즈니스, 경제 및 사회 리서치, 컨퍼런스, 세미나, 교육 프로젝트를 주관하고, 이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한다. 주요 설립 목적은 다음과 같다.

- 한인 경제 및 사회관련 정보 제공
- 한인 사회 및 경제 기여도에 대한 이해
- 한인 사회 및 기타 공동체 사회 복지 증진

LA 한인 상공 회의소 (THE KOREAN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OF LOS ANGELES, KACCLA)

LA 한인 상공 회의소는 1971년 한인 커뮤니티가 새로운 비즈니스 환경에 적응하도록 돕는 기관 설립의 필요성을 느낀 진취적인 한국계 기업 오너들에 의해 설립되었다. KACCLA는 LA지역 회원사와 기타 기업 비즈니스 활성화를 취지로 다양한 프로그램과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KACCLA는 또한 한국, 중국, 브라질, 베트남 등의 상공회의소 및 기업들과 상호교류를 통해 해외 무대로 활동을 확대해가고 있다. KACCLA는 회원사를 위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끊임없이 모색하고 있다. KACCLA는 또한 LA지역 비즈니스에 중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타 커뮤니티 기반 기관들을 적극 지원한다.

LA KOTRA 사무소 내 한국 지역 대표 사무소

부산 광역시

부산은 한국에서 서울 다음으로 큰 도시이며, 항만 도시이다. 부산항은 한국의 주요 항구이며, 세계 5대 컨테이너 항구로 한국 전 지역으로 이어지는 전략적 관문이다. 부산은 또한 1967년 12월 이후 LA와 자매 도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두 도시 간 많은 문화적, 비즈니스적 연대가 있으며, 부산은 LA에서 매년 열리는 한국의 날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부산 무역 사무소는 LA KOTRA 사무소에 위치해 있다.

경제

부산이 세계 5대 컨테이너 항구라는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부산 최대 산업은 항만, 물류이다. 부산은 또한 한국의 남동 경제 벨트를 구성하며, 자동차 부품 및 자재, 영화, IT, 금융의 도시이기도 하다. 부산은 외국 사업가들이 선호하는 지역으로, 르노 삼성 자동차, 롤스로이스, Fraunhofer, 보쉬코리아 (Bosh Korea) 등 624개의 외국기업이 있다.



LA KOTRA 사무소 내 한국 지역 대표 사무소 (계속)

부산 개요

위치	한국 동남부
인구	3,700만
수출	USD 546억
수입	USD 265억
주요 산업	해운, 관광, 영화, IT, 자동차 부품 제조
특별 경제 구역	부산-진해 자유 경제 구역
산업 인프라	김해 국제 공항, 부산항

부산에는,

- 24개 고등 교육 기관
- 20개 이상 사원과 기타 종교 또는 역사 유적지
- 12개 주요 의학 센터
- 강서 국제 산업 물류 도시, 부산 국제 금융 센터가 있다.

부산 항- 한국의 해양 수도

- 1876년 개항
- 세계 5대 컨테이너 항구
- 2011년 16백만 이상 TEUs 처리
- 2011년 최고 성장률 기록
- 하루 130여대 화물 및 여객선 이용

문화와 관광

부산은 또한 유명한 관광지로 특히 국제 컨벤션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한다. 부산은 국제협회연합(Union of International Associations)이 선정한 10대 아시아 국제 컨벤션 도시 중 1위를 차지하였다. 2002년 아시아 게임, 2002년 FIFA 월드컵, 2005년 APEC 정상회담 등 대규모 국제 행사들을 개최하였다. 또한, 매년 국제 영화제가 열리며, 동부산 관광단지(East Busan Tourist Complex)에는 매년 200만 명의 외국인과 2,600만 명의 한국인이 방문하고 있다. 그 외 골프 코스, 놀이공원, 쇼핑몰, 건강 리조트 등의 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부산 무역 사무소
(KOTRA LA 무역 사무소에 위치)

부산무역사무소는 1996년에 플로리다 마이애미에 최초 설립되었으며, 2006년 LA KOTRA/KOREA 비즈니스 센터 사무소로 이전하였다. 부산 무역 사무소는 북미와 남미 전 지역의 바이어들을 위한 주요 무역 사무소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부산광역시 정부의 공식 미 대표 사무소이다. 주요 목표와 역할은 다음과 같다.

- 바이어들을 위해 제품 및 부산 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
- 부산 기업들과 바이어의 커뮤니케이션 지원
- 북남미에서 개최되는 컨벤션이나 무역박람회 참여 부산 기업 지원
- 바이어와 부산 기업간 사업 교류 지원을 위한 ‘무역 사절단’ 행사 홍보
- 외국인 직접 투자 및 관광 유치
- 미국 자매도시와 결연 강화
- 북남미에서 부산 광역시 정부 홍보지원

광주 광역시

광주는 글로벌 시대에 빠르게 적응하여 환경 친화적 도시로 급부상하고 있다. 광주는 “녹색”, “청정” 도시를 지향함으로써 환경 친화적 기술의 모범이 되고, 깨끗한 도시 및 농촌 복합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규모 면에서 한국 6위 도시인 광주는 KOTRA LA 무역 사무소에 대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광주 개요

위치	한국 남서부
수출	150만
수입	598억 달러
주요 산업	신재생에너지, 포토닉, 하이텍 자재 및 부품, 농업
산업 인프라	무안 국제 공항, 광양항



경제

광주는 차세대를 겨냥한 경제 및 산업 정책을 실천하고 있다. KIA 자동차, 삼성 전자 등 한국의 대기업을 유치하여 100억 달러의 수출을 달성하였고, 제조 및 수출 뿐 아니라 주요 미래 첨단 사업을 빠르게 육성하여 도시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광주는 제품 생산 및 판매를 넘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국제 경쟁력을 갖춘 생산성 있는 도시로 도약하고 있다.

- 광주 3대 핵심 산업경쟁력 강화
- 4대 전략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강화
- 5대 신 기술 애플리케이션 산업 육성
- 신 성장 동력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강화
- 기업 친화적 도시 육성

LED, 자동차 및 전자제품으로 선택과 집중

- 기아 자동차의 생산 라인 확대 결정과 디지털 전자 홍보 프로젝트 완료로 기술, 인력자원, 인프라가 강화되었다.
- 5대 LED 산업 도시로 끊임없는 성장을 이루고 있다.

미래를 위한 신 성장 동력

- 첨단 부품 자재, 설계 산업, 신재생에너지, 문화 콘텐츠 산업으로 미래 산업을 위한 기반을 다졌다.

기업 친화적 도시

- 산업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중소기업을 포함한 보다 많은 국내 및 해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기업 친화적 환경 조성
- 기업이 선호하는 도시가 되기 위한 핵심

문화와 관광

광주는 예술의 도시이며 한국 전통 판소리 명인 임방울, 동양화가 의재 허백련, 중국현대 음악가 정율성, 시인 박영철 등 예술인의 고향이다. 무엇보다도 광주 비엔날레와 디자인 비엔날레 등 현대 아트 및 디자인 국제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아시아 문화의 허브로 변모하였다. 광주는 이러한 문화 경쟁력을 바탕으로 아시아의 문화 허브로 거듭나기 위해 장기 프로젝트(2003년~2023년)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12년 풍피두 수준의 국립 아시아 문화 전당이 오픈 함에 따라 이제는 세계 문

화의 허브로 나아갈 것이다. 광주에서 개최되는 5대 주요 페스티벌은 광주 비엔날레,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 광주 김치 페스티벌, 임방울 한국 전통 음악 축제, 광주 정율성 국제 음악 축제이다.

이러한 광주의 역사는 조선 후반 의병 활동에서부터 광주 학생 독립 운동과 5.18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러한 역사로 광주는 민주, 인권, 그리고 평화의 도시로 인식되었다. 특히 5.18 민주화 운동은 군사 정권에 대한 저항으로 자유와 정의를 갈망하는 많은 아시아 국가들의 모범이 되고 있다. 2006년과 2007년 개최된 노벨 평화상 수상자 회담과 여성 포럼은 광주 정신, 민주화, 인권, 그리고 평화에 대한 인식을 전세계에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광주, 동북 아시아의 문화 허브

광주는 오랜 동안 대표적인 문화와 예술의 도시였다. 이러한 문화 전통을 기반으로 국제적인 비엔날레인 광주 비엔날레와 디자인 비엔날레를 개최하였다. 광주의 이러한 문화적 위상과 함께 2012년 아시아 문화 전당을 오픈 함으로써 광주시는 계속 혁신과 변화를 주도할 것이다. 문화 수도 광주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다음과 같은 노력을 통해 광주는 아시아 문화의 창, 그리고 국제 문화 허브로서의 역할을 계속 할 것으로 기대된다.

- 광주를 문화 수도로 만들기 위한 토대 구축
- 문화수도에 맞는 문화 시설 개선
- 국제 문화 교류 활성화와 시민 문화 역량 향상
- 경쟁력 있는 문화 산업 육성
- 지역 스포츠 증진을 위한 기반 마련



LA KOTRA 사무소 내 한국 지역 대표 사무소 (계속)

- 광주를 아시아 문화 허브로 만들기 위한 대대적 변화
 - 아시아 문화 전당 건물 착공 후 광주는 문화 수도에 맞는 보다 많은 문화 시설 구축. 총장로 거리를 문화의 거리로 지정, 사직 문화 예술 공원 조성을 통해 도시 중심을 문화적으로 리모델링
- 창의성과 진화를 반복하는 문화 산업화
 - 영화 문화 전당과 문화 산업 단지를 조성하는 등 문화의 산업화를 위한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창의적인 문화 콘텐츠 개발과 생산 도모.
- 국제 행사를 유치하여 세계의 빛으로 광주를 홍보.

광주를 빛의 도시로 강조하여 브랜드화하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국제 행사 유치를 위한 인프라를 기준으로 2009년 포토닉스 엑스포, 2014년 세계 수소 에너지 컨퍼런스를 포함하여 다양한 행사를 계획한다. 또한 2015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개최 도시로 광주를 세계 문화, 관광, 스포츠의 도시로 홍보하고,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광주에는:

- 11개 공업 단지(2개 국가 공업 단지)와,
- 16개 주요 연구 기관이 있다.

경기도

경기도는 한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전체 인구의 48%가 거주하고 있다. 인구 기준으로 제 1위, 제 3위 도시가 모두 경기도에 위치해 있다(서울과 인천). 경기도는 산과 숲, 국립공원과 기타 역사 유적지가 많으며, 북한과 국경을 접하고 있어 국제 관계 측면에서도 전략적 중요성이 크다. 경기도 무역 사무소는 KOTRA LA 무역 사무소에 위치해 있다.

경기도 개요

위치	북서부
수출	632억 달러
수입	598억 달러
주요 산업	IT, 바이오-제약, 화학, 신재생에너지, 관광, 자동차
산업 인프라	인천 국제 공항, 평택항

경제

정보 기술(IT)은 한국 주요 산업 중 하나이다. 다수의 IT 기업이 경기도에 소재해 있을 뿐 아니라, 주요 IT 소비 기반도 이 지역에 위치해 있다. 또한, 한국 중공업생산 상당 부분이 경기도에서 이루어진다. 수원 삼성 반도체, 파주 LG LCD 단지, Merck, 이천 하이닉스가 모두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 디스플레이 산업의 44%, 반도체 산업의 83%가 경기도에서 생산되고 있다. 경기도는 또한, 견실한 자동차 산업 기반을 갖춘 지역으로 한국의 4대 자동차 생산기업이 위치하고 있으며, 연간 180만대 차량이 경기도에서 생산된다. 또한, 한국 바이오 산업의 46.9%와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상당 비율이 경기도에 기반을 두고 있다.

경기도는:

- 4군과 27시로 구성
- 한국의 관문이라 할 수 있는 인천 국제 공항, 한국의 주요 항만이 위치
- 32개 국립, 사립 대학

문화와 관광

경기도는 광범위한 역사, 문화 유적지, 자연 경관을 자랑한다. 서울이 제공하는 무수한 편의성 외에도 외곽지역은 산과 사원이 많으며, 비무장지대 (Demilitarized Zone, DMZ)가 경기도 북부 국경지대에 걸쳐있다. 이 지역의 정치에 관심이 있는 관광객들은 DMZ를 방문하고, 전사자들을 기리며, 평화를 기원하는 박물관을 방문하거나 축제에 참여한다.



경상남도

경상남도는 한국에서 가장 산업화된 지역이다. 기계류, 조선, 자동차, 우주 항공 분야 총 생산이 한국 국가 지표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경상남도 경제개발 비전에 따라 자유 경제 구역 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다. 부산-진해 경제 자유 구역(FEZ)은 글로벌 비즈니스와 물류에 대한 기준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 광양만 FEZ는 해양 산업 개발 외에, 유통과 신산업 중심의 기업 친화적 지역이다. LA KOTRA 무역 사무소에 경남 대표 사무소가 있다.

경상남도 개요

위치	남동부
수출	546억달러
수입	265억달러
주요 산업	조선, 기기, 항공, 자동차 부품, 농업, 해양
특별 경제 구역	부산-진해 자유 경제 구역 (FEZ), 광양만 자유 경제 구역
외국인 투자 지역	사천 외국인 투자 지역, 창원 남면 외국인 투자 지역
산업 인프라	부산 신항, 삼천 항, 광양만항, 김해 국제 공항, 사천 공항

경제

경상남도는 2009년 총생산이 651억 달러였으며, 경제 규모가 큰 대도시 중 하나이다. 대표 산업은 항공으로 한국 항공 산업의 86%를 차지한다. 세계 10대 조선소 중 4개가 이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곳이 한국 조선 산업의 57%를 차지한다. 또한, 경남 지역은 한국 최대 기계 산업 벨트이며, 특히 이 지역의 기계 생산 규모는 국가 전체 기계 생산의 26%를 차지한다.

경남지역에는:

- 14개 공업단지가 있다.

문화와 관광

경상남도는 지리적으로 유리한 한국 남부 해안에 위치해 있어 우수한 자연과 해양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세계 수준의 리조트와 관광 단지 개발 투자 등 관광산업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해양 공원, 제방, 컨벤션 센터, 골프 코스 건설 계획이 진행 중이다. 경상남도는 또한 4개 국립 공원, 6개 사원과 수많은 기타 역사 문화 유적지를 자랑한다.

경상북도

경상북도는 세계 수출 시장을 겨냥하여 지역 글로벌화 홍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경상북도는 수출 희망 국가에 대표를 파견하고 있으며, KOTRA LA 무역 사무소 내에 경북 대표 사무소를 두고 있다. 미국은 중국 다음으로 큰 수입 시장이며, 경상북도 총 수출의 17.2%를 차지한다.

경상북도 개요

위치	남동부
수출	400억달러
수입	250억달러
주요 산업	통신, 정보 기기, 농업, 수산업
특별 경제 구역	대구-경북 자유 경제 구역
산업 인프라	대구 국제 공항 (김해 국제 공항으로도 접근 용이), 포항 공항, 울진 공항, 포항항, 구룡포항, 울포항, 후포항, 울릉항

경제

경상북도 총생산은 2009년 603억 달러를 넘었으며, 한국의 4위 지역이다. 경북 경제의 60.0%를 서비스 분야가 차지하고 있으며, 2010년 1,265억 달러의 전자제품을 수출하였다. 그 다음으로 큰 사업부문인 농업, 임업, 수산업이 22.1%, 광업, 제조업이 17.9%를 차지하고 있다.



LA KOTRA 사무소 내 한국 지역 대표 사무소 (계속)

서비스 분야 중 IT 사업 규모가 가장 크다. 경북 남서 지역은 한국 최대 전자 공업 단지가 위치해 있다. 남서 지역 IT는 대부분 가정용 전자제품, 정보 기기 등이며, 동부 해안지역은 철강과 신소재 산업이 강하다. 경북의 북부 지역은 전통 한의학파 해양 연구로 유명하며, 주요 농산품으로 쌀, 사과, 멜론, 포도가 재배된다. 수산업에는 12,000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연간 배 5,000여 척 분량을 수출한다. 이 지역에서는 또한 담수 수족 자원의 공급 유지를 위한 전문연구 조사 및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경상북도는:

- 16개 공업 단지(2개 국가 공업 단지)
- 38개 대학(250,000명의 대학생)
- 349개 연구 기관이 있다.

문화와 관광

경상북도는 신라왕국에 뿌리를 두고 있다. 경주에는 신라왕국의 유적이 많이 있으며, UNESCO 세계 유산으로 등재되어 있고, 6개 국립 공원, 4개 도립 공원, 5개 시립공원과 782개 관광 기업이 있다.

충청남도

한국의 중심부에 위치한 충청남도는 교통과 물류 경제 중심지로 한국의 가장 역동적인 산업 활동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본격적인 경제 발전이 진행 중이다. 또한, 충청남도는 가격 경쟁력 있는 토지가격, 풍부한 인적 자원,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산업 용수를 제공하며, 우수한 사회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가장 사업하기 좋은 지역으로 꼽힌다. 충남은 새로운 변화를 통해 보다 밝은 미래를 그리고 있다.

충청남도 개요

위치	한국 중부
수출	540억달러
수입	249억달러
주요 산업	디스플레이, 통신, 자동차, 석유화학
특별 경제 구역	황해 자유 경제 구역
산업 인프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항: 평택 당진항, 대산항, 태안항, 보령항, 장항항 • 고속도로: 경부, 호남, 서해안, 당진 고속도로, 공주-서천간 고속도로

사업 환경

충남은 다양한 금융, 레저, 쇼핑, 문화 시설을 포함하여 편리한 주거 환경을 제공한다. 또한, 충분한 인적 자원과 완벽한 사회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최적의 사업 환경을 자랑한다.

- 숙련된 인력 (35개 대학, 33개 직업 고등학교)
- 우수한 교육 기관 (522개 유치원, 1개 외국어 고등학교)
- 의료 시설 (13개 종합 병원, 958개 클리닉)
- 여가 시설 (20개 골프 코스, 9개 승마장, 12개 스포츠 컴플렉스)
- 세계 수준의 위락시설 (18개 호텔, 10개 콘도미니엄)

문화와 관광

충남은 오랜 역사와 백제 문화가 살아 숨쉬는 지역으로 아름다운 자연 환경으로 둘러 싸여 있다. 한국 중심에 위치하여 전국 어디에서도 접근이 용이하며, 서해 관광 벨트와도 근접하여 관광지로서 매력도 갖추고 있다.



LA 카운티에 본사를 둔 한국 소재 사모펀드 기업 (PRIVATE EQUITY FIRM)

오크트리 캐피탈 매니지먼트 (OAKTREE CAPITAL MANAGEMENT)

오크트리 캐피탈 매니지먼트는 1995년 설립된 사모펀드 전문 회사로 LA 다운타운에 본사를 두고 있다. 이 회사는 한국을 비롯한 9개 국가에 13개 사무소를 운영하고, 58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현재 관리하는 자산 규모는 대략 730억 달러이며, 선호하는 파이낸싱 전략은 ‘distress for control’ 과 바 이아웃 방식이다.

오크트리는 다음 투자 전략에 초점을 두고 있다: 고수익 부채, 전환사채, 부실 채무, 사모 주식, 부동산, 상장주식

오크트리 코리아는 서울에 사무소가 있으며, 한국 내 핵심 투자 전략은 다음과 같다:

- **전환사채(Convertibles)** - 국제 전환사채
- **사모 주식(Private equities)** - Asia Principal
- **부동산** - 아시아 특별 상황
- **상장 주식 (Listed equities)** - 신흥 시장



5장 • 비즈니스 관계

LA 카운티에 본사가 있고, 한국에 사무소를 둔 포춘 500대 기업

월트 디즈니

2011년 매출: 409억달러

월트 디즈니는 1923년 LA에 설립되었다. 버뱅크에 본사가 있으며, 세계 최대 국제 패밀리 엔터테인먼트 및 미디어 기업이다. 이 회사는 스튜디오 및 엔터테인먼트, 공원 및 리조트, 소비자 상품, 미디어 네트워크 네 개 부문으로 나뉜다. 버뱅크에 위치한 월트 디즈니 스튜디오는 1937년 풀 애니메이션인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이”를 최초로 선보였고, 1955년에 인근 애너하임에 디즈니랜드를 개장하였다.

1992년 이후 한국 내 디즈니 사업은 미디어 네트워크(디즈니 채널, Playhouse 디즈니, 디즈니 미디어 배급, ESPN), 캐릭터 상품, 출판, 인터랙티브 미디어, 홈 앤 스튜디오 엔터테인먼트로 까지 확장되었다. 2010년 5월, 월트 디즈니사는 자회사 디즈니 채널 인터내셔널과 SK텔레콤과 함께 한국어 디즈니 브랜드 채널을 한국에서 출범하는 조인트 벤처에 서명하였다.

DIRECTV

2011년 매출: 272억달러

DirecTV는 북남미 지역에 3천만 이상 구독자를 보유한 디지털 TV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선도 기업이다. 16,000명 이상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지상파와 모니터 위성 방송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DirecTV는 285개 채널로 고객에게 방송 프로그램을

을 제공하고 있다.

DirecTV는 한국에 사무소가 없으나, SBS (전 서울 방송), MBC(문화 방송)와 24시간 뉴스채널 YTN(전 연합 TV뉴스) 등 방송사에 10개 채널이 포함된 한국어 방송 패키지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 TV채널 접근을 통해 미국 거주 한인들과 재미 한인동포들이 한국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접할 수 있다. 또한, 이들 채널은 광고기업에게 북남미 시청자를 겨냥한 광고 시장 기회를 제공한다.

릴라이언스 스틸 앤 알루미늄 (RELIANCE STEEL AND ALUMINUM)

2011년 매출: 81억달러

LA에 본사를 둔 릴라이언스 스틸 앤 알루미늄은 북미 최대 메탈 서비스 센터 회사이다. 한국, 벨기에, 캐나다, 중국, 말레이시아, 멕시코, 싱가포르, 영국 등 25개국 200개 이상 지역에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고부가가치 금속 가공 서비스를 제공하며, 100,000개 이상의 금속 제품 full line을 보유하고 있다. 용융 아연 도금 제품, 후판 제품, 냉연 제품, 스테인레스 스틸, 알루미늄, 황동, 구리, 티타늄과 합금 등 제품을 판매 한다.

발렉스 코리아와 야드 메탈스는 모두 릴라이언스 스틸 앤 알루미늄 자회사로, 한국에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발렉스 코리아는 초고순도의 볼 밸브(ball valves)외에, 초고순도 가스전송



시스템에 사용되는 토탈 격납 부품과, 스테인레스 스틸 튜빙과 피팅을 전문으로 한다.

에이컴 (AECOM)

2011년 매출: 80억달러

AECOM은 세계 최대 엔지니어링 설계 회사 중 하나로 교통, 설비, 환경, 에너지, 용수, 정부를 대상으로 한다. 1990년 6개 회사들이 합병을 통해 설립된 AECOM은 이후, 30개 회사를 인수하였으며, 세계 최대 규모의 전문적 기술, 관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 성장하였다. 본사는 LA 시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약 125개 국가에서 활동하고 있다. AECOM은 아시아에 4,800명을 포함하여, 전 세계 45,00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핵심 서비스 분야는 아키텍처, 빌딩 엔지니어링, 설계 및 기획, 경제, 에너지, 환경, 지질 공학, 정부 서비스,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 관리, 교통, 도시 개발 및 용수 등이다.

AECOM은 서울 삼성암센터(아시아 최대규모)와 한국산업은행 본사, 연세대학 의료 센터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을 설계하였다.

도올 푸드 컴퍼니(DOLE FOOD COMPANY)

2011년 매출: 72억달러

웨스트 레이크 빌리지(WESTLAKE VILLAGE)에 소재한 도올 푸드 컴퍼니는 유기농 바나나, 파인애플, 포장 및 냉동 과일 등을 포함한 천연 과일 및 야채 주스 생산, 마케팅 회사이다. 36,000명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한국을 포함한 90여 개 국가에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도올 푸드 컴퍼니는 한국에 2개 농장, 2개 숙성 및 판매 센터, 지역 사무소와 공장(경기도)을 운영하고 있다.

에버리 데니슨 (AVERY DENNISON)

2011년 매출: 68억달러

1935년 설립되었고, 패서디나에 본사가 있으며, 산업용 라벨링 솔루션 제공을 전문으로 한다. 접착제 (self-adhesive materials), 라벨, 테이프, 사무용품, 태그, 리테일 시스템과 전문 화학제품을 생산한다. 에버리 데니슨은 50여개 국가에서 30,000명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다.

한국 사무소는:

- 에버리 데니슨 주사무소/판매 센터/기타(안양, 대구, 부산)
- 에버리 데니슨 자재 (대구, 청주, 서울, 부산)
- 에버리 데니슨 판매 사무소 (부산)
- 아시아 퍼시픽 그룹 [자회사] (경기도 소재)
- 월드와이드 티켓팅 서비스 아시아 (서울 소재)
- ICE 코리아 (서울)
- RIS Paxar (서울)
- RVL 패키징 코리아(서울)

마텔 (MATTEL)

2011년 매출: 63억달러

엘 세군도 (El Segundo)에 본사를 둔 세계 최대 장난감 수입 기업이자 미국 최대 장난감 생산기업이다. 1945년에 설립되었으며, 바비인형 제품라인으로 가장 유명하다. 그 외 세계적으로 알려진 제품에는 폴리 포켓, 리틀마미, 디즈니 캐릭터 인형, 핫휠스 자동차, 매치박스, Tyco R/C, 기타 자회사인 Fisher-Price 제품들이 있다.

2008년 현재 마텔은 43개국(한국 포함)에 종업원 29,000명을 고용하고 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마텔 전체 고용의 65%를 차지하며, 북미지역이 30%를 구성하고 있다. 미국 내 채용의 43%는 캘리포니아에서 이루어진다. 마텔은 한국에 사무소와 창고를 운영하고 있다.

씨비리차드엘리스 그룹 (CB RICHARD ELLIS GROUP)

2011년 매출: 59억달러

세계 최대 상업용 부동산 서비스 기업으로 전 세계 300개 사무소에 30,000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다. LA 산타 모니카 인근에 본사가 있다.

서비스 분야는 부동산 매매와 리스관련 전략 자문, 기업 서비스, 부동산, 시설 및 프로젝트 관리, 모기지 बैं킹, 감정, 평가, 개발 서비스, 투자 관리, 리서치 및 컨설팅 등이다.

씨비리차드 엘리스는 1999년에 서울 사무소를 설립하였으며, 서울 아시아 태평양 지역 사무소에 130명의 부동산 전문가들이 있다. 한국 사무소는 리스, 매매, 평가, 투자, 자산 관리, 리서치, 컨설팅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LOS ANGELES COUNTY COMPANIES PRESENT IN KOREA

금융 서비스

(L.A. 카운티에 본사가 있으나 한국에 사무소가 없는 한국계 미국은행)

BBCN BANK

Nara Bancorp과 Center Financial이 2011년 11월 합병하여 BBCN은행이 탄생하였다. BBCN 은행은 현재 미국에 있는 최대 한국계 은행이며, 캘리포니아, 뉴욕, 뉴저지, 시애틀, 시카고에 40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고, LA 카운티에서는 규모 7위 은행이다.

- 1989년에 당시 미주은행으로 불린 최초의 BBCN BANK가 LA에 설립되었다
- 캘리포니아 전체 한국계 미국 은행 중 수신고 최대
- LA 카운티 15개 지역에 위치

한미은행 (HANMI BANK)

한미은행은 미국에서 두 번째 규모의 한국계 은행으로 재미한인 인을 상대로 다양한 종류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

- 1982년 LA에 설립
- 27개 지점이 있으며, 19개는 LA 카운티에 위치
- 모기업인 한미 파이낸셜 그룹이 2000년에 설립되었으며 LA 시내에 본사가 있다

윌셔스테이트뱅크 (WILSHIRE STATE BANK)

캘리포니아 전역에 24개 지점을 운영하며 다양한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 내 한국계 은행이다. 기업 고객, 개인 고객, 무역 금융, 모기지 대출 등 금융서비스를 다국어로 제공한다.

- 캘리포니아, 텍사스, 뉴저지, 뉴욕에 34개 지점 운영
- 본사는 LA 윌셔 블러버드에 위치하고 있다

새한은행(SHEHAN BANK)

새한은행은 새한 뱅콥(Shaehan Bancorp.)의 자회사인 한국계 미국은행이며, 1990년에 캘리포니아에서 설립된 이후 10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 2001년부터 윌셔 블러버드에 본사 위치, 2008년부터 올림픽 블러버드에 사무소 운영
- LA와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 다양한 금융 서비스 제공

퍼시픽 시티 뱅크(PACIFIC CITY BANK)

2003년 영업을 시작한 이래 여러 LA 지점에서 “Pac City”로도 알려진 한국계 미국은행이다. Pac City는 맞춤형 금융 서비스가 강점으로 full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캘리포니아 주법 은행(California State-Chartered Bank)이다.

- 윌셔 블러버드에 본사 위치
- 캘리포니아 남부 7곳에 지점이 있으나, 주로 LA 지역에 집중

커먼웰스은행 (COMMONWEALTH BUSINESS BANK)

“CBB”로 더 잘 알려진 커먼웰스 은행은 전통적인 full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계은행이다. CBB 금융 솔루션팀은 개별 회사나 개인 banking 요구를 만족시키는 맞춤형 금융 솔루션을 설계하여 제공하고 있다.

- 2005년 초부터 LA에서 영업
- 두 개 센터가 윌셔 블러버드와 타운 에브뉴에 각각 위치
- 기업 및 개인 예금, 대출 상품 제공



비즈니스 서비스

4개 대형 회계 법인(회사와 각 서비스 본부가 LA에 없으나, LA 다운타운에 위치한 사무소에서 한국 회계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프라이스 워터하우스 쿠퍼스 (PRICE WATERHOUSE COOPERS, 삼일LLC)

삼일 LLC는 PWC의 한국 사무소이다. 감사, 보증, 컨설팅, deal, HR, 국제 재무 보고 기준 (IFRS), 법률, middle market, 비공개 기업, 세금 등이 전문 서비스 분야이다. 삼일 PwC는 한국 감사 서비스 부분 최대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으며, 삼일 PwC의 IFRS부문은 문서 공개 및 한국 기업들이 국제 재무 보고 기준에 부합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서울, 부산, 대구, 광주에 사무소가 있다
- 월간 한국 TAX 뉴스레터를 발간한다
- 기업 지배구조, 중국 경제 추이, 업무 효율성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삼일 뷰(Samil View)를 매 2년마다 출간한다

DELOITTE & TOUCHE (딜로이트 안진 LLC)

딜로이트 안진 LLC 한국 데스크와 한국 서비스 그룹 (KSG)은 한국 다국적기업의 신규 지점, 자회사 설립을 지원하고, 세금 관련 서비스, 회계, 감사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또한, 서울에 딜로이트 컨설팅 사무소가 있으며, 세계 수준의 전략과 운영, 인적자원, 기술, 리스크 분야 컨설팅을 전문으로 한다.

- 딜로이트 안진은 14개 국가와 미국 19개 도시에 코리아 데스크 운영(LA다운타운 포함)
- 2,000명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딜로이트 안진의 산업 팀에는 금융서비스, 생산 기술, 미디어, 통신, 소비자 비즈니스 및 교통, 에너지, 자원, 생명 과학, 의료 및 공공 분야 포함
- 한국 사무소는 서울, 부산, 충남, 대구, 경남에 있으며, 컨설팅 사무소는 서울에 위치

ERNEST AND YOUNG (한영 LLC)

어니스트 앤 영 한국 사업 서비스 그룹 (KBS)은 자회사와 모회사들이 직면한 지정학적 어려움을 줄이고자 설립되었다. 중점 분야는 자문, 보증, 거래, 전략적 성장 시장 등 다양한 전문 서비스이다.

- 부산과 서울에 사무소 운영
- 자동차, 청정 기술, 소비자 제품, 금융 제품, 정부 및 공공 분야, 생명 과학, 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 광업과 금속, 오일 및 가스, 전력 및 유틸리티, 사모펀드, 부동산, 기술, 통신 산업

KPMG (삼정 KPMG)

KPMG 미국 내 코리아 데스크는 LA에 위치해 있으며, 특히 한국 기업들에게 회계 및 경영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삼정 KPMG는 KPMG의 한국 자회사이며, 감사, 세금, 금융 관련 자문, 경영 컨설팅을 제공하고, 많은 한국 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 또한, 삼정 KPMG와 아울러 삼정 경제 연구원(Economic Research Institute)은 국내 및 국제 경제 사업 추이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력과 정보를 제공한다.

- 미국 내 코리아 데스크는 한국 기업을 위한 뉴스레터를 발간하고 변화하는 경영 환경과 미국 경제 흐름에 대한 교육 과정 제공
- 삼정 KPMG는 1991년 한국에 설립되었으며 서울과 대구에 사무소 운영

콘/페리 인터내셔널 (KORN/FERRY INTERNATIONAL)

LA에 본사를 둔 콘/페리 인터내셔널은 임원스카우트 및 인재 관리분야의 세계 선도기업이다. 한국을 포함하여 40개 국가에 90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 1998년 처음 한국에 개설
- 서울에 지역 사무소 위치
- 2001년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가 인정한 아시아 최고 임원 채용기업



LOS ANGELES COUNTY COMPANIES PRESENT IN KOREA (계속)

법무 법인

폴 해스팅스 (PAUL HASTINGS)

1951년에 설립된 폴 해스팅스 로펌은 LA사무소에만 160명의 변호사와 52명의 파트너가 근무하고 있다. 본사인 LA사무소는 광범위한 분야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용법률 부서는 6년 연속 “올해의 글로벌 노동 및 고용 법인”으로 지정되었으며, 노숙자 예방 프로젝트를 인정받아 “공익 활동상(Pro Bono Award)”을 수상하였다.

폴 해스팅스 로펌은 아시아에 입지를 구축한 최초의 미국 로펌 중 하나이다. 아시아 시장 개척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2012년 서울에 사무소 개설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폴 해스팅스 변호사들은 인수 합병, 에너지 발전, 투자, 금융 기관 등 다양한 한국 관련 분야를 전문으로 하고 있다.

- 삼성전자, 한화 화학을 비롯한 한국 기업 변호

오멜번니 앤 마이어 (O' MELVENY & MYERS)

1885년 오멜번니 앤 마이어 LA사무소가 설립되었으며, LA 다운타운 로펌 중 가장 많은 변호사를 보유하고 있다. LA사무소 전문 분야는 독점방지, 경쟁, 기업 세금, 기업 금융, 지적 재산과 기술, 노동, 고용, 인수 합병, 제품 책임 배상, 집단 피해 불법 행위 (mass torts), 구조 조정, 채권 소송 및 기업 형사 소송 변호 (white collar defense), 기업 조사 등이다.

오 멜번니 앤 마이어는 한국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는 해외 로펌 중 하나이며, LA, 상하이, 싱가포르, 브뤼셀에 거주하는 한국 국제 거래 및 분쟁 전문 변호사들이 활동 중이다.

- 법무 팀에는 미국, 영국, 홍콩 변호사들과 한국 변호사들 포함
- 한국 기업 고객 중 아시아나, 하이닉스 반도체 등 변호

라탐 앤 와트킨스 (LATHAM & WATKINS)

1934년에 라탐 앤 와트킨스 LA사무소가 설립되었으며, 현재 266명의 변호사와 84명의 파트너가 있다. LA사무소는 스포츠, 에너지, 엔터테인먼트 등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의 주요 산업을 대상으로 하며, 파산, 기업, 세금, 부동산, 기타 법률 분야를 전문으로 한다.

라탐 앤 와트킨스는 한국에서 광범위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에 현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나, 아시아 지역에 100명의 변호사들이 활동 중이며, 한국 기업관련 여러 소송을 다루었다.

- 몬스터 월드 와이드의 잡코리아 인수, 한국 제일은행 인수 시 법률 고문으로 참여하였다

루이스 브리스보이스 비스가드 앤 스미스 (LEWIS BRISBOISE BISGAARD & SMITH)

LA에 본사가 있으며, 전 세계 19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LA사무소는 255명의 변호사와 180명의 파트너들이 독점방지, 파산, 기업, 지적 재산 등 광범위한 분야를 다루며, 한국 고객과 재미 한인동포의 다양한 필요성을 만족시키기 위해 한국 비즈니스 및 소송 그룹을 설립하였다.

- 다수의 한국 로펌과 긴밀한 관계 유지
- 한국 법률 전문가와 광범위한 네트워크
- 아시아 포춘 500대 기업 다수 변호

미셸 실버버그 앤 넵 (MITCHELL SILBERBERG & KNUPP)

LA에 설립되었으며, LA, 뉴욕, 워싱턴 D.C. 사무소에 125명의 변호사를 보유하고 있다. 이 로펌과 소속 변호사들은 세법, 노동, 지적재산권, 상표권 관련 소송, 저작권 분야 전문성으로 유명하다.

- 한국에서 저작권 이슈 소송 경험
- 미국과 한국간 무역을 포함하여 통관 관련 이슈, 국제 무역 관련 소송 지원



위락산업 및 관광 사업

프린세스 크루즈 (PRINCESS CRUISES)

프린세스 크루즈는 세계 3대 크루즈 기업이다. 산타 크라리타에 본사가 있으며, 1965년부터 멕시코로 크루즈 운항을 시작하였다. 매년 130만 승객을 수송하고, 17개 선적을 소유하고 있다. 약 100개 운항 일정을 제공하며, 7개 대륙을 항해하고, 350개 항구에 입항한다. 한국을 포함한 많은 아시아 지역을 크루즈 코스에 포함시킬 수 있다.

- 한국으로 입항 출항 - 동남 아시아와 중국 크루즈 (한국 부산 경유), 일본 및 극동 코리아 크루즈 (한국 부산 경유)

패션 디자인 & 제작

LA 카운티는 미국 의류 생산 수도이며, 어메리칸 어페럴, BCBGMAXAZRIA, 포에버 21, 게스, 케런 케인, 세븐 포 올 맨카인드, 트루 릴리전을 포함한 유명 디자이너 라벨이 탄생한 곳이기도 하다.

아메리칸 어페럴 (AMERICAN APPAREL)

LA 다운타운에 위치한 의류 디자인, 생산, 유통, 판매 기업이다. 주로 티셔츠, 데님, 스웨터, 재킷과 기타 캐주얼 의상을 판매하며, 디자인, 니팅, 염색, 커팅, 바느질, 마케팅과 유통 사무소가 모두 LA 다운타운에 있다.

- 아메리칸 어페럴은 미국 최대 의상 공장 보유. LA에 5,000개 공장과 사무소에 10,000명의 직원 고용. 19개 국가에 260개 리테일스토어 운영
- 한국 최초 아메리칸 어페럴 판매점은 2005년에 오픈
- 한국 내 판매점: 부산, 대구, 서울(강남, 대학로, 명동, 청담, 홍대)

BCBGMAXAZRIA

BCBG는 맥스 아즈리아가 1989년에 설립한 고급 의류 회사이며, 본사는 LA에 있다. BCBG는 멋진 스타일, 멋진 태도를 의미하는 프랑스어 “bon chic, bon genre”의 이니셜이다. 첫 BCBG 부티크는 1992년 LA에 오픈하였다.

- 한국에는 서울, 부산, 대구, 울산, 경기도, 대전, 광주, 인천, 죽전, 성남에 BCBG 판매점 운영

세븐 포 올 맨카인드(7 FOR ALL MANKIND)

2000년 LA에서 프리미엄 데님 회사로 시작하였으며 최근 다른 상품 라인으로 확대하였다. 설립 첫해부터 대성공을 거두었으며, “Sevens”는 할리우드 유명인사들이 가장 선호하는 브랜드가 되었다. 여성복, 남성복, 키즈, 스포츠 웨어, 핸드백, 신발로 상품 영역을 넓혔다.

- 한국을 포함한 80개 이상 국가에 자체 판매점, 백화점, 부티크 운영

트루 릴리전 (TRUE RELIGION)

2002년 버넌에 설립된 트루 릴리전은 프리미엄 데님 진 회사이며, 최근 스포츠웨어라인을 추가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데님, 니트, 스포츠웨어로 유명하며, 스포츠웨어에는 티셔츠, 웨스턴 셔츠, 스웨트 셔츠, 스웨트 팬츠 등이 포함된다. 또한, 신발, 모자, 핸드백, 수영복, 안경, 양말, 메리야스, 향수 등으로 상품라인을 확대하였다.

- 자체 리테일 스토어 미국 전역에 오픈. 한국에도 일부 리테일 스토어에서 제품 판매

캐런 케인 (KAREN KANE)

1979년 집 창고에 설립한 전문 의류 회사로 시작하여 LA에 150,000평방 미터 건물로 성장하였다. 전세계에 주로 주요 백화점을 통해 의류를 판매하고 있으며, LA와 중국에서 주로 생산한다.

- 한국에서도 의류 판매



LOS ANGELES COUNTY COMPANIES PRESENT IN KOREA (계속)

프로필



포에버 21

1984년 재미한인 장도원이 설립하였다. 초기에는 하이랜드 파크에서 작은 의상 부티크로 시작하였으며 판매가 급증함에 따라 미국 전역의 쇼핑 몰로 확장, 포에버 21이라는 새로운 브랜드로 옷을 판매하기 시작 하였다. 상품 라인은 탑, 드레스, 스웨터, 아웃도어웨어, 진, 팬츠, 실내복, 슈즈와 액세서리 등이 있다. 캘리포니아 내에서 의상을 제작함에 따라 패션 유행이 지나기 전 옷을 디자인, 제작, 판매할 수 있어 포에버 21의 사업 모델은 “fast fashion”이라 불렸다. 현재 8개 라인이 판매되고 있다.

- FOREVER21
- XXI (FOREVER)
- 21Men
- LOVE21
- LOVE21 임산부용
- FOREVER 21+
- HERITAGE 1981
- FOREVER21 GIRLS

현재 480개 판매점이 운영 중이며, 그 중 101개는 캘리포니아에 위치하고 있고, 그 중 26개는 LA 카운티에 있다. 한국은 명동과 신사동 두 곳에 판매점이 있다.

장도원

1981년 부인(진숙)과 미국으로 이민을 가기 전 장도원씨는 한국의 카페에서 일하였다. 미국 도착 후 1984년 옷 가게를 오픈하기 전까지 미국에서도 카페를 포함하여, 한 때 세 가지 일을 한 적도 있다. FOREVER 21을 확대하겠다는 그의 고집으로 결국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부자 400인에 포함되었으며, 순 자산 가치가 36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2011년 9월).

손성원 박사

포에버 21의 부회장이며, LA항 커미셔너인 손성원 박사의 성공은 교육과도 결부된다. 1963년 광주 제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미국으로 이민 갔다. 이후 경제학 분야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획득하였으며, MBA 과정도 마쳤다. 손 박사는 닉슨 대통령의 경제 고문 위원으로 참여하였으며, 웰스 파고 은행의 수석 경제학자를 역임하였고, 한미은행 사장 및 CEO를 지냈다.

업계 프로필

LA 의류 산업에 재미한인이 미친 영향

LA의 의류 산업에 재미한인만큼 많은 영향을 준 민족은 없다. 사실 재미한인은 40년 넘게 의류 관련 산업에서 주요한 역할을 해왔다. 1970년대 초 이후 한인들은 LA지역에서 소규모 의류 샵을 운영하기 시작했고, 섬유 염색, 니트, 프린팅, 기타 의류 관련 사업을 시작하였다. 많은 재미한인 사업가들은 옷감 제작, 수출/수입까지 사업을 확장하였다. 대부분 의류 산업 전문가들은 재미한인 사업가들이 지역 의류 사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 동의한다.

한인들이 LA의류 산업에서 막강한 입지를 구축할 수 있었던 몇 가지 주요 근본 원인이 있다. 우선, LA는 패션 디자인의 중심이며, 미국 의류의 수도이다. 캘리포니아와 헐리우드 브랜드에 대한 세계 소비자들의 인지도가 높아짐에 따라 LA는 유명한 의류 산업 도시가 된 것이다. 둘째, LA는 한국을 제외하고, 한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곳이다. 세 번째, 많은 한인들이 미국으로 이민 전 이미 한국이나 남아메리카에서 오랜 의류 산업경험을 갖고 있었다. 넷째, 한국은 1970년대부터 의류 산업 경쟁력이 높았고, 그로 인해 한국 이민자들은 이미 의류에 대한 높은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은 사업 소유에 대한 의지가 강했으며, 특히 의류 산업을 포함하여 소수의 산업에 집중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엔터테인먼트

LA 카운티는 세계 엔터테인먼트 수도이며, 디즈니, 폭스, 파라마운트, 드림웍스, 소니/콜롬비아, NBC/유니버설, 워너 브라더즈와 라이온 게이트 등 주요 스튜디오의 본거지다. LA 카운티는 유명 영화, TV프로그램, 비디오 게임과 음반 제작 및 유통의 중심지이며, 오스카, 에미, 그래미상 시상식이 이곳에서 열린다. 또한, 디즈니 외에 (*Fortune 500*대 섹션에 기술됨), 드림웍스, 라이온 게이트, NBC/유니버설, 파라마운트, 소니/콜롬비아, 워너 브라더스는 한국에도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드림웍스 (DREAMWORKS)

드림웍스는 영화, 비디오 게임과 TV프로그램을 개발, 제작, 배급하는 필름 스튜디오이며, 유니버설 시티에 본사가 있다. 스티븐 스피버그 감독과, 제프리 카첸 버그, 데이빗 게핀이 1994년 공동 설립하였다.

- 드림웍스의 애니메이션 부문은 드림웍스 애니메이션 SKG로 분사되었고, 영화 부문은 CJ 엔터테인먼트가 전세계(한국 포함) 배급

20세기 폭스 (20TH CENTRY FOX)

20세기 폭스사는 미국 5대 필름 스튜디오 중 하나이며, 캘리포니아 샌트리 시티에 위치해 있다. 가장 인기 있는 필름 프랜차이즈는 아바타, 더 심슨스, 스타워즈가 있으며, TvN은 폭스 엔터테인먼트 그룹 자회사이다. 폭스 인터내셔널 채널 (FIC)은 뉴스 코퍼레이션의 국제 멀티 미디어 사업부이다. 폭스 인터내셔널 채널은 FX, FOXCRIME, 내셔널 지오그래픽 채널, 내셔널 지오그래픽 채널 HD, Nat Geo Adventure, Nat Geo Wild와 Baby TV 등 7개 채널 브랜드를 운영하며, 모두 현지 언어로 방송하고 각 시장 별로 독립적으로 프로그램된다.

라이온게이트 (LIONGATE)

라이온 게이트 엔터테인먼트 코퍼레이션은 선도적인 독립 제작 엔터테인먼트 스튜디오이며, 모션픽처스, TV프로그래밍, 홈 엔터테인먼트, 가족 엔터테인먼트, VOD, 디지털 콘텐츠 배급 분야에서 입지를 확고히 하였다. 라이온 게이트에는 홍콩에 본사를 둔 타이거 게이트 엔터테인먼트가 속해 있으며, 라이온 게이트와 사반 캐피탈 그룹의 파트너쉽이다.

- 타이거게이트 엔터테인먼트사는 인도네시아, 홍콩, 싱가포르, 필리핀 등 아시아 시장을 대상으로 유료 TV 채널 THRILL과 KIX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 시장도 곧 진출할 계획이다.

- 타이거 게이트는 최근 CJ엔터테인먼트로부터 “A Yaksa”에 대해 한국과 일본 이외 지역 방송 판권을 매입했다.

유니버설 픽처스 (NBC/유니버설)

유니버설 픽처스는 1912년 설립된 NBC/유니버설의 자회사이며, 미국에서 오랜 역사를 가진 스튜디오 중 하나이다. 제작 스튜디오는 유니버설 시티에 있으며, 배급 과 기타 사무실은 뉴욕 시티에 위치해 있다.

- 대한 민국 화성시에 유니버설 스튜디오 놀이 공원 건축 계획이 2007년 5월 발표되었으나, 세계 금융 위기로 2014년 이후로 연기
- CJ엔터테인먼트는 한국 유니버설 픽처스 배급사임.

파라마운트 픽처스(PARAMOUNT PICTURES)

2,500개 타이틀을 보유한 최후 영화 스튜디오 중 하나이며, 가장 성공적인 프랜차이즈 영화로는, 스타 트렉, 대부, 인디애나 존스가 있다. 국내 영화관에도 광범위한 모션 픽처스의 네트워킹을 구축하고 있다.

- CJ엔터테인먼트가 한국 영화 배급

소니/콜롬비아 (SONY/COLUMBIA)

소니 픽처스 엔터테인먼트 글로벌 운영에는 영화 제작 배급, TV제작과 유통, 디지털 콘텐츠 제작과 배급, 월드와이드 채널 인베스트먼트, 홈 엔터테인먼트 인수 및 유통, 스튜디오시설 운영, 신규 엔터테인먼트 상품 개발, 서비스, 기술, 필름 엔터테인먼트 배급이 속해있다. 소니 픽처스는 컬버 시티에 위치하고 있다.

- 소니 픽처스 엔터테인먼트의 국제 모션 픽처스 운영에는 한국의 콜롬비아 필름 프로덕션 아시아가 속해있다.
- 소니 픽처스 텔레비전에는 AXN, Animax, AXN Mystery 브랜드 채널이 있다.



LOS ANGELES COUNTY COMPANIES PRESENT IN KOREA (계속)

워너 브라더즈 (WARNER BROTHERS)

워너 브라더즈로도 알려진 워너 브라더즈 엔터테인먼트사는 버뱅크에 위치한 영화 및 TV 엔터테인먼트 기업이다. 타임 워너의 자회사이며, 인터랙티브, 뉴라인 시네마, THE WB 와 DC Comics 등 자회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

- 워너 TV는 Qook TVF를 통해 VOD로 한국에서도 시청 가능하다

- Heareus 귀금속(Heaeus Materials Korea Corporation) 사무소는 서울 위치
- Heraeus 자재 기술 (HeraeusOriental HiTec Co., Ltd)은 인천에 위치
- Heraeus Electro-Nite (우진 Electro-Nite)는 경기도 소재
- Heraeus 치과 제품 (Hiden Co. Ltd)은 서울에 위치

기술

로빈슨 헬리콥터 (ROBINSON HELICOPTER)

1973년 프랭크 로빈슨이 설립하였으며, 토랜스에 본사가 있다. 직원 수는 1,200명이며, 북미의 주도적 헬리콥터 생산기업이다. 토렌트 사무소와 공항 공장에서는 용접, 기계작업, 조립, 도장, 비행 테스트를 포함한 모든 운영과 작업이 이루어진다. 로빈슨 헬리콥터는 또한 비행 강사와 기술자를 위한 교육을 제공하고, 헬리콥터 수리정비 서비스도 제공한다.

- 110명의 공장 인증 딜러가 있으며, 한국을 포함한 50개 국가에 290개 서비스 센터가 있다
- 서울에 위치한 세진 항공이 한국 딜러이며 서비스 센터 역할을 한다

트로잔 배터리 (TROJAN BATTERY)

1925년 LA에서 설립되었으며, 1960년도에 현재 본사가 있는 산타페 스프링스로 이전하였다. 딥 사이클 배터리 기술 선도기업이며, 트로잔 배터리는 골프카트, 유틸리티 차량, 공중 작업용 플랫폼, 소형 전동형, 중장비 및 상용 트럭, 해양/레크리에이션 차량, 신재생 에너지용 제품을 생산한다.

- TBK 코퍼레이션이 한국 대표 유통사이다.

HERAEUS 금속 가공(HERAEUS METAL PROCESSING)

HERAEUS그룹은 전세계에 사무실을 운영하고, 독일에 본사를 둔 귀금속 기술 기업으로 주요 사업 분야는 귀금속, 센서, 치료 제품, 치과 제품, 수정 글라스, 특별 광원이 있다. 산타페 스프링스를 포함해 미국 7개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

바이오메디컬

오바지 의료 제품 (OBAGI MEDICAL PRODUCTS)

스킨케어 제품 개발, 생산과 마케팅 회사로 롱비치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의사가 처방하는 기능성 제품 시장에서 미용 및 스킨케어 시스템 분야 최고 기업이다. 오바지 제품은 성인 스킨 트러블 방지에 사용되며 피부과, 성형외과, 미용 시장을 대상으로 한다.

- 오바지는 전 세계로 영업망을 확대하였으며, 현재 한국을 포함하여 42개가 넘는 국가에 판매 파트너가 있다
- 한국 유통사는 동국 제약이며, 서울 강남구에 위치하고 있다

썬라이더 (SUNRIDER)

썬라이더는 전 세계 수천 개의 프랜차이즈 스토어를 보유하고 있으며, 베이징에는 호텔을 소유하고 있는 도매 유통기업 및 프랜차이즈이자, 상업용 부동산 회사이다. 토랜스에 본사가 있는 썬라이더는 미국으로 1970년대 이민간 텐테후 박사와 첸오이 린 박사가 설립하였다. 건강, 미용, 식품, 가정용품 등이 전 세계 4개 생산 설비에서 생산된다.

- 40개 국가에서 7,000개 리테일 스토어를 운영하고 있다
- 서울 사무소를 포함하여 20개 국가에 사무소가 있다
- 한국에는 다수의 리테일 스토어와 2011년 3월에 개장한 플래그쉽 스토어가 있다



LA 카운티에 기반을 둔 한국에 사무소를 운영하는 기타 회사

네슬레 U.S,A

네슬레 U.S.A.는 세계 최대 식품 회사인 네슬레 스위스 S.A에 속해 있으며, 미국 본사는 글렌데일에 있다. 캘리포니아, 커네티컷, 뉴저지와 미주리주, 26개 생산 설비, 22개 유통 센터에 총 21,000명 이상의 직원이 일하고 있다.

- 네슬레 코리아는 서울에 본사가 있다
-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상품은 네스카페 돌체 구스테, 네스프레소, 네슬레 푸리나, 워터라인, 테이스터스 초이스이다

PELICON PRODUCTS

PELICON PRODUCTS는 토랜스에 위치한 제조회사이며, 1978년 데이프 파커가 설립하였다. 고급 조명 시스템, 프로텍터 케이스와 선적 컨테이너를 생산한다.

-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 6개 생산 공장, 6개 유통 센터와 판매 사무소가 있다
- 50개 이상 국가에서 제품을 유통하며, 다음을 제공한다:
 - 다국적 제품 패키징 및 영업 직원
 - 국제 전력 공급
 - 영어 스펙 데이터와 지표 측정값
 - 수출 선적을 위한 견고한 포장
- PELICAN PRODUCTS 코리아가 2011년 10월에 서울 사무소를 오픈하였다.

인터내셔널 리스 파이낸스 코퍼레이션 (INTERNATIONAL LEASE FINANCE CORPORATION)

1973년 처음 설립되어 리스와 항공기 판매를 중심으로 영업을 시작하였다. 항공단 편성(Fleet planning)과 합리화(rationalization), 매출과 노선 분석, 제품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구조화 금융을 포함하여 전통적인 리스 관련 모든 분야를 다룬다. 항공기 보유대수가 1,000대에 이른다.

- 한국의 일부 항공사/고객(아시아나, 제주 에어, 대한항공, T' way Air)에 항공기 리스와 판매를 하였다

프로필



제이미슨 서비스 (Jamison Services, Inc.)

(LA 카운티에 본사가 있으나, 한국에 아직 사무소가 개설되지 않은 한인 기업)

부동산 투자, 관리 및 리스 서비스 회사인 제이미슨 서비스사는 주로 사무실로 구성된 건물 100개 이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의 3대 상업용 사무실 건물 소유기업 중 하나이며, 의료 건물, 쇼핑 센터, 주거 개발 단지 등도 보유하고 있다. 시가 총액 3십억 달러로 높은 입주율을 달성해 왔다. LA광역지역에서도 상업용 부동산 분야 선두 주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LA다운타운에서 LA패션 산업의 중심인 캘리포니아 마켓 센터 (CMC)를 소유하고 운영하고 있다. CMC는 다운타운 패션 구역에 있으며, 수백 개 패션 도매 쇼룸, 섬유, 선물 및 홈 데코와 다양한 사무용품, 스튜디오, 패션 디자인 스쿨, 식당, 카페, 숍, 특별 행사용 공간 등이 입주해 있다.

- 제이미슨 서비스는 LA 다운타운 서쪽 윌셔 블러버드에 있다

LA 카운티에 있는 주요 한국 기업

우리 은행(WOORI BANK)

우리은행 아메리카는 한국의 대표 은행인 우리은행의 미국 지점이다. बैं킹, 자산 관리, 보험, 고객 신용, 증권과 투자 펀드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

- 우리 금융 그룹은 2001년 설립되었다.
- 1978년 설립된 우리 은행-L.A 에이전시는 우리은행의 미국 영업을 지원 감독한다.



SOME KEY KOREAN COMPANIES PRESENT IN LOS ANGELES COUNTY (계속)

신한 은행 (SHINHAN BANK)

신한 은행 아메리카는 한국의 신한 은행 지점으로 5개 주에 지점이 있으며, 캘리포니아에서만 4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1990년에 설립된 신한 은행은 한국의 선도 은행이다(신한 금융 그룹에 속함).

- 1990년에 미국에서 설립
- 캘리포니아, 조지아, 텍사스, 뉴저지, 뉴욕에서 영업
- 한국의 신한 은행 자회사
- LA 올림픽 블러버드에 캘리포니아 지역 사무소 위치

외환은행 (KOREA EXCHANGE BANK)

2004년 초부터 영업해온 비은행권 금융기관인 KEB LA 파이낸셜을 포함하여 10개 이상의 모회사 글로벌 네트워크를 자랑하는 외환은행은 북미 지역에서 30년간 영업해왔다(KEB캐나다 설립 30주년을 맞이하였다).

- LA 사우스 피규에라에 캘리포니아 본사가 위치해 있다
- 기업 고객으로는 한국 기업 지점과 한국 소유 기업들이 있다

아시아나 항공 (금호 아시아나 그룹)

1988년 설립된 아시아나 항공은 22개 국가 68개 도시에 72개 항공기를 취항하고 있으며, 전 세계로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아시아나 항공은 한국 제 2의 항공사이다.

- LA에 영업 사무소가 있고, LA국제공항과 서울을 하루 2편 운항한다

롯데 인터내셔널 아메리카(LOTTE INTERNATIONAL AMERICA)

창립자 신격호 회장이 1965년 주로 일본 시장을 겨냥하여 설립하였다. 1970년대 음료, 햄, 우유 등 다양한 식품 산업으로 확대하였다. 현재 전문 분야는 식품, 관광, 금융, 건설분야이다.

- 롯데 인터내셔널 아메리카는 LA에 사무소가 있다

CJ아메리카 (CJ AMERICA)

한국의 대표적인 글로벌 생활 문화 기업 CJ는 1979년 미국 내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식품 & 식품서비스, 엔터테인먼트 & 미디어, 생명공학, 그리고 신유통 등 4가지 핵심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선택과 집중의 경영을 통해 핵심 사업 부문을 더욱 강화하여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다.

- 2003년 식품 도매 유통 사업 (CJ FOODS) 시작 및 2007년 애니천 및 옴니 인수 합병
- 2004년 베이커리 카페 뚜레쥬르 미국 런칭 및 2012년 현재 18개 가맹점 운영
- 2007년 북미 및 멕시코 지역 물류 사업 (CJ GLS) 시작 및 2011년 대한통운 인수
- 2010년 한식 레스토랑 비비고 시작 및 2012년 현재 3개 레스토랑 운영
- CJ E&M 2005년 영화배급 시작 및 2009년 시네마 CGV LA 오픈

KBS

한국 방송 공사는 한국의 대표적인 방송 및 미디어 서비스 공사이다. LA 카운티를 포함한 북미 지역 11개 카운티에서 방송 서비스를 제공한다.

- KBS 월드는 2003년 공식 출범하였다
- KBS 아메리카는 2005년 출범하였고, KBS 코리아와는 다른 개별 일정을 운영

MBC

MBC 아메리카는 한국 문화방송의 자회사이며 1991년 LA에서 설립되었고, 북미, 중미, 남미지역에 MBC프로그램을 방송, 배급, 판매하고 있다.

- 사무소는 LA 시내 6가에 위치하고 있다.

네트워크 케이블 U.S.A. CO. LTD

네트워크 케이블은 1999년 설립된 네트워킹 케이블 생산 기업이다 (콕 어셈블리 커넥터, 감쇠기, 커넥터). 케이블, 수동 부품, 유통 시스템과 기타 옵틱 제품 개발, 생산을 통해 글로벌 기술 산업 발전에 중점을 두고 있다.

- 2009년 3월 LA사무소 설립
- 한국, 중국, 베트남과 미국에 사무소
- 북미 지역 본부는 LA에 있다(월서 블러버드)



재능 교육 (JEI LEARNING CENTERS)

학습 능력과 개념을 스스로 획득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교육으로 박성훈 회장이 어린이 수학, 영어, 창의적 사고 능력과 학생별 필요에 맞는 교육에 초점을 두어 회사를 설립하였다.

- 1977년 설립
- 캘리포니아 16개 센터, LA 2개 센터

HANIL COMMERCIAL TRADING, INC

알루미늄과 스틸 가압 테이블 베이스 생산기업인 Hayashi Company의 미국 유통센터이다. 현대산업용 가구, 사무가구, 상업용 가구를 생산한다.

- Commerce에 위치
- 2001년 설립

한국 타이어 (HANKOOK TIRE)

한국 타이어는 울트라 고성능 자가용 타이어, 경량/중간/중장비 트럭 타이어, SUV타이어와 버스 타이어를 생산한다. 1981년 뉴저지에 최초 북미 사무소를 오픈 하였다.

- 유통 센터와 지역 사무소는 LA 광역지역에 위치해 있다(란초 쿠카몽가)

금호 타이어 (KUMHO TIRES)

금호 타이어는 한국 자동차 생산 초기 단계이던 1960년 광주 시 양동에서 최초 설립되었다. 1965년 태국으로 선적을 시작하였고, 1974년 미국의 UNI Royal과 기술제휴를 맺은 후 본사를 송정 공장으로 이전하였다. 금호 타이어는 세계 15대 타이어 제조기업 중 하나이며 160개 이상 국가에 수출하고 있다.

- 미 본사, 영업, 마케팅, 일반 사무소는 LA 광역지역에 있다(란초 쿠카몽가)

한화 인터내셔널(HANWHA INTERNATIONAL LLC)

1952년 한국 화약으로 설립되었으며, 현재는 화약 이외에 석유, 금속, 태양에너지, 금융을 전문으로 한다.

- LA 광역 지역에 한화 솔라 아메리카 홀딩스(어바인)

한국항공우주산업(KOREA AERISPACE INDUSTRIES LTD)

한국항공우주산업은 한국의 항공산업 발전과 주요 비행기 및 위성 부품 생산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의 김홍경 사장은 항공산업 발전을 위해 삼성, 대우 그리고 현대를 결속시켰다. 현재 한국항공우주산업은 4개 국가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

- 1999년 설립
- 미국에 3개 사무소가 있으며, 그 중 한 곳은 라 미라다 (La Mirada)에 위치

대성그룹(DAESUNG GROUP)

대성그룹은 환경에 중점을 두고 에너지를 개발, 공급한다. 1970년대 이후 사업분야를 기초재료, 전자, 기계, 건설, 환경 분야 및 IT 분야로 다각화해 왔다.

- 1947년 대성산업 (Daesung Industrial Corporation)으로 설립
- 대성 C&S, 대성 NACHI 유압공업, 한국 캄브리지 필터, 대성정보시스템, 신호 환경, 대성계측, 셀틱, 대성산업 가스 등 계열사를 두고 있다
- 세리토스(Cerritos)에 있는 미국 사무소는 태양 에너지 시장에 중점을 두고 있다

SBS인터내셔널(SBS INTERNATIONAL)

SBS인터내셔널은 한국 민영 방송사업자이다. 한국의 최대 민영 방송국으로써 수많은 한국 드라마, 골프 및 축구 경기를 생중계한다.

- SBS인터내셔널은 LA도심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
- SBS는 한국 기업 중 최초로 LPGA를 후원하였다

굿필코리아(GOOD FEEL KOREA)

굿필코리아는 친환경적 방식으로 문구, 볼펜 및 필기류를 생산한다. 동양그룹이 1977년 최초로 회사를 설립하였다. 한국은 물론 미국, 일본, 호주에도 수출하고 있다.

- 환경분야에서 국무총리상과 지식경제부장관상을 수상하였다
- 미국 지사는 토랜스(Torrance)에 있다



SOME KEY KOREAN COMPANIES PRESENT IN LOS ANGELES COUNTY (계속)

DANU U.S.A. INC.

Danu U.S.A.는 플러시 천 소재 동물인형, 액자, 베개, 실내장식 등 제품을 생산한다. 월트디즈니사, 스타벅스, Bulid-A-Bear 사가 이 회사의 오랜 고객이다.

- 미국 지사와 전시실은 Azusa 에 있다

대교 아메리카(DAEKYO AMERICA, INC.)

대교는 보습교육 서비스 기업이다. 현재 로스앤젤레스, 애너하임, 다운니, 가든 그로브와 몬테벨로 연합학교지구 (Unified School Districts)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교는 Enopi 학습센터 (Enopi Learning Center)의 일부이다.

- LA에 사무소

진로 아메리카(JINRO AMERICA, INC.)

진로는 1924년 설립된 한국의 대표적 주류회사이다. 맥주와 (쌀로부터 만들어지는 증류주인) 소주뿐 아니라 레드와인, 위스키와 생수도 판매한다. 진로의 맥주와 소주 제품은 한국에서 인기가 높으며, 진로의 미국 유통법인은 LA에 위치하고 있다.

- 1986년에 LA에 설립
- 지난 5년 동안 조니워커, 스톨리치나야(Stolichnaya), 바카디 매출을 추월하며,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주류 브랜드로 성장

KT아메리카

KT는 1981년에 한국 성남에 설립된 한국의 통합 유무선 전화 서비스 기업이다. KT는 무선통신 계열사였던 KTF를 2009년에 합병하였다. 1990년 뉴욕에 사무소를 개설 했지만, 북미 사업을 공식적으로 시작한 것은 1993년이다. KT의 미국 사업은 주로 재미한인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KT는 국내 수준 높은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뿐 아니라, 초고속 무선/위성 통신망을 포함, 지능정보네트워크 구축에 중점을 두어 세계적인 전기통신 선도

기업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KT아메리카는 통신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인터넷과 기업 통신 서비스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 KT아메리카는 북미 본부를 LA로 이전하였다

오뚜기 아메리카

오뚜기는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한국 식품기업이다. 1969년 설립되어 4개 대형 공장, 7개 해외법인, 14개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식품회사는 수프, 인스턴트 국수, 케첩, 마요네즈, 식초, 기름, 참치, 스낵, 카레 등 총 3,000여 제품을 생산한다. 오뚜기는 한국에 일본식 카레를 최초로 상용화한 회사이다. 한국에 가장 성공적인 식품기업 중 하나로 한국 KOSPI 200 기업이다. 오뚜기 아메리카는 2005년 이후부터 차별화된 맛과 현대적인 서빙 스타일로 북미 식품산업계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 오뚜기 아메리카 본사는 LA 카운티 가데나(Gardena) 시에 위치한다



프로필



한진 그룹

한진 그룹은 한국의 대기업이다. 한진은 1945년 당시 주한미군의 수송 업무를 대행하며 사업 기반을 다졌다. 현재 주요 계열사는 (주)한진, 한진 해운, 대한항공 등이 있다. 한진은 LA 카운티에 직간접적으로 1,900개 일자리 창출, 총 13억5,000만 달러의 경제 효과, 연간 5,350만 달러 임금 창출 효과 등이 지역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한진 미국 계열사 중 한진 해운, (주)한진, 한진중공업/건설, 대한항공이 LA에 거점을 두고 있다.

한진 해운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진해운은 한국 최대이자, 세계 10대 해운기업이다. 연간 1,000억톤이 넘는 화물을 운송하고 있으며, 200척이 넘는 컨테이너선과 컨테이너를 소유하고 있다. 현재 한진해운은 선박관리(한진SM), 물류IT솔루션(싸이버로지텍)과 선박수리(ZESCO)를 기반으로 3자 물류 서비스(3PL)로 서비스를 확장하는 데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미국 내에 20개 한진 해운 사무소가 있으며, 그 중 하나는 롱비치에 있다. 롱비치항은 13개 한진해운 전용 터미널 가운데 하나이다. 한진 그룹은 LA 항구들과 롱비치항을 통해 처리되는 전체 컨테이너 물동량의 5.6%를, 한국과 캘리포니아 지역 항구간 컨테이너 물동량의 10%를 차지 한다. 한진 항만 관련 활동으로 LA 카운티에 직간접적으로 35,000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

(주)한진(HANJIN TRANSPORTATION)

(주)한진(HANJIN TRANSPORTATION)은 1949년 조중훈 회장에 의해 설립된 한진 그룹 계열사이다. 1950년대에 한국에서 미군 보급품, 수송품, 화물들을 수송하기 시작하며 크게 성장하였다. 1970년대에는 내륙수송, 항공수송, 해운으로 서비스를 확장하였다. 1990년대에는 택배서비스를 통해 일반 소비자들에게 다가갔다. 2001년에는 물류에 정보기술을 접목하는 3자 물류 서비스(3PL)를 추가하였다. 오늘날 (주)한진(HANJIN TRANSPORTATION)은 세계 유명 물류 기업이며, 한국 최대 물류 기업으로 성장하였다.

대한항공

1948년 Korean National Airlines 으로 설립되었고, 1962년에 대한항공공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한진 그룹은 공식적으로 1969년부터 대한항공을 경영하기 시작했으며, 1971년에 최초로 LA정기노선을 개설하였다. 대한항공은 저가항공사 '진에어' 를 계열사로 두고, 한국 국내선과 아시아 지역에 저가항공노선을 제공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현재 19,500명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연간 승객 3백만 명을 수송한다. 2010년에는 국제 166만톤, 국내 14만 톤의 화물을 운송하였다. 대한항공은 고급 비행을 제공하는 세계 최대 상용비행기 A380을 5기나 보유하고 있다. 2011년 8월 대한항공은 항공사 중 최초로 A380으로 뉴욕-태평양 노선을 운항하였다. LA공항을 취항하는 A380을 보유한 항공사는 대한항공, 싱가포르항공, 판타스항공 3곳에 불과하다.

대한항공 미주 본사는 LA도심에 위치한다. 대한항공은 LA 카운티 내에서만도 6,250개 정규직, 연간 12억5,000만 달러 경제적 효과, 3억1,000만 달러 임금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핵심 내용

- 한진해운은 포브스지가 선정한 “아시아 50대 유망 기업” 중 하나이다
- 한진해운과 (주)한진은 전세계 70여 국가에 운항과 수송을 하고 있다
- 2010년 한진해운 매출은 80억 달러를 상회하였다
- 2010년 (주)한진의 매출은 10억 달러를 약간 밑도는 수준이다
- 대한항공은 IATA에 의해 2004년부터 2009년까지 1위 국제화물 항공사로 선정되었다
- 대한항공은 Aeroflot, AeroMexico, Air France, Alitalia, CSA Czech Airlines, China Southern Airlines, Continental Airlines, Delta Air Lines, KLM and Northwest Airlines 를 포함하는 항공사 제휴 프로그램인 SkyTeam 창립 멤버이다
- LA공항에서 매일 최소 대한항공 2편을 취항한다



프로필



삼성

삼성물산(Samsung Trading Co.)은 고 이병철 회장이 1938년 대구에 설립한 트럭회사로 시작하였다. 창립 이래 삼성이라는 이름은 떠오르는 신기술 추세에 맞추어 혁신하고 변화하는 기업의 전형이 되었다. 고 이병철 회장이 보험, 증권, 소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회사를 다각화하면서 삼성그룹이 형성되었다. 1960년대 삼성그룹이 전자 분야로 과감하게 진출한 것이 회사 역사의 중요한 전기가 되었다.

삼성그룹은 현재 삼성전자가 주도하고 있으며, 주요 계열사만도 33개에 이른다. 삼성 그룹 상위 8개 계열사의 시장가치와 종업원 수는 다음과 같다:

1. 삼성전자

- 산업: 반도체
- 시장가치: 1,129억 달러
- 종업원수: 89,741명

2. 삼성생명

- 산업: 생명보험
- 시장가치: 189억 달러
- 종업원수: 6,221명

3. 삼성화재

- 산업: 손해 및 상해 보험
- 시장가치: 99억 달러
- 종업원수: 5,173명

4. 삼성C&T

- 산업: 무역
- 시장가치: 91억 달러
- 종업원수: 4,665명

5. 삼성 전기

- 산업: 전자
- 시장가치: 78억 달러
- 종업원수: 10,100명

6. 삼성중공업

- 산업: 중장비
- 시장가치: 71억 달러
- 종업원수: 12,623명

7. 삼성SDI

- 산업: 전자
- 시장가치: 64억 달러
- 종업원수: 6,530명

8. 삼성카드

- 산업: 소비자 금융 서비스
- 시장가치: 60억 달러
- 종업원수: 3,524명

기타 계열사들

- 삼성코닝정밀유리
- 삼성SDS
- 삼성테크윈
-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
- 삼성 디지털 이미징
- 삼성증권
- 삼성 투자 신탁 운용
- 삼성벤처투자
- 삼성BP화학
- 삼성엔지니어링
- 제일산업
- 삼성에버랜드
- 신라호텔
- 제일 기획
- 삼성 S1
- 삼성의료원
- 삼성 인력 개발 센터
- 삼성경제연구소
- 삼성라이온스
- 호암재단
- 삼성문화재단
- 삼성복지재단
- 삼성생명공익재단
- 삼성토탈
- 삼성석유화학

삼성전자가 100% 출자한 계열사인 삼성전자아메리카(SEA)가 1977년 미국에 설립되었다. SEA 사업 부문은 다음과 같다:

- 삼성 소비자 사업 부문(Samsung Consumer Business Division, CBC)
- 삼성 기업 사업 부문(Samsung Enterprise Business Division, ECBD)
- 삼성 전기통신 아메리카(Samsung Telecommunications America, STA)
- 삼성 반도체(Samsung Semiconductor, Inc., SSI)
- 삼성 정보시스템 아메리카(Samsung Information Systems America, SISA)
- 삼성 오스틴 반도체(Samsung Austin Semiconductor, SAS)

LA 카운티 내 삼성 관련사

- 삼성테크윈 - Carson
- 삼성화재 - La Mirada



프로필 V

현대그룹

1947년 고 정주영 회장에 의해 설립된 건설회사인 현대토건이 최초의 현대그룹 회사이다. 한국전쟁 이후 사명을 현대건설로 바꾸었으며, 현대건설은 해외로 진출한 한국 최초의 건설회사가 되었다. 현대그룹은 1967년 현대자동차를 설립하며, 자동차 제조업에 진출하였다. 야심찬 사업가였던 정주영 회장은 한국에서 유조선을 건조하기 위한 투자자를 찾기 시작했고, 1972년 런던 바클레이스(Barclay's) 은행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한다.

그 이후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은 현대그룹의 성장을 이끌었다. 하지만, 정주영 회장이 2001년 고인이 된 후, 그룹은 독립적인 회사들로 분리되었다. 이 기업들 대부분은 정주영 회장의 상속자들이 현재 경영하고 있다. 주요 기업의 시장가치와 종업원수는 다음과 같다.

1. 현대자동차

- 산업: 자동차와 트럭 제조
- 시장가치: 358억 달러
- 종업원수: 55,984명

2. 현대중공업

- 산업: 중장비
- 시장가치: 294억 달러
- 종업원수: 24,982명

3. 현대모비스

- 산업: 자동차와 트럭 부품
- 시장가치: 235억 달러
- 종업원수: 6,107명

4. 현대제철

- 산업: 철강
- 시장가치: 92억 달러
- 종업원수: 8,144명

5. 현대건설

- 산업: 건설서비스
- 시장가치: 76억 달러
- 종업원수: 3,927명

6. 현대해상

- 산업: 손해 보험
- 시장가치: 21억 달러
- 종업원수: 2,815명

현대그룹

- 현대상선
- 현대증권
- 현대엘리베이터
- 현대WIA
- 현대로지엠
- 현대아산
- 현대유엔아이
- 현대경제연구원
- 현대투자네트웍
- 현대로템

LA 카운티 내 현대 관계사

- 현대상선 - 롱비치
- 현대로지엠 - LA에 해외지사
- 현대WIA - LA광역시역(Cypress)에 서부지역 기술센터

현대자동차와 현대그룹은 미국과 LA 카운티에서 큰 입지를 확보하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2010년 미국에서 538,000대의 자동차를 판매하여 미국 전체 자동차시장의 4.6%를 차지하였다. LA 카운티에는 11개 현대 자동차 딜러가 있다. Edmonds.com에 따르면 현대자동차가 소유한 기아자동차의 LA지역 판매가 105%나 급증하였다. 현대상선은 계열사인 캘리포니아 연합 터미널(California United Terminals)을 LA항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Port's Pier 500 project에 투자할 계획이다.

북미 본사:

- LA 광역지역(Fountain Valley)

LA 메트로링크 (METROLINK)에 현대로템 객차 도입

메트로링크 (Metrolink)는 현대그룹 계열사인 현대로템에 통근열차시스템 객차 137량 생산을 위탁하였다. 객차는 2010년 가을에 공식적인 운행을 시작하였다. 열차 충돌 사고 시 객차가 아닌 철도차량이 모든 충돌의 충격을 흡수하도록 설계되어 미국에서 가장 안전한 객차이다. 외부는 스테인레스 스틸로 구성되어 있고, 메트로링크 구형객차에 비해 등받이가 높고, 범퍼가 튼튼하다. 객차 1량 가격은 170만 달러이다.

회사 프로필 - 현대로템

- 현대그룹 계열사
- 철도, 중기, 플랜트 사업에 특화
- 세계 48개국에서 영업활동



프로필

LG

구인회 회장이 1947년 락희(럭키)산업을 창립하였고, 이후 1958년에는 금성을 설립하였다. 두 기업이 합병된 럭키금성(LG)은 플라스틱, 라디오,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및 에어컨 제품 생산의 선도 기업이 되었다.

1990년대 LG는 말레이시아, 태국, 중국, 베트남 등에 합작회사 또는 합작벤처를 설립하며 세계로 시장을 확장하였다. 1995년 LG는 미국 최대의 전자회사인 제니스(Zenith)의 지배지분을 획득하여 중대한 전기를 맞는다(1999년 LG는 나머지 지분도 인수한다). LG는 현재 계열사로 7개 전자회사, 4개 화학회사, 14개 전기통신 회사를 두고 있다.

1. LG화학

- 산업: 전문 화학
- 시장가치: 228억 달러
- 종업원수: 8,194명

2. LG Electronics

- LG전자
- 산업: 가전
- 시장가치: 136억 달러
- 종업원수: 29,554명

3. LG Corp

- 산업: 지주회사
- 시장가치: 112억 달러
- 종업원수: 72명

4. LG디스플레이

- 산업: 전자
- 시장가치: 111억 달러
- 종업원수: 28,874명

5. LG유플러스

- 산업: 전기통신
- 시장가치: 21억 달러
- 종업원수: 5,235명

6. LG상사

- 산업: 무역
- 시장가치: 13억 달러
- 종업원수: 12,623명

기타 계열사들

- LG 이노텍
- 하이프라자
- 하이로지스틱스
- LG실트론
- 루셈
- 씨텍
- LG생활건강
- LG생명과학
- 씨에스 리더
- 아인텔레서비스
- 데이콤크로싱
- 데이콤MI
- LG씨엔에스
- LG엔시스
- 비즈테크앤엑티모
- 유세스파트너스
- 서브원
- G2R
- L. 베스트
- LG경영개발원/경제연구원
- LG스포츠

LA 카운티 내 LG 법인:

- Cerritos에 LG화학 사무소(LGCAI)
- Cerritos에 LG생활건강 아메리카
- Cerritos에 LG상사 아메리카



프로필

SK에너지

2011년 1월 SK이노베이션에서 분사한 SK에너지는 1962년 설립된 한국 최초의 국내 정유회사였다. SK는 한국의 급속한 성장을 함께 하였다.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포함되어 SK는 1970년대에 석유화학사업 부문에서 성장한다. 1980년대에 SK이노베이션은 선경그룹으로 편입되었고, 가스, 석탄, 화학 사업 부문을 계속 추가하였다. 2007년에 투명성 제고, 원활한 관리, 계열사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 선도 등의 목적으로 그룹 지주회사를 설립하였다. SK에너지는 종합화학 및 석유화학, 에너지 산업에 중점을 두었으나, SK그룹은 건설, 해운, 마케팅, 유무선 전화, 초고속인터넷, 무선 광대역 등 다양한 서비스 분야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 SK그룹은 국내 3개 사육과 13개 해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핵심 내용:

- SK에너지의 유일한 미국 사무소는 LA에 있다
- SK에너지는 한국 최대, 아시아 4위 정유회사이다
- 2009년 SK홀딩스는 Fortune 글로벌 500대기업 중 72위, 2010년에는 104위를 차지하였다
- 2010년 종업원수는 32,000명에 달한다



월셔 그랜드 재개발 프로젝트

2011년 3월, LA시의회는 12억 달러 규모의 월셔 그랜드 호텔 재개발 프로젝트를 승인하였다. 2011년 12월23일 호텔은 공식적으로 문을 닫았다. 대한항공, 토마스빌딩을 비롯한 호텔 소유주들은 65층 규모의 사무빌딩과 45층 규모의 호텔과 콘도로 구성된 두 동의 빌딩을 건설할 계획이다. 이 건물의 디자인은 요세미티 공원의 상징인 Half Dome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친환경적 설계와 공법의 모

범이 되는 건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 호텔 건축으로 LA도심에 7,000개 이상 일자리 창출
- 완공된 건물은 영구적인 5,500개 신규 일자리 창출
- 개발로 LA 카운티에만 연간 2천만 달러이상 세수 예상

AC MARTIN

AC MARTIN 은 LA에 기반을 두고 있는 건축회사로, 첨단 상업/사무용 건물, 교육시설, 정부건물 등을 설계 하는 기업이다. AC MARTIN은 대한항공과 협력하여 LA도심의 월셔 그랜드 프로젝트를 설계한다.



6장 • 향후 과제

핵심 도전과제 (KEY CHALLENGES)

글로벌 경제

글로벌 경제는 앞으로 대한민국과 LA 카운티가 함께 계속 직면하게 될 주요 관심사이다. 거시경제 성장 추세와 재무 안정은 (LA 카운티를 포함하는) 미국과 한국의 무역과 투자 규모에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단기적으로 한국경제는 2011년도에 비해 다소 성장속도가 둔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지속적인 유럽 국가 부채 위기(및 계속되는 유럽 경기 침체), 중국 경제와 전 세계경제의 성장속도 둔화로 올 해 한국 수출은 감소할 것이다. 반면, 미국경제가 지속적으로 팽창하고 있고, 국내 소비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한국경제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일부 개발국들이 수출에만 경제성장을 의존하지 않고, 내수소비 진작에 나설 것인지는 아직 불확실 하다. 내수소비가 활성화된다면 직접적으로 미국과 한국 상품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개발국들이 앞으로 자국 경제를 개혁하고, 불균형 해소를 위해 노력한다면 한국과 LA 카운티 수출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미 달러와 원화 가치는 한국과 미국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이다.

이러한 신흥시장의 내수위축, 특히 미국과 한국 제품의 수요감소는 앞으로 근본적인 도전 과제가 될 것이다. 또한, 한국과 미국의 소비가 회복되게 되면 LA카운티와 한국 수출 증가로 이어질 것이며, 특히 한국과 LA지역에 주요 성장 산업이 확고히 정착하면 LA카운티와 한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더욱이, 핵심성장산업(녹색/청정기술, 신재생에너지, 바이오테크 등)이 LA지역과 한국에서 견고한 기반을 구축해 감에 따라 LA 카운티와 한국경제에 기여할 것이다.

더불어, LA 카운티와 한국의 다양한 경제는 점증하는 세계화 추세와 한미 FTA 실행으로 그 결실을 보게 될 것이다. 본 보고서에 기술한대로 LA 카운티는 매우 큰 시장과 고급 인력, 미국에서 가장 붐비는 항만 시설, 뛰어난 고등교육기반 및 풍부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향후 이 같은 모든 요소들이 결합하여 강력한 경제로 통합되면 LA 카운티와 한국의 전반적인 협력은 더욱 공고해 질 것이다.



무역이슈들

올해와 향후 몇 년간 한미FTA가 미국/LA 세관지역과 한국간 무역에 미치는 영향이 주된 화두가 될 것이다. 한미FTA는 이러한 자유 무역 협정이 없었다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핵심적인 무역 분쟁과 이슈들을 사전에 막아 줄 것이다.

2009년 세계재정위기는 “대불황(Great Recession)”으로 이어지며 전 세계수요를 급격히 둔화시켜 무역규모가 하락하였다. 하지만 2010년과 2011년에 걸쳐 미국과 한국 모두 높은 수출성장을 기록하였으며, 세계 무역은 상당 수준 회복하였다.

2012년에도 무역규모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 지역 항만들은 (2014년 파나마 운하 확장이 완료되면 더욱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대서양 연안 항구와의 경쟁 심화를 포함하여 많은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모든 무역이슈들은 연방, 주, 지역 정부가 자유무역, 인프라 개발 및 경제발전을 촉진하는 정책으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 이러한 이슈들 중 상당 부분이 연방정부 관할이지만, 주와 지역정부는 다음의 정책들을 통해 미국과 한국의 무역 증가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 세금 인센티브
- 기업유치 장려지구 (Enterprise Zone)
- 무역 기반시설 지출 - 항구, 공항, 철도, 각종통합수송기관
- 무역 재정 지원
- 항구 마케팅

한국으로부터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 및 증대

LA 카운티가 앞으로 직면하게 될 핵심 도전과제 중 하나는 이 지역에 위치한 한국기업 기반들을 다른 지역으로 유치하기 위한 활동들이 지속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지역 기업들과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며, 기업들이 LA 카운티에 계속 남아 있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에 주력해야 한다. LA 카운티는 이 지역에 많은 한국 기업들이 사무실과 본사를 설립함으로써 경제적, 문화적으로 큰 혜택을 받아 왔다. 한국으로부터 유입된 FDI는 30여 년 동안 LA 카운티 경제의 성장동력이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러한 고임금 일자리를 LA 카운티에 계속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투자과 관련된 또 다른 도전과제는 LA 카운티 경제발전을 위해 한국으로부터 새로운 FDI를 유치하는 것이다. 새로운 투자 유치를 위해 LA 카운티는 미국 내 다른 지역(특히, 뉴욕-뉴저지 지역)뿐 아니라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에 있는 새로운 시장들과 경쟁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한국은 강력한 경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미래 녹색산업을 주도하며 집중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에 투자를 늘릴 것이다. 다행히, 한국과의 강력한 무역협력과 비경제적 협력을 통해 LA 카운티가 상당 부분 투자를 유치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LA 카운티는 많은 유능한 인재를 보유하고, 하이테크와 혁신기업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다.

핵심 기회

무역과 한미FTA

2012년 3월 15일 발효된 한미FTA로 캘리포니아와 한국간 국제 무역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정부는 현재의 경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내수소비를 진작하는 거시경제 정책을 펴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한국정부는 새로운 FTA들을 체결하여 수출시장을 넓히는 정책을 계속 펼칠 것임을 밝히고 있다. 그 결과, 무역 양상은 단기적, 장기적으로 모두 개선될 것이다. 지속적인 성장을 구가하고 있는 한국 경제와 한미FTA의 직접적 효과에 따라 LA 세관지역으로부터 한국으로의 수출 성장 잠재력이 증가한 것이 LA 카운티와 한국 간 무역의 가장 큰 기회이다. 미국/LA세관 지역과 한국 간 무역규모는 관세와 비관세 장벽 철폐의 직접적인 효과로 즉시 그리고 수년 내에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이 강한 수출주도 경제 성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강력한 내수소비 창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한국 경제계는 2009년 세계불황으로 인한 위기감이 형성되어 보다 적극적인 경제 정책으로 전환하였다.



KEY OPPORTUNITIES (계속)

해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한국으로부터 LA 카운티로의 FDI 전망은 최근 어느 시기보다 밝다. 실제로 한국으로부터 유치되는 녹색기술에 대한 투자는 향후 수년간 LA 카운티의 가장 중요한 기회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가장 중요한 점은 한국 기업들이 LA지역이 미국에서 가장 한인 인구가 많을 뿐 아니라, 투자 수익 창출에 유리한 광범위한 경제기반과 사업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매력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LA 카운티는 한국기업들에게 다음과 같은 이점을 제공한다:

- 대규모 시장 (미국 카운티 중 최대 인구)
- 우수인력(우수한 고등교육기관)
- 탁월한 무역 인프라(항구, 철도, 고속도로 및 공항)
- 뛰어난 국내 및 국제시장 접근성
- 풍부한 기술력
- 세계 최고의 의류, 자동차 및 공학 디자인, 창의성 산업
- 미국 최대 제조업 기반
- 환율로 인한 비용 경쟁력 및 우호적인 투자 환경
- 연중 화창한 기후

이 보고서의 투자관계 (투자 관계) 섹션에 기술한 대로, 녹색/청정 기술, 엔터테인먼트, 디지털 미디어, 헬스케어, 바이오-테크, 항공우주, 전자, 교육 및 식품산업 분야에 가장 큰 기회가 있을 것이다. 앞으로 전기차, 태양에너지, 엔터테인먼트, 디지털 미디어, 항공우주, 하이테크 전자 및 헬스케어, 바이오-테크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 질 것이다.

또한, 최근 몇 년간 한국 원화 가치 상승은 LA 카운티가 신규 한국 투자를 유치하는 데에 큰 기회가 되고 있다. 원화 가치 상승으로 한국 기업들은 한국 내에서 생산 비용이 높아짐에 따라 해외 생산비중을 높여야 하는 필요성이 증가하였다. 이는 LA 카운티가 더욱 많은 한국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WTCA LA-LB 한국 무역과 FDI전략

중점 산업:

- 환경 친화적 교통
- 재생 에너지/녹색 기술
- 엔터테인먼트
- 헬스케어/바이오-테크
- 식품산업

파트너:

- 대한민국 총영사관
- KOTRA
- KITA

프로그램:

- LA 카운티 무역, 투자 미션
- 유명 한국 투자자 컨설팅 - LA 카운티, 한국
- 유명 투자자가 지원하는 지역 세미나 활동
- 상시 파트너들과의 협력 프로그램

헬스케어, 바이오테크 산업과 FDI

한국이 급격한 노령화 현상을 겪고 있는 국가라는 점에서 헬스케어와 바이오테크 분야에 내재된 투자기회는 매우 크다. 2025년도 한국 전체 인구의 30%가 65세 이상이며, 2050년에는 이 비율이 40%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오테크 산업은 지난 몇 년간 한국 FDI를 유치하는 핵심분야 중 하나였다. 대부분의 투자는 캘리포니아에 이루어졌다, 캘리포니아는 산업의 발상지이며, 대형 바이오테크 기업들이 이곳에서 시작하였다. 캘리포니아 바이오테크 기업들은 과학 혁신, 상업 비전, 재정 지원을 겸비하고 글로벌 리더 역할을 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 제약회사들이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LA 카운티 바이오테크 기업들은 한국 기업들이 가장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인만큼 한국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는 데에 집중해야 한다.



한국 투자를 통해 기대되는 기능:

- 유통
- 영업, 서비스
- 연구, 개발
- 지역 본부(지사) (이미 한국 중소기업들 대부분이 미국에 지사 운영)

기타 주요 기회

• 기후변화/지구온난화

LA 카운티는 이정표적인 캘리포니아 주 Global Warming Solution Act (AB32)(온난화 가스의 실제적, 정량적, 비용 효율적 감축을 위한 세계 최초 시장 기반 감축 프로그램)를 통해 지구 온난화에 대해 중요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 주와 한국은 기후변화에 함께 협력하는 파트너십을 체결하였다.

• 은행과 금융 서비스

한국과 미국간 무역 증가(특히, 한미FTA로 인해)에 따라 한국과 LA 카운티는 무역 금융 수요가 급격히 성장할 것이다.

• 전문/비즈니스 서비스

한국에서 LA 카운티로 투자가 증가하고, 동시에 한국으로의 투자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 특히, (한미FTA로 인해) 국제 무역과 FDI 유입도 계속 높은 성장세를 유지할 것이다. 따라서, 더욱 많은 한국 법무 법인들이 미국, 특히 LA지역으로 진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기업들과 LA 카운티 양측 모두 국제법률서비스와 국제무역기업, 컨설팅 및 회계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 재료와 기계

LA 카운티는 미국 제조업의 중심이며, 한국 기계 생산 기업들은 이 분야의 선도기업이다. LA설비 투자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특정 분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건설과 엔지니어링

한국은 고속철도, 고속도로와 교량을 포함한 선진 교통망을 갖추고 있으며, 이러한 모든 인프라는 강한 내진 설계로 건설되었다. LA 카운티와 캘리포니아 전체에 걸쳐 내진 설계가 필요한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한국의 건설 및 엔지니어링 기업들이 이 시장에 진출을 희망할 것이며, 따라서 LA 카운티에 운영 기반을 두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 의류와 창의적 디자인

한국의 부유 소비계층은 스타일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다. "LA브랜드"는 이미 한국 패션업계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소비자 상품 생산 기업들은 가정용품과 가구에서도 LA디자이너들과의 협력을 선호할 것이다.



7장·결론

특수 관계

본 보고서는 LA 카운티가 한국과의 독특한 역사, 교육, 문화, 경제, 비즈니스 관계로 인해 한국으로 통하는 미국 내 주요 관문으로 자리하게 되었음을 기술하였다. LA 카운티와 한국의 유대관계는 1900년대 초반 이후 강화되었으며, 한국이 1960년대 선진경제구축을 위한 여정을 시작할 때 유례없이 더욱 긴밀한 관계로 발전하였다. 한국의 경제성장은 글로벌 경제 판도를 바꾸어 놓았고, 한국의 경제 개발은 양국에 엄청난 기회를 가져다 주었다. 한국과 LA 카운티의 끊을 수 없는 관계를 공고히 한 핵심 요인은 전세계 무역, 자본/개인 이동으로 세계를 더욱 가깝게 만들었던 세계화였다. 이는 해외 유학생의 수에서 극명히 드러난다. 미국은 한국 유학생의 주요 유학국가 중 하나이며, 미국 내 전체 주 가운데 캘리포니아보다 더 많은 한국인 및 국제 유학생들을 유치한 주는 없다. 환태평양의 주요 관문인 LA는 한미간 교육 및 문화 교류 중심지로 자연스럽게 부상하였다. LA 카운티의 우수한 대학 중 2개 대학인 USC와 UCLA는 (양 대학을 합산할 경우) 미국 내 가장 많은 한국인 유학생이 재학 중이다.

1990년대 한국이 세계 최대 경제국 중 하나로 부상함에 따라 양 지역간 경제 및 무역관계가 강화되었다. LA항과 롱비치항은 미국 내 가장 붐비는 항구가 되었으며, 지금도 북미 최대 한국수입항의 입지를 유지하고 있다 (한미 FTA의 직접적인 결과로 이 같은 위상은 향후 지속될 것이다). 실제로, 한국 및 여타 아시아 국가로부터의 거대한 무역흐름의 직접적인 결과로 산페드로 항만단지는 전세계에서 8번째 가장 붐비는 항구가 되었다. LA 카운티는 진정한 미국 무역의 수도이고, 환태평양으로 통하는 관문이며, 한국은 환태평양 국가들 가운데 주요국가로 남아있다.

한국에 대한 미국 직접투자는 과거 30년간 증가하였다. LA 카운티 소재 많은 기업들은 이 같은 투자환경의 수혜를 누리고 있으며, 새로운 기회를 계속 모색하고 있다. P101 한편 과거 30년 동안 LA 카운티는 신규고용창출 및 소득원확보를 위해 한국으로부터 해외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적극 나섰다. 1980년대 및 1990년대 이후 한국 기업들은 세계에서 가장 저명한 글로벌 브랜드를 구축하였다. 실제로 한국 FDI는 뉴욕/뉴저지 3개 주로 구성된 지역을 제외하고, 미국 내 여타 지역 보다 LA 카운티에 더 많은 혜택을 가져다 주었다. 삼성, 현대그룹, LG, 한진그룹, 롯데 인터내셔널, CJ 아메리카, KBS, MBC, Networkcable USA, 한국항공우주산업, SBS 인터내셔널 등 대표적인 한국 기업들이 LA 카운티에 사무소 또는 미국 및/또는 북미본사를 두고 있다.



LA 카운티와 한국간 비즈니스 관계는 한국의 경제 기적과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금융 세계화로부터 가장 큰 수혜를 입었다. 또한, 다국적기업들은 국제관계뿐 아니라 국제비즈니스 양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세계화의 진화와 더불어 1980년대 후반 및 1990년대 초반 이후 Fortune 500대 기업들은 자사의 글로벌 운영기반을 확대해왔다. 아시아 인구 크기, 소득 및 구매력 향상을 감안할 때, 미국기업들에게 아시아는 무한한 기회를 제공하는 듯 보인다. Walt Disney, Dole Food, Avery Dennison, Reliance Steel and Aluminum, Mattel, AECOM, CB Richard Ellis 등 LA 카운티에 기반한 Fortune 500대 기업들은 이 같은 혜택을 누리고 있으며, 현재 부상하고 있는 아시아 중산층이 확대됨에 따라 이 같은 혜택은 지속될 전망이다. LA 카운티의 많은 핵심 산업클러스터를 대표하는 지역 기업들은 이미 한국에서의 입지를 견고히 하고 있다. 이 외의 기업들도 향후 한국과 아시아 지역의 문을 두드리고자 할 것이다.

유서 깊은 역사와 풍부한 잠재력

LA 카운티와 한국은 역동적이고 상호호혜적인 관계를 발전시켜왔으며, 이 같은 관계는 여전히 많은 잠재력을 보이고 있다. 양 지역을 연결시켜 주고 있는 강력한 비경제적, 경제적 유대관계를 고려할 때, LA 카운티와 한국의 관계를 논하는 데에는 어떠한 한계도 없다. LA 카운티는 미국 내 여타 지역보다 많은 재미한인이 거주하고 있다. 한국유학생 수가 증가함에 따라, 더 많은 한국 유학생들이 LA지역으로 이주할 것이고, 더 많은 비즈니스를 창출함으로써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양 지역간 유대관계는 더욱 공고해질 것이다. 수 많은 한국유학생의 유입이 가져올 또 다른 장점은 이들이 LA 카운티 소재 대학의 졸업생으로 살아갈 것이라는 점이다. 미래 기업 및 정부 지도자로서 이들은 LA 카운티 지역에 계속 거주하거나 또는 한국으로 귀국할 것이다. 이 두 경우 모두, 향후 국경간 비즈니스 기회가 크게 펼쳐짐에 따라 지역 커뮤니티는 커다란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LA세관지역 (LACD)은 미국으로 수입되는 한국수출품의 진입항으로서 성장하였다. 한국은 LACD의 3위 무역파트너이고, LA 카운티로 유입되는 FDI 투자국이다. LA와 한국의 투자관계는 매우 잘 알려졌으며, 오랫동안 유지되어오고 있다. 가장 즉각적이면서 장기적인 잠재력은 특히 LA 카운티의 산업클러스터에 대한 한국 무역 및 FDI 증가에 있다. 가장 많은 관심을 끌 것으로 기대되는 핵심 산업은 신재생에너지, 엔터테인먼트, 하이테크 전자, 우주항공, 바이오테크이다. 태양에너지는 한국 태양에너지 기업들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투자를 유치할 것이다. 한국기업들이 미국 내 제조사업부지를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LA 카운티를 미국 제조업의 수도로 키운 역량 있는 노동력이 큰 장점이 될 것이다. 2012년 3월 15일 한미FTA가 발효됨에 따라 LACD와 한국은 양자간 무역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되었다. 본 협정의 최대수혜자는 LA지역 항구와 모든 무역관련 산업/부문이 될 것이다. 실제로 한미FTA 발효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2011년 양자간 무역은 사상 최대를 기록 하였다. 이 같은 성과는 2012년 경신될 것이고, 우리는 한미FTA가 가져올 미래성장 잠재력을 매우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결론적으로, LA 카운티와 한국 관계의 미래는 무척 밝다. LA 카운티는 캘리포니아 경제와 미국, 더 나아가 글로벌 경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지속적으로 담당할 것이다. 타임지가 최근 표지 기사에서 지적인 바와 같이 미래의 핵심적인 녹색산업들이 황금의 주 (Golden State)라고 불리는 캘리포니아에 성공적으로 자리잡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미국 경제의 미래는 캘리포니아에 있다. 또한, 캘리포니아, 특히 LA 카운티는 더욱 더 수출 지향적 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미국의 노력을 선도할 것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Brookings Institution Exports, the Next Economy, Global Cities Initiative 참조). 한국이 세계 혁신 선도 국가 중 하나임에 따라 세계는 한국기업들이 글로벌 경제 성장을 추진하기 위한 최첨단 혁신 기술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A 카운티와 한국은 신재생에너지, 기후 변화 등 시급한 글로벌 이슈들을 해결하는 데에 앞장서 나갈 수 있다. LA 지역과 한국이 지속적으로 뛰어난 인재들을 배출하고 있는 가운데 LA지역의 연구중심 대학들과 한국 대학들 및 연구소들은 혁신과 신기술의 인큐베이터가 될 것이다.

LA 카운티는 과거 한국의 경제 성장 과정에서 많은 혜택을 누렸으며, 미래 특정 성장 산업의 경우 이 같은 유리한 입지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



STORIED HISTORY & A WEALTH OF POTENTIAL (계속)

그러나, 양자 관계의 미래전망을 조명하는 것만큼이나, 양자 관계가 향후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일부 개선 분야에 주목하는 것도 또한 중요하다. LA 카운티의 미래번영은 한국 및 기타 아시아 지역과의 관계를 얼마나 훌륭히 관리하는가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이다. 아래는 기존의 LA 카운티와 한국관계를 더욱 긴밀히 강화하기 위한 권고사항이다.

- LA 카운티를 한국 FDI의 가장 매력적인 투자 지역으로 진흥 및 홍보한다. LA 카운티가 제공하는 상당한 일반 가치와 투자수익을 더욱 극명히 보여주기 위해 본 보고서에 부각된 모든 요소들을 강조한다. 북미 및/또는 미국 본사, 제조공장, 유통 센터 등 입지지역을 모색하고 있는 한국기업을 유치하는 데에 역점을 둔다.
- 기존의 무역 인프라 (Alameda Corridor, 항구, 고속도로, 유통센터와 연결된 복합수송철도 역량, 기타 철도 역량, LA인천국제공항 등)의 개선을 위해 투자한다. 지역의 항구가 더욱 저렴한 비용을 제공하기 위한, 또는 2014년 파나마운하 개통에 대한 기대로 현재 시장점유율을 기타 북미 항구에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전략을 이행한다. 지역의 항구들은 모든 운송 체증과 관련된 우려, 적체 이슈, 기업 친화적이지 못하다는 선입견을 불식시켜야 한다. 미 상무부를 통해 자유무역과 무역진흥프로그램을 위한 자금조달 지원정책이 채택되도록 지역, 주, 연방차원의 영향력을 행사한다.
- 세계무역센터협회 로스앤젤레스-롱비치 (WORLD TRADE CENTER LOS ANGELES-LONG BEACH, WTCA LA-LB),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기타 한국관련 기관의 자원을 더욱 적극 활용하여 미국과 한국 기업들의 상호교류 수준을 증대하도록 한다.
- LA 카운티 초중등학교 및 본 보고서에 언급된 LA 카운티 기관 및 협회의 한국어 프로그램 수 증가에 역점을 둔다 (비경제적 관계 참조).

- 한국인 관광객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LA 카운티를 홍보한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 및 다양한 기관에서 영어를 습득하고자 하는 한국인들을 유치하고자 노력한다. (“비경제적 관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LA 카운티가 제공할 수 있는 모든 장점들을 강조함으로써 더욱 많은 한국인 관광객을 이 지역으로 유치하도록 마케팅 캠페인을 개발한다.
- LA 카운티 및 LA 카운티가 여타 북미 지역 대비 보유하고 있는 경쟁우위를 마케팅하고, 무역 및 투자 기회를 지원할 대표사무소를 통해 한국 내에서 LA 카운티를 위한 기관활동을 펼친다.
- 한미FTA 활용에 관심이 있는 양국 기업들과 양국정부 및 민간부문 전문가로 검토단을 구성하여 FTA 개선점을 도출 및 해결한다.



SOURCES

서문

- KOREAUS FTA: New Logistics Business Opportunities with Busan Port
- Korea Trade and Investment Promotion Agency (KOTRA)
- Invest Korea
- Kore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MOFAT)
- Korean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MKE)
- Consulate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in Los Angeles
- *Global California, Rising to the Cosmopolitan Challenge*, by Abraham F. Lowenthal
- IHS Global Insight
- The Economist, Economist Intelligence Unit (EIU)
- California Department of Finance (DOF)

1장: 역사 관계

- National Association of Korean Americans
- U.S. Census Bureau
- Korean National Association
- Migration Policy Institute
- Korea Journal of Population and Development: International Migration of Koreans and the Korean Community in China

2장: 비경제적 관계

EDUCATIONAL TIES

- Institute of International Education, 2011 Open Doors Report
- U.S. Department of Education
- Association of Pacific Rim Universities (APRU)
-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USC)
 - Vice Provost's Office for Globalization
 - Center for International Studies
 - Marshall School of Business
-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UCLA)
 - Office of Analysis and Information Management
 - International Institute
 - International Education Office
 - Office of Media Relations
 - University of California Education Abroad
- Loyola Marymount University
 - Institutional Research
 - Communications & Government Relations
- California State University (CSU), Dominguez Hills
 - Advancement Services
- Occidental College
 - Office of Alumni Relations
- California State University (CSU), Long Beach
 - Institutional Research and Assessment



SOURCES

2장: 비경제적 관계

EDUCATIONAL TIES

- Caltech
 - International Student Programs
 - Caltech Alumni Association
- California State University (CSU), Pomona
 - International Center
 - Office of Alumni Affairs
- California State University (CSU), Los Angeles
 - Office of Institutional Research
 - ERSS
 - Asian Pacific Business Institute
- California State University (CSU), Northridge
 - Office of Institutional Research
- The Claremont Colleges
 - International Placement Office
- Pepperdine University
 - International Placement Office

CULTURAL AND NETWORK TIES

- Consulate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in Los Angeles
- U.S. Census Bureau, *2009 American Community Survey*
- City of Los Angeles, *Sister Cities of Los Angeles*
- Sister Cities in the United States
- California Travel and Tourism Commission
- *The Korean Wave, A New Pop Culture Phenomenon* by the Korean Culture and Information Service
- Korean National Association
- Korean Education Center in Los Angeles
- Korean American Bar Association
- Korean American Historical Society
- National Association of Korean Americans
- Koreatown Youth & Community Center
- Los Angeles Korean Festival Foundation
- Korea Ministry of Culture
- Korea Ministry of Education
- Kollaboration
- Los Angeles Dodgers, Major League Baseball
- California Travel and Tourism Commission
- L.A. Inc.



SOURCES

3장: 무역관계

- Kore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MOFAT)
- Korean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MKE)
- Korea Trade and Investment Promotion Agency (KOTRA)
- Korean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KITA)
- U.S. Department of Commerce, Bureau of the Census, USATrade Online
- U.S. Census Bureau, Foreign Trade Division
-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 Los Angeles Chamber of Commerce, Global Initiatives
- California Chamber of Commerce, Trade Statistics
- California Department of Finance, California Trade Data
- U.S. Department of Commerce,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ITA)
- U.S. Department of Commerce, U.S. Commercial Service
-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Tariff and Trade Statistics
- Journal of Commerce
- PIERS Global Intelligence Solutions
- Central Intelligence Agency (CIA) *World Fact Book 2011*
- Port of Los Angeles (POLA)
- Port of Long Beach (POLB)
- Los Angeles World Airports, Los Angeles International Airport (LAX)
- Airports Council International (ACI)
- Los Angeles Times
- E-Cargonews Asia

4장: 투자 관계

- Bureau of Economic Analysis (BEA),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the U.S.*
- LAEDC Foreign Direct Investment Study
- World Trade Center Association Los Angeles-Long Beach (WTCA-LALB) – www.wtca-lalb.org
-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 ACG Los Angeles Capital Connection
- Deloitte, Korean Services Group
- Deloitte Consulting
- Asia-Pacific Business Outlook (APBO)
- OECD Investment Policy Reviews
- Korean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MKE)
- Consulate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http://usa-losangeles.mofat.go.kr/english/am/usa-losangeles/main/index.jsp>
- Korea Trade and Investment Promotion Agency (KOTRA) – www.kotrala.com
- Oaktree Capital Management - www.oaktreecapital.com
- Bank of Korea
- World Economic Forum
- Fortune Korea
- Business Week
- The Economist Magazine
- Time Magazine
- The New York Times
- The Financial Times
- Boston Consulting Group
- McKinsey Global Institute



SOURCES

5장: 비즈니스 관계

- Los Angeles Business Journal, *Book of Lists 2011*
- Fortune Magazine, *Top 500 Companies*
- LAEDC,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Los Angeles County*
- World Trade Center Association (WTCA-LALB)
- Consulate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in Los Angeles
- Korea Trade and Investment Promotion Agency (KOTRA)

FORTUNE 500 COMPANIES BASED IN LOS ANGELES COUNTY:

- Walt Disney Company, www.disney.com
- DirectTV, www.directv.com
- Reliance Steel and Aluminum, www.rsac.com
- AECOM, www.aecom.com
- Dole Food Company, www.dole.com
- Avery Dennison, www.averydennison.com
- Mattel, www.mattel.com
- CB Richard Ellis, www.cbre.com

LOS ANGELES COUNTY COMPANIES PRESENT IN KOREA:

- BBCN Bank, www.bbcnbank.com
- Hanmi Bank, www.hanmi.com/
- Wilshire State Bank, www.wilshirebank.com/
- Saehan Bank, www.saehanbank.com
- Pacific City Bank, www.paccity.net/
- Commonwealth Business Bank, www.thecommonwealthbusinessbank.com
- Pricewaterhouse Coopers, www.pwc.com/us/en/index.jhtml
- Deloitte & Touche, www.deloitte.com/view/en_US/us/index.htm
- Ernst and Young, www.ey.com/
- KPMG, www.kpmg.com/us/en/pages/default.aspx
- Korn / Ferry International, www.kornferry.com/
- Paul Hastings, www.paulhastings.com/
- O' Melveny & Myers, www.omm.com/
- Latham & Watkins, www.lw.com/
- Lewis Brisbois Bisgaard & Smith, www.lbbslaw.com/
- Mitchell Silberberg & Knupp, www.msk.com/
- Princess Cruises, www.princess.com/
- American Apparel, www.americanapparel.net/
- BCBGMAXAZRIA, www.bcbg.com/
- 7 for All Mankind, www.7forallmankind.com/
- True Religion, www.truereligionbrandjeans.com/
- Karen Kane, www.karenkane.com/
- Forever 21, www.forever21.com/
- DreamWorks, www.dreamworksanimation.com/
- 20th Century Fox, www.foxmovies.com/
- Lionsgate, www.lionsgate.com/
- Universal Pictures, www.universalpictures.com/
- Paramount Pictures, www.paramount.com/

Company websites are listed in order of appearance.



SOURCES

- Sony/Columbia, www.sonypictures.com/
- Warner Brothers, www.warnerbros.com/
- Robinson Helicopter, www.robinsonheli.com/
- Trojan Battery, www.trojanbattery.com/
- Heraeus Metal Processing, www.heraeus.com/
- Obagi Medical Products, www.obagi.com/
- Sunrider, www.sunrider.com/
- Nestlé U.S.A, www.nestleusa.com/
- Pelican Products, www.pelicanproducts.us/
- International Lease Finance Corporation, www.ilfc.com/
- Jamison Services, Inc., www.jamisonservices.com/

SOME KEY KOREAN COMPANIES PRESENT IN LOS ANGELES COUNTY:

- Woori Bank, eng.wooribank.com
- Shinhan Bank, www.shbamerica.com/
- Korea Exchange Bank, www.keb.co.kr/main/en/
- Asiana Airlines, <http://flyasiana.com>
- Lotte International, America, www.lottetrading.com/
- CJ America, Inc., www.cjamerica.com/
- KBS, <http://world.kbs.co.kr/english/>
- MBC, <http://mbc-america.com/xen/home>
- Network Cable U.S.A, Inc., http://networkcable.co.kr/en/network_03.htm
- JEI Learning Centers, www.jeilearning.com/
- Hanil Commercial Trading, Inc.
- Hankook Tire, www.hankooktireusa.com/
- Kumho Tires, www.kumhotireusa.com/
- Hanwha International LLC, www.hanwha-solarone.com/en/company
- Korea Aerospace Industries, America, www.koreaaero.com/english/main.asp
- Daesung Group, www.daesung.co.kr/eng/main.aspx
- SBS International, Inc. www.sbs-int.com/eng/
- Good Feel Korea, www.greenfeel.co.kr/en/
- Danu U.S.A Inc., www.danuusa.com/
- Daekyo America, Inc, www.daekyoses.net/
- Jinro America, Inc., www.jinrousa.com/
- KT America, www.ktamerica.com/
- Ottogi America, Inc., <http://www.ottogi.co.kr/otgr/english/Main.jsp>
- Hanjin Group, www.hanjin.co.kr/English_html/index.jsp
- Korean Air, www.koreanair.com/
- BizFed, www.bizfed.org
- AC Martin, www.acmartin.com/
- Forbes, www.forbes.com/global2000/
- Samsung, www.samsung.com/
- Hyundai Group, www.hyundaigroup.com/eng/
- Hyundai Motor, www.hyundaiusa.com/
- LG, www.lg.com/
- SK Energy, Inc., eng.skenergy.com/

Company websites are listed in order of appearance.



APPENDIX

SOME U.S. GOVERNMENT RESOURCES

GENERAL INFORMATION

- **The State Department** - www.state.gov
- **The Library of Congress Guide** - Online access to past bills, treaties, and resolutions, www.thomas.loc.gov
-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 Directory of Government documents, www.access.gpo.gov
- **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 Patents, Trademarks, Forms, order copies, www.uspto.gov
- **Public Diplomacy Calendar** - International Events Calendar, www.iec.state.gov
-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 Import/Export, Travel Info, Enforcement Activities, www.customs.ustreas.gov
- **Websites of U.S. Embassies, Consulates, and Diplomatic Missions**, www.usembassy.state.gov
-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www.iccwbo.org

GENERAL EXPORT COUNSELING

- **Office of the U.S. Trade Representative** - 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www.ustr.gov
- **U.S. Trade & Development Agency (USTDA)** - USTDA's mission is to advance economic development and U.S. commercial interests in developing and middle-income countries, www.tda.gov
- **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www.usaid.gov
- **U.S. Department of Commerce**, www.commerce.gov
- **U.S. Commercial Service** - Specialized services for exporting U.S. products or importing from U.S., www.buyusa.gov
- **Export.gov** - Comprehensive federal export assistance program, Helping U.S. companies export, www.export.gov
-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 Monitors, analyzes and provides information on industries, www.trade.gov
-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SBA)** - Finance counseling and information for small businesses, www.sba.gov
- **Manufacturing and Services Division** - U.S. industry's global competitiveness through critical analysis of domestic regulations, legislation, trade policy development, and negotiation, www.trade.gov/mas/index
- **Overseas Private Investment Corporation** - Supports U.S. businesses that invest in developing countries and emerging market economies, www.opic.gov





LOS ANGELES COUNTY
ECONOMIC DEVELOPMENT CORPORATION

444 S. Flower St., 37th Floor, Los Angeles, CA 90071
www.LAEDC.org • www.ChooseLACounty.com

